碩士學位論文

『景德傳燈錄』被動文 研究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 愛 羅

2003年 12月

『景德傳燈錄』被動文 硏究

指導敎授 安 在 哲

金 愛 羅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03年 12月

金愛羅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곽 이 부
委　　員	이 영 호
委　　員	안 재 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3年 12月

目　　次

Ⅰ. 緖論 ····· 1

1.1 硏究目的 ····· 1
1.2 硏究範圍 및 方法 ····· 2
1.3『景德傳燈錄』 ····· 3

Ⅱ. 被動文 定義와 類型 ····· 7

2.1 被動文의 定義 ····· 7
2.2 被動標識의 性格 ····· 9
2.3 『景德傳燈錄』被動文 類型 ····· 30

Ⅲ.『景德傳燈錄』被動文 ····· 40

3.1 被피동식 ····· 40
3.1.1 被피동식의 形式과 그 의미 ····· 40
3.1.2 被피동식 構造分析 ····· 43

3.2 기타 피동식 ····· 6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2.1 於피동식 ····· 69
3.2.2 爲피동식 ····· 70
3.2.3 與피동식 ····· 83
3.2.4 敎피동식 ····· 86
3.2.5 喫피동식 ····· 87
3.2.6 著피동식 ····· 88

Ⅳ. 結論 ····· 90

[參考文獻] ····· 93
[中文提要] ····· 9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緖 論

1.1 硏究目的

피동문은 중국어에서 上古 시대에 형성된 문형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피동문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古代나 現代에 치중하여 연구되었고, 古代와 現代의 架橋가 되는 近代 중국어의 연구는 미진하다 하겠다.

近代 중국어에서 피동문은 現代 중국어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문형들 중 매우 특징적이며, 그 자체의 변천 형식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형식 중 하나로, 피동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近代 중국어의 특징과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언급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唐鈺明은 唐代 口語에서 이미 被피동식이 爲피동식보다 훨씬 많이 쓰이게 되었고 목적어를 수반하는 것도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宋代를 거쳐 處置式과 결합하여 사용되거나 동사 前後 성분이 복잡해져갔다고 설명하고 있다.[1] 馮春田은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새로운 변화로는 <被+행위자+所+동사>식이 나타났고, 被피동식에서 동사 前後 성분이 복잡화되었으며, 喫피동식 등의 새로운 피동문이 생겨났다고 설명하고 있다.[2] 董志翹는 魏晋南北朝에서 唐・宋代 被피동식은 兩漢이전에 비해 형식이 복잡해졌고, 대다수 문형이 現代까지도 계승되어 쓰이는 등 뚜렷한 시대적 특색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 吳福祥은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특징에 대해서, 於피동식, 見피동식, 爲피동식 등이 점차 쓰이지 않게 되면서, 그 자리를 被피동식이 대신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喫피동식 등 새로운 피동문이 출현하고 있으며, 또한 被피동식은 構造가 점차 복잡해지고 의미 표현도 풍부해지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4] 沈錫倫은 晩唐・宋・元代 被피동식 構造가 古代는 물론 現代에 비해서도 다양하다고 언급하면서, 現代에 가서 도태된 文型을 살펴본다면 被피동식이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5] 刁晏斌은 近代 중국어 피동문에서는 被피

1) 唐鈺明, 「唐至淸的“被”字句」, 『中國語文』1988年 第6期, p.459.
2)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2000, p.585.
3) 董志翹, 「中世漢語“被”字句的發展和衍變」, 『語言文字學』, 1989.
4)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硏究』, 岳麓書社, 北京, 1996, p.451.

동식이 주를 이루면서, 古代 중국어 피동문과 비교할 때, 문장 성분이 복잡화되고, 處置式과 결합되는 새로운 형식이 출현하였으며, 被피동식이 피동을 표시하지 않는 문장까지도 나타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제시하고 있다.[6)]

이상의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近代 중국어 피동문에서는 被피동식이 피동문의 대표적 형식이 되고 있으며, 構造면에서도 古代에 비해 복잡해졌으며, 喫피동식 등 새로운 피동문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本稿의 목적은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시 언어 현상을 考察하는 것이다. 아울러 漢語史의 변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共時的 資料를 제공하는 것이다.

1.2 硏究範圍 및 方法

硏究目的에 따라 本稿는 近代 중국어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인 禪宗 語錄 중 가장 대표적 語錄인『景德傳燈錄』을 언어 자료로 삼는다. 『景德傳燈錄』은 北宋初 1004년에 간행된 대표적 禪宗語錄으로 당시의 口語的 언어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語料이다. 『景德傳燈錄』은 편폭이 긴 서적으로 本稿에서는 피동문 중 형식 표지가 있는 文型을 그 硏究範圍로 한다. 이는 형식상 피동문만으로도 『景德傳燈錄』을 통한 近代 중국어의 특징의 一面目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硏究方法으로는 『景德傳燈錄』의 全篇을 定量分析하여 형식상 피동문을 구분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행위자・피동자・동사・부대성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조적 특징과 의미를 分析한다. 먼저 筆者는 기존의 연구 자료들에서 제시된 피동문 예문들을 근거로 한 定性分析을 통해, 피동 유형들을 시기별・형식별로 整理・記述하였다. 또한 定量分析을 통해 얻어낸『景德傳燈錄』의 피동문 예문들의 구성요소를 나누어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本稿의 記述方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국어 피동문과 피동표지의 성격을 검토한 후, 각각의 피동식의 변천과정에 대한

5) 沈錫倫, 「晩唐宋元被字句考察」, 『語言文字學』, 1988, p.53.
6) 刁晏斌, 「試論近代漢語語法的特點」, 『遼寧師範大學學報』1991年 第1期, p.270.

개괄과 예문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피동문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景德傳燈錄』 피동문에 쓰인 피동표지가 피동표지이외에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대표적인 피동표지인 '被', '爲…所…'외에도 기타 피동표지들이 어떻게 피동표지로 虛化하게 되었는지의 변천상황과 『景德傳燈錄』이라는 禪宗 語錄에 쓰인 다양한 피동문 유형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景德傳燈錄』에 쓰인 여러 가지 피동문에서 각각의 형식을 분석하고, 각각의 피동식의 構造를 행위자, 피동자, 동사, 부대성분, 기타 구조적 특징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分析・記述하였다. 다만, 제2장에서는 『景德傳燈錄』에 나타나고 있는 피동문의 유형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피동문의 수량에 관계없이 각각 독립시켜 한 단락씩 구분하여 설명했으나, 제3장에서는 각각의 피동문의 예문을 제시하고 그 예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피동문에 비해 그 사용횟수가 많은 被피동식과 그 나머지 피동식으로 양분하여 기술하였다.

1.3 『景德傳燈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景德은 宋初 眞宗 황제의 연호로, 編者로 알려진 禪僧 道原이 景德 元年에 眞宗 황제에게 바쳤기 때문에 "景德傳燈錄"이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景德傳燈錄』이 발간된 연도를 宋 眞宗 景德 元年인 1004년으로 잡고 있다. 그 뒤에도 元 仁宗 延祐 3년인 1316년에 다시 발간했다. 『景德傳燈錄』은 과거 비바시불(毘婆尸佛)로부터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에 이르는 七佛로부터 시작해서 一祖 마하가섭(摩訶迦葉) 이후 선종의 初祖로 일컬어지는 28조 보리달마(菩提達磨)를 거쳐 후대 52조에 이르는 諸佛諸祖, 그리고 應化한 여러 성인들의 깨달음의 機緣과 교화의 발자취를 전기형식으로 엮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대표적인 讚, 頌, 偈, 詩, 銘, 歌 등을 채록한 禪門의 귀중한 책이다. 총 30卷으로, 모두 52世, 1701名을 기록하고 있다.

盧烈紅에 의하면,『景德傳燈錄』이 『寶林傳』, 『祖堂集』에서 자료를 취하였고, 거기에다 宋代 禪僧의 자료를 더해 수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책의 자료는 대부분 前代에서 취해진 것이나, 編者 道原의 가공 통

일 작업을 거쳐, 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眞宗에게 헌상되고, 眞宗의 명으로 翰林學士 楊億, 兵部員外郎 李維, 太常丞 王曙이 윤색이 이루어지면서, 이 책의 언어 면모가 『祖堂集』과 비교해보면, 결코 과도한 삭제나 수정은 가하지 않고 있으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7] 이는 『景德傳燈錄』이 宋代 언어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唐・五代에서 宋初에 이르기까지의 近代 중국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믿을만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近代 중국어의 역사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달라, 정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袁賓은 王力, 潘允中, 呂叔湘, 胡明揚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近代 중국어 시기 구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南宋 후반기부터 淸代 초기까지를 近代 중국어의 주된 시기라고 보고있고, 위로 몇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濁聲母 淸化, 閉口韻 소실, 入聲 소실의 조기 흔적 등 近代 중국어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晩唐五代에 쓰여진 敦煌變文, 晩唐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쓰여진 王梵志詩, 五代 시기에 완성된 『祖堂集』, 北宋의 二程語錄 등의 문헌들 또한 近代 중국어의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되며, 近代 중국어의 하한선 또한 아래로 몇 세기를 내려가서, 조사 "將"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 近代 중국어의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 淸代 中葉의 『紅樓夢』, 중엽 이후의 『兒女英雄傳』등의 작품도 근대 한어의 연구 대상으로 보아야만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8] 本稿에서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唐代부터 淸代까지를 近代 중국어의 역사 범위로 잡고 있으며, 이를 따른다면 『景德傳燈錄』이 간행된 北宋代는 近代 중국어의 전반기로 잡을 수 있겠다.

近代 중국어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禪宗 語錄은 당시 다른 문헌들에 비해 그 시기 文言과 口語을 매우 잘 보존하고 있다. 宋寅聖은 南宋시기 雲門宗의 僧 正受(1146~1208)가 편찬한 『嘉泰普燈錄』(1202년 편찬)卷25에 수록된 本覺法眞一禪師의 말[9]을 인용하여 禪宗 語錄의 언어의 순박하고

---

7) 盧烈紅,『《古尊宿語要》代詞助詞硏究』, 武漢大學出版社, 武漢, 1998, p.4.

8) 袁賓, 「論近代漢語」, 『語言文字學』, 1987, pp.22~26.

9) 又曰 "禪家語言不尙浮華, 唯要朴實, 直須似三家村裏納稅漢及嬰兒相似, 始得相應. 他又豈有許多般來? 此道正要還淳朴, 不用聰明, 不拘文字. 今時人往往嗤笑禪家語言鄙野, 所謂不笑不足以爲道."(『嘉泰普燈錄』 卷25)
(또 말했다. "禪家의 언어는 겉만 화려한 것은 숭상하지 않는다. 오직 순박하고 진실되어야 할 것이니, 모름지기 시골구석의 백성이나 아이들의 말과 비슷해야만 비로소 알맞을 것이다. 그것(禪家의 언어)이 또한 어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가? 이 道

비속화된 특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언어의 특색 때문에 禪宗文獻, 그 중에서도 禪宗 語錄이 중국어 語法연구의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高名凱가 1948년에 발표한 논문 「唐代禪宗語錄所見的語法成分」에서 백화문의 원류에 대한 의견[10]을 제시하면서, 近代 중국어 연구에 있어서 禪宗 語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11] 禪宗 語錄은 唐代와 北宋 때 가장 성행하였고, 오늘날 보고있는 이 시기의 語錄은 모두 口語에 상당히 가깝다. 이 이후의 語錄은 대부분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앞 시대 사람들의 상투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실제 언어와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近代 중국어를 연구하려면, 唐・宋 시기 禪宗 語錄을 그 자료로 삼는 것이 적당하다. 현존하는 禪宗 史料 총집으로 역사적 시기나 그 정확도를 인정받는 禪宗 語錄은 『祖堂集』과 『景德傳燈錄』이다. 《祖堂集》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禪宗 史料 總集으로, 20卷이며, 남당 泉州 招慶寺 靜, 筠 두 선사가 편집하였고, 책으로 완성된 시기는 남당 保大 十年(952)이다. 이 語錄에서는 雪峰 義存 一系 선사의 語錄이 매우 많고, 禪宗 南宗의 역사를 볼 수 있다.『祖堂集』에 대한 연구는 中國, 韓國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그에 비해 『景德傳燈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12] 시기적으로 『景德傳燈錄』은 『祖堂集』의 간행 연도에서 반세기 정도 밖에 차이가

는 바로 순박함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지, 聰明함을 쓰지 않으며, 文字의 구속도 받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은 禪家의 언어가 비속하다고 자주 비웃는데, (그것을 보아도) 웃지 않는 까닭은 굳이 말할 거리가 못되기 때문이다.")

10) 現代的白話文其實是唐宋時代的'普通話'所發展出來的口語. 要追究白話的歷史就應當研究最早的唐宋白話文……最早的白話文並不是傳世的通俗文, 而是禪家的語錄……很早的時候, 禪門弟子就養成了記錄老師的說法的習慣, 這些記錄多半是用白話文寫成的, 也是大家所稱的'語錄'. (高名凱, 「唐代禪宗語錄所見的語法成分」,『燕京學報』, 1948.)
(현대의 백화문은 실제로는 唐・宋 시대의 '普通話'에서 발전되어 나온 입말이다. 백화의 역사를 연구하려면 가장 오래된 唐・宋 백화문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가장 오래된 백화문은 후세에 전해져 내려온 통속문이 아니라, 禪家의 어록이다……아주 오래 전에 선승들은 스승의 설법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대부분이 백화문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어록'이라 일컫는 것이다.)

11) 宋寅聖, 「唐宋 禪宗 文獻에 나타난 몇 가지 입말(口語)」, 『中語中文學』, 第23輯, pp.51~53.

12) 袁賓, 「《祖堂集》被字句研究」, 『中國語文』1989年 第1期.
朴英綠, 「《祖堂集》意味虛化動詞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李崇興, 「《祖堂集》中的助詞"去"」, 『中國語文』1990年 第1期.
宋寅聖, 「《祖堂集》所見唐五代新興處所方向介詞探究」, 『中語中文學』, 第22輯.

나지는 않지만, 『祖堂集』에 비해 그 양이 방대하고 내용 또한 풍부하며, 편찬자에 있어서도 禪師들에 의해 완성된 『祖堂集』에 비해, 『景德傳燈錄』은 禪師 道原이 편찬하여 황제에게 헌상한 뒤 다시 문인들에 의해 편집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口語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더욱 정제되고 세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本稿에서는『景德傳燈錄』을 연구 자료로 선택하게 되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Ⅱ. 被動文의 定義와 類型

2.1 被動文의 定義

중국어 피동문의 정의와 이와 관련된 기존 설명들을 살펴보고 그 定義를 이해하고자 한다.

피동에 대한 개념은 馬建忠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고, 그 후 王力, 高名凱, 黎錦熙, 湯廷池, 馬眞, 洪成玉 등이 중국어 피동문의 개념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 타동사의 행위에는 행위자와 피동자가 있다. 피동자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피동자가 주어 자리에 오면, (동사가) 피동동사가 되어, 그것이 피동자가 주어가 되고 있음을 밝혀준다.
> 外動字之行, 有施有受. 受者居賓次, 常也. 如受者居主次, 則爲受動字, 明其以受字爲主也. (馬建忠, 『馬氏文通』, p.27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주어가 술어로 표시되는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식이라고 한다.
> 凡敍述詞所表示的行爲爲主位所遭受者, 叫做被動式. (王力, 『中國現代語法』, p.137.)

> 구조상의 범주로 논한다면, 중국어에서는 <주어+조동사+행위자+술어>만이 진정한 피동식인 셈이다.
> 就結構上的範疇而論, 中國語只有"主語加助動詞加關係語加敍述詞"才算是眞正的被動式. (王力, 『中國語法理論』, p.131.)

> 피동이라 함은, 주체가 다른 물체의 동작이나 지나온 경로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 所謂受動, 就是表示主體受了其他物體的動作或歷程的影響. (高名凱, 『漢語語法論』, p.200.)

> 이처럼 문두로 끌어낸 목적어는, 종종 본래 그것을 주어로 삼는다; 문장 속의 동사 또한 그것을 '피동식'으로 바꿔 주어를 설명하는데 사용한다.
> 像這樣提到句首的賓語, 往往本來是把牠作'主語';而句中的動詞, 也就是把牠變爲'被動式', 以爲說明主語之用的.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p.41.)

중국어 주동식의 기본 어순은 <주어(행위자)+동사+목적어(피동자)>이나, 피동식의 어순은 <주어(피동자)+"被"+목적어(행위자)+동사>이다.

國語主動式的基本詞序是「主語(主事者(agent)+動詞+賓語(受事者(recipient)」, 而被動式的詞序是「主語(受事者)+"被"+賓語(主事者)+動詞」.(湯廷池, 『國語變形語法研究 第一集 移位變形』, p.176.)

술어가 동사성 성분일 때, 주어가 되는 성분은, 의미상으로 말하면, 동작 행위의 발생자, 즉 행위자일 수도 있고, 동작 행위의 접수자, 즉 피동자일 수도 있다.……, 피동자가 주어가 되는 문장이 바로 피동문이다.

當謂語爲動詞性成分時, 作主語的成分, 從意念上說, 可以是動作行爲的發出者, 卽施事; 也可以是動作行爲的接受者, 卽受事.……, 受事作主語的句子就是被動句.(馬眞, 『簡明實用漢語語法』, p.51.)

서술문은 주어와 술어 동사의 관계에 따라 주동식과 피동식으로 나뉜다. 피동식은 주어가 술어동사로 나타나는 행위의 피동자임을 가리킨다.

敍述句可從主語和謂語動詞的關係分爲主動式和被動式. 被動式是指主語是謂語動詞所表示的行爲的受事者.(洪成玉, 『古代漢語教程』, p.48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피동자가 주어인, 행위적 사태를 표시하는 중국어의 문장을 모두 중국어 피동문이라고 본다.(任炳權, 「古代 中國語의 被動文 硏究」, p.18.)

이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그들은 피동문을 주어와 술어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어가 동사술어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아닌 동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경우를 피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어 피동문은 다시 형식표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두 종류로 나뉜다. 형식 표지가 없는 것을 일컬어,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하거나, 의미상의 피동이라고 한다. 중국어에는 의미상의 피동문이 특히 많다. 형식에 있어서, 이는 주동문과 아무런 구별이 없으며 단지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어 동작의 영향을 받는 경우로, 의미상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기까지 의미상의 피동문은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으나, 형식에 있어서 주동문과의 구별이 어렵고 이는 주어가 동작의 주체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일 주어가 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왔을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여 의미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위에서 記述했듯이, 王力는 Jesperson. O의 『語法哲學(The Philosophy of Grammar)』에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동문을 구조상의 범주(syntactic categories)와 관념상의 범주(notional categories)로 구분해야 하며, 의미상의 피동문은 관념상의 범주에서는 피동문에 속하나, 구조상의 범주로 볼 때에는 주동문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구조상의 범주로 논한다면, 중국어에는 단지 <주어+조동사+關係語+술어>만이 진정한 피동문이며, 의미상의 피동문은 피동의 의미가 있을 뿐, 주동식을 빌려 피동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13] 趙元任 또한 被 등의 명시적 표기가 있는 경우에만 피동태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주어가 동사술어의 행위・동작을 받는 피동자인 경우를 피동문으로 간주한다.

2.2 被動標識의 性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국어에서 피동문은 오래된 문형 중 하나로, 이미 西周 金文에 피동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어법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14] 先秦 시대를 거쳐 漢代 이후, 피동문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그 수 또한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唐・宋이후에는 그 형식이 정교해지면서 現代 중국어에 가까운 발전된 형식을 낳고 있다.

피동문임을 알 수 있는 특징으로는 피동 표지가 있는데, 王力, 周法高, 何樂士, 楊伯峻, 唐玉明, 蔣紹愚, 馮春田 등 여러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피동 표지로는 '於(于, 焉, 乎)', '見', '爲', '被', '與', '敎', '著', '喫',

---

13) 王力, 『王力文集』第1卷『中國語法理論』,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84, p.131.

14)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669.

예: 佳公大史**見**服**于**宗周年, 才二月旣望乙亥, 公大史咸**見**服**于**闢王, 辨于多正. (乍冊䰧卣)

(公大史가 宗周의 그 해에 임용되어, 2월 月望后 已亥日에, 公大史은 군왕에게 쓰여, 모든 장관의 품평을 받았다.)

唐鈺明, 周錫復은 「論先秦漢語被動式的發展」에서 1980년 楊五銘은 郭沫若 등 선배들의 소량의 논술 기초 위에서, 정식으로 西周 金文에 이미 피동식이 있었다는 논점을 제기하였고, 管燮初、李瑾등도 같은 견해를 견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결론이 대체적으로 믿을 만 하다고 여기고 있다.

‘給’, ‘讓’, ‘叫’ 등이 있다.[15]

2.2.1 於피동식

於피동식은 西周 金文에서 발견된 오래된 피동 형식이다.[16] ‘於’가 동작 행위자를 이끌어 서술어 뒤에 위치하는 이 형식은 先秦의 고문헌들의 각종 피동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御人以口給, 屢憎**於**人. (『論語・公冶長』)
(말재주로 남의 말을 막아서, 자주 남에게 미움만 받는다.)

漢代에 이르면, 이 형식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爲피동식이나 被피동식에 비해 그 쓰임이 적다.[17]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懷王以不知忠臣之分, 故內惑**於**鄭袖, 外欺**於**張儀. (『史記・屈原賈生列傳』)
(懷王은 충신의 직분을 알지 못하여, 그로 인해 안으로는 鄭袖에게 미혹 당하고, 밖으로는 張儀에게 속임 당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魏晋 시기 저작에서는, 漢代에 이어 爲피동식, 被피동식이 대부분이며, 於피동식은 소수에 불과하다. 張洪超는 張新武의『敦煌變文中的被動句式』에서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於피동식은 唐代에 이르면 口語에서는 그 자취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서면어에서도 文言의 영향으로 인해, 간혹

---

15) 王力, 『王力文集』第11卷『漢語語法史』,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84.
周法高, 『中國古代語法』造句編(上), 台聯國風出版社, 臺北, 1972.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唐鈺明, 周錫韓, 「論先秦漢語被動式的發展」, 『中國語文』1985年 第4期.
唐鈺明, 「漢魏六朝被動式略論」, 『中國語文』1987年 第3期.
唐鈺明, 「唐至淸的“被”字句」, 『中國語文』1988年 第6期.
蔣紹愚,『近代漢語硏究槪況』,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94.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2000.
李申 編, 『近代漢語文獻整理與硏究』, 張洪超 「《二拍》被動句硏究」, 河北敎育出版社, 石家莊, 2002.
16)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671.
唐鈺明, 周錫韓, 「論先秦漢語被動式的發展」, 『中國語文』1985年 第4期, p.281.
17) 唐鈺明, 「漢魏六朝被動式略論」, 『中國語文』1987年 第3期, p.216.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p.674~676.

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18]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然君文未重**於**世. (『世說新語・文學』)
(그러나 그대의 문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 이후 시기 저작인 『景德傳燈錄』에서 於피동식의 쓰임은 그 시기 다른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극히 적다.

王力은 於피동식에서 '於'자는 결코 그 자체가 피동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며, 피동을 표시하는 것은 동사라고 여기고 있다.[19] 반면, 橋本萬太郎은 『孟子』에서의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마음으로 힘쓰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으로 힘쓰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당한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면서 古代 중국어에서, 주동과 피동의 차이는 동사 자체의 표지가 아니라, 그 동사로 연결되어지는 전치사구가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20] 이밖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치사 '於'가 행위자를 이끌 경우, 그 문장의 피동 의미가 명확해지며, '於'의 출현이 능동과 피동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표지라고 인정하면서, 전형적인 중국어 피동문 형식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筆者는 전치사 '於'가 이끄는 목적어가 그 문장의 서술어의 동작 주체이며, '於'뒤의 목적어와 그 문장의 주어 사이에 施受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를 於피동식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조사하였다.

2.2.2 見피동식

見피동식은 先秦에 나타난 주요 피동문 중 하나이다. 楊伯峻, 何樂士는 <見+동사>형식의 見피동식이 甲骨文에 나타나는 예문을 들며, 가장 오래된 피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1]

(4) 今日王其步, **見**雨, 亡灾. (續六・一○・四)

---

18) 李申 編, 『近代漢語文獻整理與研究』, 張洪超 「《二拍》被動句研究」, 河北敎育出版社, 石家莊, 2002, p.158.
19) 王力, 『王力文集』第11卷『漢語語法史』,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84, pp.382~383.
20) 橋本萬太郎, 「漢語被動式的歷史・區域發展」, 『中國語文』1987年 第1期, p.36.
21)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667.

(오늘 商王이 출행하시면, 비에 젖을텐데, 재난이 없겠습니까?)

見피동식은 春秋戰國 시기 및 그 이후 상당히 오랜 시기동안 여러 문헌에서 적지 않게 쓰이면서, 於피동식, 爲피동식과 더불어 先秦 시기 대표적인 피동문이 되었다.

(5) 年四十而**見**惡焉, 其終也已. (『論語・陽貨』)
(나이 사십에도 미움 받는다면, 그는 끝난 것이다.)
(6) 百姓之不**見**保, 爲不用恩焉. (『孟子・梁惠王上』)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 愛人者必**見**愛也, 而惡人者必**見**惡也. (『墨子・兼愛下』)
(남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 받을 것이나, 남을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미움 받을 것이다.)

唐鈺明, 周錫韓은 先秦시기 見피동식은 爲피동식과 더불어 於피동식과 서로 보완하면서 완성되어, 先秦 피동 표시법에 더욱 풍부한 표현력을 갖게 하였으며, 그들의 탄생은 先秦 피동식이 이미 형식 단일의 국면을 돌파하여, 풍부하고 다채로운 표현 형식을 가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22] 이는 <爲+동사+於+행위자>, <見+동사+於+행위자>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見'자는 직접 행위자를 이끌 수 없었기 때문에 '於'자와 결합한 爲피동식보다는 <見+동사+於+행위자>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 형식의 출현시기에 대해서 楊伯峻, 何樂士는 다음의 예를 들면서 西周 金文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3]

(8) 隹公大史**見**服**于**宗周年, 才二月旣望乙亥, 公大史咸**見**服**于**闢王, 辨于多正. (乍冊䰧卣)
(公大史가 宗周의 그 해에 임용되어, 2월 月望后 已亥日에, 公大史은 군왕에게 쓰여, 모든 장관에게 품평 받았다.)

그러나, 唐鈺明, 周錫韓은 <見+동사+于+행위자>식은 於(于)피동식과 見피동식이 결합한 비교적 완전한 종합형 피동식으로, 이러한 형식은 於피동식 및 見피동식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후, 즉 戰國시대 후기에서야 출현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4]

---

22) 唐鈺明, 周錫韓, 「論先秦漢語被動式的發展」, 『中國語文』1985年 第4期, p.283.
23)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669.
24) 唐鈺明, 周錫韓, 「論先秦漢語被動式的發展」, 『中國語文』1985年 第4期, p.282.

見피동식에는 '於'와 결합한 형식 이외에도, '爲'와 결합하여 <爲+행위자+見+동사>형식도 나타나고 있으며, 董志翹에 따르면 이 형식은 兩漢 시기에 처음 출현하여,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매우 적게 나타나다가, 唐・宋 시기에 이르면 도리어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면서,《太平廣記》에서는 <爲+행위자+所+동사>식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또한 《太平廣記》에는 見피동식이 '被'와 결합한 형식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5] 각각의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9) 烈士**爲**天下**見**善矣, 未足以活身. (『莊子・至樂』)
(열사는 천하에 의해 칭찬 받겠지만, 몸을 살릴 수는 없다.)

(10) 邕南之所爲, 多如此類, **爲**德義者**見**鄙. (『太平廣記』卷273『雲溪友議』"蔡京"條)
(옹남이 하는 바는, 대부분 이 부류와 같아서, 도덕적이고 의로운 자들에게 업신여김 당합니다.)

(11) 問"汝何故來?" 答曰"**被**人**見**訟." (『太平廣記』卷380 『廣異記』"韋延之"條)
(묻기를 "너는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대답하기를 "남에게 고소 당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렇듯 見피동식은 先秦시기 이후 꾸준히 사용되어 兩漢시기에는 爲피동식과 더불어 보편적으로 쓰이는 피동문이 되었고,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쓰였으나, 魏晋南北朝 시기에 이르면 사용빈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唐・宋시기에 이르면 매우 드물게 쓰이게 되었다.

『景德傳燈錄』에서는 見피동식이 한 예도 출현하지 않으며, 이는 당시 추세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景德傳燈錄』에서 '見'은 불교용어인 '見性'이나 '보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26]

2.2.3 爲피동식

---

25) 董志翹, 「中世漢語中的三類特殊句式」, 『中國語文』1986年 第6期, p.456.

26) 예: 此是妙音如來見性淸淨之句, 汝宜傳布後學. (卷2)
(이는 묘음여래께서 견성하신 청정한 구절이니, 그대는 후학에게 잘 베풀어 전하여라.)
師云, 晝見日夜見星. (卷10)
(선사가 이르기를, 낮에 해를 보고 밤에 별을 본다.)

爲피동식은 先秦 시기에 나온 비교적 이른 시기의 피동문으로,[27] 見피동식과 함께 진정한 피동 형식의 시작을 의미했던 형식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楊伯峻, 何樂士는 초기 爲피동식은 '爲'자 뒤에 동사가 오는 형식이 먼저 나타났고, 이후 '於'자를 사용하여 행위자를 이끄는 <爲+동사+於+행위자>이 생겼으나, '爲'자 자체가 직접 행위자를 이끌 수 있었기 때문에, 문헌상에 그 쓰임이 보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쓰이지는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之'와 결합한 <爲+행위자+之+동사>식도 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之'의 작용은 피동문의 동사에 대한 표지 작용으로, '所'의 작용과 비슷하며, <爲+행위자+동사>식과 <爲+행위자+所+동사>식 사이의 일종의 과도기 형식으로 순식간에 <爲+행위자+所+동사>식에 대체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8] 따라서, 초기 爲피동식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爲'자 뒤에 바로 동사가 오는 <爲+동사>식, 또 하나는 '爲'자와 동사 사이에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행위자가 오는 <爲+행위자+동사>식이다. 春秋戰國 시대 爲피동식 중 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었으나, 戰國 시대 후기에 접어들면 爲피동식 중, 후자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29] 위에서 제기한 爲피동식의 각각의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2) 失禮違命, 宜其**爲**禽也. (『左傳・宣公二年』)
(예를 잃고 명을 거슬렀으니, 그가 사로잡히는 것이 마땅하다.)

(13) 道術將**爲**天下裂. (『莊子・天下』)
(도술이 장차 천하에 의해 분열되려 한다.)

(14) 使遂失其國家, 身死**爲**僇**於**天下. (『墨子・法儀』)
(사신이 마침내 그 나라를 잃고, 죽게되어 천하에 의해 모욕당했다.)

(15) 員不忍稱疾辟易, 以見王之親爲越之擒也. (『國語・吳語』)
(원은 차마 병을 칭하고 피해 있다가, 왕이 친히 월 나라에 잡히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

27) 唐鈺明, 周錫復은 「論先秦漢語被動式的發展」에서 春秋시대에 爲피동식과 見피동식이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春秋戰國 시기의 전적 『左傳』,『國語』,『論語』,『墨子』를 조사하여, 於피동식이 52예, 爲피동식이 45예, 見피동식이 8예가 나타나고 있고, 이를 통해, 그 시기에는 于피동식이 계속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爲피동식이 새로 나타났으며, 見피동식이 처음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8)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p.674~675.

29) 唐鈺明, 周錫韓, 「論先秦漢語被動式的發展」, 『中國語文』1985年 第4期, p.284.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674.

春秋戰國 시기 <爲+동사>식과 <爲+행위자+동사>식의 대량 출현은 <爲+행위자+所+동사>식의 탄생을 위한 준비 조건이었다. <爲+행위자+所+동사>식에서 '爲', '所'는 공동으로 피동문의 표지가 되는데, 이는 비교적 완전하게 발전한 피동문이라 할 수 있다.

楊伯峻, 何樂士는 <爲+행위자+所+동사>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형식은 戰國 말기부터 출현하여, 漢代에 널리 사용되어 『史記』에서는 그 사용 수량이 이미 於피동식을 넘어섰고, 漢代에서 魏晉南北朝 시기까지, 이 피동식이 각종 형식 표지가 있는 피동문 중에서도 줄곧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爲+행위자+所+동사>식은 발전 과정 중에 두 가지 변형식을 낳았는데, 하나는 생략식이며, 또 하나는 '所'와 다른 詞의 連用식으로, 생략식은 <爲+所+동사>식과 <所+동사>식이며, '所'와 다른 단어의 連用식에는 <爲+행위자+之所+동사>식, <爲+행위자+所見+동사>식, <爲+행위자+之所見+동사>식이 있다고 분석하였다.[30] 任炳權은 <爲+所+동사>식은 <爲+행위자+所+동사>식이 상당히 보편화된 단계에서 행위자를 생략하여 나타난 것으로, 이 형식의 대부분 예문들이 바로 앞에 등장하여 이미 알고 있는 행위자를 생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1] 여기에서 언급된 여러 형식의 爲피동식 예문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6) 世子申生**爲**驪姬**所**譖. (『禮記・檀弓上』)
(세자 신생은 여희에게 모함 당했다.)

(17) 高祖擊布時, **爲**流矢**所**中. (『史記・高祖本紀』)
(고조가 布를 칠 때, 날아온 화살에 맞았다.)

(18) 不者, 若屬皆且**爲所**虜. (『史記・項羽本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장차 포로가 될 것이다.)

(19) 由**所**殺蛇白帝子, 殺者赤帝子, 故上赤. (『史記・高祖本紀』)
(죽임 당한 뱀은 白帝의 아들이며, 죽인 자는 赤帝의 아들이므로, 고로 붉은 旗가 올려진 것입니다.)

(20) 有制人者, 有**爲**人**之所**制者. (『管子・樞言』)
(남을 제어하는 자가 있고, 남에게 제어 당하는 자가 있다.)

(21) 習俗旣異, 語言不通, 數**爲**小吏黠人**所見**侵奪, 窮恚無聊, 故致反叛. (班彪,『復護姜校尉疏』)
(풍속이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며, 수 차례 하급관리나 난폭한 이

30)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p.673~683.
31) 任炳權, 「古代 中國語의 被動文 硏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1992, p.66.

들에게 침탈 당하여, 궁핍하고 원망하며 기댈 데 없으니, 반란에 이르는 것입니다.)

(22) 年少, 自以本非巖穴知名之士, 恐**爲**海內人**之所見**凡愚. (『三國志・魏書・武帝紀』)
(나이가 어려, 본래 巖穴의 이름난 선비가 아니기에, 海內의 사람들에게 평범하고 어리석게 여겨질까 두려워하였다.)

<爲+행위자+之所+동사>식에 대해서, 唐鈺明, 吳金華 등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唐鈺明은 裵學海의 "之는 所와 같다"는 내용과 '之所'와 '所', '所見', '之所見'이 서로 교차하며 사용되는 예들을 근거로 하여, '之所', '所見', '之所見'이 '之', '所'와 같은 문법적 성질을 가지는 동의사의 중복에 의한 강화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2] 吳金華는 '之'가 '所'와 連用된 형식으로, '之'의 작용은 '所'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陸宗達의 "古漢語는 重點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주 同義詞를 復用했다"는 기술을 제시하며, 이러한 古漢語 虛字 復用 원칙에 따라 '所' 앞에 같은 작용을 하는 '之'가 쓰이면서, 語氣를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이 형식은 <爲+행위자+所+동사>식과 <爲+행위자+之+동사>식의 기초 위에 발전된 것으로 보며, 그것은 戰國 말기에 이미 출현했고, 兩漢 시기에도 그 용례가 있으며, 南北朝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 고정된 격식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爲+행위자+之所+동사>식과 <爲+행위자+所+동사>식의 차이에 대해, <爲+행위자+之所+동사>식은 대부분 복음절 동사와 결합하고, <爲+행위자+所+동사>식은 대부분 단음절 동사와 결합하며, 또한 전자에서는 "爲"의 행위자 대부분이 비교적 복잡한 반면, 후자에서는 "爲"의 행위자는 대부분 비교적 간단하다고 설명하고 있다.[33]

<爲+행위자+所見+동사>식에 대해서, 吳金華는 <爲+행위자+所見+동사>식의 출현은 당시 사람들이 語音의 리듬을 중시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불경의 용례를 들어 불경을 암송할 때, 보통 네 글자를 한 句로 삼으며, 문장의 뜻에 있어서 나눌 수 없는 긴 句라 하더라도, 소리내어 읊을 때는 네 글자에 한 번씩 쉰다고 했다. 따라서, 雙音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爲+행위자+所見+동사>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爲+행위자+所+동사>식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34] 이러한 견해는 <爲+행위자+

32) 唐鈺明, 「漢魏六朝被動式略論」, 『中國語文』 1987年 第3期, p.218.
33) 吳金華, 「所見=見」, 『中國語文』 1981年 第5期, p.396.
吳金華, 「試論"R爲A所見V"式」, 『中國語文』 1983年 第3期, pp.208～209.

之所+동사>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之'는 '所'와 같고, '見'도 '所'와 같은 기능으로 쓰였기 때문에, 결국 <爲+행위자+所見+동사>식과 <爲+행위자+之所+동사>식도 같은 문형이라고 볼 수 있다. 楊伯峻, 何樂士는 <爲+행위자+所見+동사>식에 대해 비교적 드문 피동문으로, 대략 東漢 초기의 문헌에 처음 쓰이기 시작하여 약 800년 동안 사용되었고, 이 형식의 출현은 <爲+행위자+之所+동사>식이 나온 이후이며, 이 형식에 쓰인 동사가 대부분 복음절 동사이며, '爲'의 목적어가 때로 복잡하고 긴 점으로 보아, <爲+행위자+之所+동사>식과 비슷한 작용을 했고, <爲+행위자+所+동사>식과 <爲+행위자+見+동사>식의 기초에서 발전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35]

그 다음으로 <爲+인+之所見+동>식을 살펴보면, 吳金華, 楊伯峻, 何樂士, 唐鈺明 등에 따르면, 이 형식은 東漢 이후에 나왔고, 魏晉六朝를 거쳐 隋·唐에 이르면서 차차 도태되어갔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모두 "之所見", "之所", "所"가 모두 피동을 표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之所見" = "之所" = "所"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爲+행위자+之所+동사>식, <爲+행위자+所見+동사>식, <爲+행위자+之所見+동사>식은 <爲+행위자+所+동사>식의 보충과 변형식으로 결국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도태되었고, <爲+행위자+所+동사>식만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王力, 楊伯峻, 何樂士 등은 <爲+행위자+所+동사>식은 戰國 말기에 형성되어, 東漢 이후에는 於피동식을 대신해 피동문에서 주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唐鈺明은『世說新語』,『洛陽伽藍記』,『顔氏家訓』,『蒐神記』,『百喩經』,『出曜經』을 분석하여, 주요 피동식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각각 '於' 0.6%, '見' 4%, '爲' 2%, '爲×所×' 65%, '被' 18%라는 통계를 얻어서, <爲+행위자+所+동사>식이 唐代에 이르러 被피동식이 피동문의 주요형식이 되기 이전까지 漢魏六朝시기 피동문의 주요형식이 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36]

2.2.4 被피동식

---

34) 吳金華,「試論"R爲A所見V"式」, 『中國語文』1983年 第3期, p.209.
35)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p.680~681.
36) 唐鈺明, 「漢魏六朝被動式略論」, 『中國語文』1987年 第3期, p.221.

‘被’는 피동을 표시하는데 가장 자주 쓰이는 글자이다. 그것은 주로 행위자를 이끌거나, 또는 직접 동사 앞에 놓여 피동을 표시한다. 이처럼 ‘被’로 행위자를 이끌거나, 또는 동사 앞에 놓여 피동을 표시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것을 被피동식이라 한다.

被피동식의 변천을 살펴보려면, 먼저 ‘被’의 의미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語彙 방면에서의 이해가 필요하겠다. 王力은 ‘被’가 『說文』에서는 “被, 寢衣也.”라 하여, ‘잠옷’이라는 의미의 명사였으나, “覆蓋(가리다. 덮다)”의 의미의 동사로 파생하여, 하나는, “施及(베풀다)”의 의미, 또 하나는 “蒙受(입다. 받다. 당하다)”, “遭受(받다.(불행 또는 손해를) 만나다. 입다. 당하다. 부닥치다)”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두 가지 의미는 모두 “覆蓋”의 의미라는 동일한 원류를 갖고 있으나, 語義 응용에 있어서, 첫 번째의 의미는 주동적으로 어떤 한 사물을 덮거나 베푸는 것인 반면, 두 번째의 의미는 피동적으로 어떤 한 사물이 당하거나 어떤 일이 닥치는 것으로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동식의 ‘被’는 첫 번째 의미에서 온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에서 온 것으로, 被피동식은 대략 戰國 말기에 싹을 틔워 漢代에 이르러서야 점차 보편적으로 쓰였으나, ‘被’의 비교적 이른 용례에서는 ‘被’와 동사 사이에 행위자를 삽입할 수 없었으며, 이는 ‘被’자의 詞義가 완전히 虛化하지 않아서 여전히 “蒙受(입다. 받다)”, “遭受(당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7] 예문은 다음과 같다.

(23) 厚者**被**戮, 薄者**見**疑. (『韓非子・說難』)
(충성을 다한 자는 살해당하고, 가벼운 자는 의심을 받는다.)
(24) 國一但**被**攻, 雖欲事秦, 不可得也. (『戰國策』)
(나라가 일단 공격을 받아 파괴되면, 秦나라를 섬기고자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25) 萬乘之國, **被**圍**於**趙. (『戰國策・齊策』)
(萬乘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趙나라 사람들에게 포위 당했다.)
(26) 子夏**被**蚩**於**先聖, 臣又荷責**於**來今. (『魏書・獻文六王列傳』)
(자하는 옛 성인에게 비웃음 당했는데, 저 또한 뒷사람에게 비판을 받겠습니다.)

예문(25), (26)에서 행위자는 見피동식의 조기 용례에서 보여지는 것처

37) 王力, 『王力文集』第11卷『漢語語法史』,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84, p.397.

럼 '於'자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은 간혹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見'이 행위자를 이끌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被'는 爲피동식에서의 '爲'와 마찬가지로 행위자를 직접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도태되었다.

漢末 이후, '被'가 행위자를 이끌 수 있게 되면서, '被' 뒤에 행위자가 나오는 <被+행위자+동사>형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형식은 피동문이 점차 성숙해간다는 표지 중 하나로, 현대 중국어 피동문의 주요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亮子**被**蘇峻害. (『世說新語・方正』)
(량자가 소준에게 살해당했다.)
(28) 臣**被**尙書召問. (『被收時表』)
(제가 상서에게 불려가 문책 당했습니다.)
(29) **被**火焚燒. (『晉・竺法護譯: 生經』)
(불에 태워졌다.)

위 예문들에서 '被'는 전치사로, 그것이 이끄는 목적어는 동작의 행위자이다. 이 피동문은 漢末에 발생해서, 唐代에 성행하였고, 唐이후에는 점차 피동문의 주요 형식이 되었다. 이는 唐鈺明이 그의 논문에서 '被'자 뒤에 동작의 행위자가 출현하는 경우를 시대별로 나누어 각각 先秦・兩漢 0%, 六朝 7%, 唐・宋 82%, 元・明・淸 83%라는 定量分析을 통해 얻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38] 袁賓 또한 『世說新語』,『百喩經』,『文選』,『敦煌變文』,『祖堂集』에 나타난 피동문 중 '被'뒤에 행위자가 출현하는 경우를 통계 내어, 각각 22%, 33%, 21%, 49%, 78%라는 수치를 얻어내고 있다.[39] 따라서, 近代 중국어 어법을 古代 중국어와 구별하는 특징 중 하나로, 被피동문에서 <被+행위자+동사>형식이 주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王力은 中古 시기에 이르러, 피동식은 또한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被피동식이 더욱 더 보편적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被피동식에서 행위자(그는 이를 "關係語"라 칭하고 있다.)를 삽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반 口語에서 점차적으로 <爲+행위자+所+동사>식을 대체하였고, 現代 중국어 피동식 중 절대 다수가 행위자를 수반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現代 중국어 피동식의 기초를 세운 것으로, '被'자 뒤

38) 唐鈺明, 「唐至淸的"被"字句」, 『中國語文』1988年 第6期, p.461.
39) 袁賓, 「《祖堂集》被字句硏究」, 『中國語文』1989年 第1期, p.196.

에 행위자가 나타나는 피동식 출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40]

<被+행위자+동사>식의 기초 위에서 南北朝 시기에 이르러 被피동식 또한 爲피동식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변형식이 나타나고 있다. 즉, <被+행위자+所+동사>, <被+행위자+之所+동사>, <被+행위자+見+동사>, <被+행위자+所見+동사>가 그것인데, 이에 대해 唐鈺明은 被피동식이 爲피동식과 형식이 비슷하다는 것은 그것이 爲피동식의 영향 아래 발전해 온 것으로, 被피동식 변천의 자연적 순서가 아닌 爲피동식 類化의 산물이라고 언급하였다.[41] 그러나 이러한 변형식은 <被+행위자+동사>식에 비해 널리 사용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楊伯峻, 何樂士 등은 <爲+행위자+所+동사>식에서는 '爲'의 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歧義를 피하려면 피동을 표시할 때 '所'로 배합하여 호응시켜야 했던 반면 '被'가 피동을 표시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歧義도 있을 수 없으므로 다른 표지가 필요치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42]

따라서 被피동식의 주요 형식은 <被+동사>식, <被+행위자+동사>식이며, 그 중 <被+행위자+동사>식이 被피동식의 주도적 위치를 점하며 現代 중국어 피동문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2.2.5 與피동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與피동식은 春秋戰國 시기에 출현하여, 唐代에 비교적 많이 보이며, 줄곧 明・淸 시기까지도 여전히 그 용례가 있다.

(30) 吳王夫差棲越於會稽, 勝齊於艾陵, 遂**與**勾踐禽, 死於干隧. (『戰國策 ・秦策』)
(오왕 부차는 월왕을 會稽에 유폐했고, 艾陵에서 제나라를 싸워 이겼으나, 마침내 월왕 구천에게 사로잡혀, 干隧에서 죽었다.)

(31) 世間一等人, 誠堪**與**人笑. (寒山子詩)
(세간에 제일가는 사람이라도, 진실로 남에게 비웃음 당하는구나.)

(32) 天子愚暗痴呆, **與**人穿着鼻, 成個甚麼朝廷? (『新編五代史平話・唐史』)
(천자는 우매하고 어리석어, 남에게 코가 꿰었으니, 무슨 조정을 이루겠는가?)

(33) 憑着咱膽氣, 料得沒**與**他拿去, 只他官兵來奈何? (『型世言』17回)

---

40) 王力, 『王力文集』第11卷『漢語語法史』,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84, pp.393～394.
41) 唐鈺明, 「唐至淸的"被"字句」, 『中國語文』1988年 第6期, pp.459～460.
42)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696.

(자기 담력만 믿고, 그에게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 여겼는데, 그의 관병이 왔으니 어찌할 것인가?)

任炳權은 與피동식이 春秋戰國시기 문헌인 『戰國策』에서 처음 발견되며, 王引之의 『經傳釋詞』의 설명을 인용하여, '與'자는 '爲'자의 平聲과 去聲 용법 모두에 통용되는 것으로, '與'자의 피동표지 용법은 '爲'자와의 통가관계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43] 그러나 劉堅, 江藍生, 白維國, 曹廣順의 共著인 『近代漢語虛詞硏究』에서는 '與'자가 수여동사에서 피동표지로 쓰이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44] 이 의견에 대해 馮春田은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즉 <與+행위자+동사>식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행위자 스스로 한 동작 행위일 경우, '與'는 이러한 語義 조합 관계의 제약을 받아서 "給與"의 의미에서 "致使(…하여 …되다.(주로 부정적 결과에 도달함을 나타냄))"의 의미로 轉化되고, 또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의미상으로 관련된 사람에게 피동이거나 불리한 것일 경우, '與'는 또한 사역의 의미에서 피동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하였다.[45] 橋本萬太郎 또한 "給與"의 의미가 피동을 나타내는 과정에 대해서, "給與"라는 의미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게 할 기회를 준다(給對方讓有機會做甚麼)"라는 의미로 쉽게 파생된다고 언급하면서, "給與"에서 피동의 語義를 나타내는 중간단계로 사역 의미로의 轉化를 들고 있다.[46] 따라서 與피동식은 수여동사 '與'가 쓰인 문장이 사동문으로 轉化되고, 다시 피동문으로 쓰이게 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2.6 教피동식

教피동식이 쓰이기 시작한 시대는 唐代로,[47]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43) 任炳權, 「古代 中國語의 被動文 硏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1992, p.216.

44) 劉堅 外, 『近代漢語虛詞硏究』,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p.220~221.

45)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硏究』, 山東教育出版社, 濟南, 2000, p.608.

46) 橋本萬太郎, 「漢語被動式的歷史・區域發展」, 『中國語文』1987年 第1期.

47) 沈錫倫은 「晩唐宋元被字句考察」이라는 논문(『語言文字學』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1988.11 pp.47~53)에서 '教'자가 피동으로 쓰인 가장 이른 예는 元代 朝鮮 사람들이 漢語를 배우는 회화책이었던 『老乞大』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馮春田의 의견에 비한다면, 教피동식의 발생 시기를 너무 늦게 잡은 것으로, 馮春田의 의견을 且置하더라도, 비록 한 차례 밖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宋代 초기 문헌인『景德傳燈錄』에서의 教피동식 용례만 보면, 教피동식은 늦어도 宋初에는 발

(34) 見說上林無此樹, 只**教**桃李占芳年. (白居易詩)
(상림에는 이러한 나무가 없고, 단지 복숭아, 버드나무에 의해서만 해마다 향기가 풍겨진다 들었네.)
(35) 莫**教**人笑汝. (寒山子詩)
(남에게 너를 비웃음 당하게 하지 말게나.)

馮春田에 따르면 教피동식은 이후 宋代에도 계속 사용되어 '教'가 '交'로도 쓰였으며, 明末淸初부터는 '叫'로도 쓰였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각각 '教', '交', '叫'로 쓰인 이유에 대해 讀音이 같거나 비슷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역동사로 쓰일 때의 語義가 같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教', '交', '叫'는 원래 사동문에 쓰이는 사역동사로, 만일 그것이 사동의 어법 의미, 즉 '주어가 어떤 이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教'뒤에 쓰인 행위자가 하는 동작 행위가 그에 관련된 사람이나 사물에게 있어 피동이나 불리한 동작 행위일 경우, 이 사동문은 피동을 표시할 수 있도록 轉化된다고 여기고 있다.[48] '教'가 본래 사역 동사로, 피동을 표시할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해서, 太田辰夫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使役 또한 피동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는 의미에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래 使役과 被動의 구분은 객관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 판단을 기초로 한다. '被他打'는 '使他打'한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만일 이렇다면, 당연히 그것을 '使他打'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使役也用于被動, 是因爲有意義上難以區分的場合. 原來使役和被動的區分不在于客觀事物本身, 而是基于主觀判斷. 或許所爲'被他打'就是做了'使他打'那樣的事情. 如果是這樣的話, 當然也能把它說成'使他打'.

그는 반드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아니나, 겸어동사의 목적어가 의지가 있는 물건이 아닌 경우,[49] 모종의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느낌을 표현

생했다고 볼 수 있다.
48)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2000, pp.611~612.
49) 예: 剛**被**太陽收拾去, 却**教**明月送將來. (宋・蘇武詩・千家詩所收)
(방금 해 거두어 갔는데, 도리어 밝은 달 보내오네.)
叫雪滑倒了. (紅8)
(눈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할 경우,[50] 금지사와 서로 배합되는 경우,[51] 주로 이 세 가지 상황 하에서 '教'가 피동을 나타낸다고 여겼다.[52]

蔣紹愚는 '教'자 앞에 명사가 나오지 않거나, 무엇이 동작을 일으키게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경우와 '教'자 뒤에 동사나 동사구가 타동사이며 아울러 어떤 상황이 이미 실현되었을 경우에 '教'의 어법의미가 '被'와 같아진다고 여겼다. 거기에다가, 太田辰夫가 제기한 '教'의 목적어가 의지가 없는 물건이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太田辰夫 자신 또한 '教'의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의 예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록 사동과 피동의 두 경우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桌子叫人搬走了(탁자가 어떤 이에게 운반되어졌다.)"라는 예문을 제시하며 반드시 '教'의 목적어가 의지가 없는 물건이어야 사역동사에서 피동으로 轉化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53] 따라서, 教(叫)피동식은 사동문에서 그 의미가 피동으로 轉化되면서 생성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2.2.7 喫피동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喫피동식은 宋代에 나타난 피동 형식으로, 王力, 楊伯峻, 何樂士는 喫피동식은 近代 白話文에서 종종 쓰이며, 그 작용은 被피동식과 비슷하여, '吃(喫)'이 '被'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54] 劉堅, 江藍生, 白維國, 曹廣順은 '喫'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피동문에서의 '喫'자의 쓰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吃'은 '喫'의 俗字로, 唐・宋代에는 모두 '喫'으로 쓰였고, 元・明代에 와서 '吃','乞'로 쓰였다. 北宋 시기

---

50) 예: 春思翻教阿母疑. (和凝詞)
(봄 생각에 뒤척이니 어머니 의심케하네.)
教那西門慶聽了, 趕着孫寡嘴只管打. (金15)
(그 서문경에게 들리자, 서둘러 손과부는 입을 주저없이 나불거렸다.)

51) 예: 第一莫教漁父見. (李遠詩)
(첫째 어부에게 보여지지 말라.)
別叫鳳丫頭混了我們去. (紅47)
(봉계집에게 우리랑 뒤섞여 가게 하지 말라.)

52) 太田辰夫 著, 蔣紹愚, 徐昌華 譯, 『中國語歷史文法』,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87.

53)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況』,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94, pp.230~232.

54) 王力, 『王力文集』第11卷『漢語語法史』, 山東教育出版社, 濟南, 1984, pp.393~394.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688.

에 白話가 들어간 자료 중에서 피동을 표시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喫피동식이 출현하고 있는데, 喫피동식의 출현 시기는 北宋 시기를 넘어서지 않으며, 南宋 朱熹의 어록에서 '喫'자가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고, 宋元 話本, 元明 장편 백화소설, 明代 擬話本에서는 대단히 빈번하게 사용되어, 거의 被피동식과 그 용례 수가 같아지고 있지만, 『紅樓夢』, 『儒林外史』같은 淸代의 백화 소설에서는, 피동 표지로 쓰이는 '喫'이 돌연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喫피동식이 사용된 지역에 대해서는 『朱子語類』,『水滸傳』,『西遊記』,『淸平山堂話本』,『永樂大典戲文三種』,『新刊全相平話』, "三言" 등 남방계 백화 자료에서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元曲,『老乞大』,『朴通事』등의 북방계 백화 자료에서도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주로 山東, 江蘇, 浙江 등지에서 통용되었으며, 이 지역들에서의 口語에서, '喫'자는 '被'자와 같이 사용되었지만, 끝까지 被피동식의 주도적 지위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여러 문헌에서 출현하고 있는 喫(吃, 乞)피동식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36) 蔡卞只是扶他以證其邪說, 故**喫**人議論.(『朱子語類』卷87)
(채변은 단지 다른 것에 기대어 그의 사변을 증명하려 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논의 당했다.)

(37) 似此往來, 通有數十遭, 後來便**吃**殺了.(『水滸傳』第46回)
(이렇듯 왕래하기를, 모두 수 십 차례 했는데, 나중에 살해당했다.)

(38) 周氏**乞**罵得沒奈何, 只得去房裏取了麻索, 遞與大娘.(『淸平山堂話本』)
(주씨는 어쩔 수 없다고 욕을 먹고서, 그저 방으로 가서 삼베를 찾아 아서는, 큰어머니에게 건네줄 뿐이었다.)

(39) 我家怎地**吃**官私封了門?(『永樂大典戲文三種』)
(내 집이 어째서 관가에 의해 마음대로 폐쇄된단 말인가?)

(40) 一張紙又要一個錢買, 則**喫**你破壞我家私.(元曲, 忍字記一折)
(한 장의 종이 또한 엽전 한 푼으로 사려한다면, 너에 의해 내 집 재산이 파산 나겠구나.)

(41) 若無免貼, 定然**喫**打三下.(『老乞大』)
(만일 면제 첩이 없다면, 틀림없이 세 차례 맞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喫'이 피동표지로 虛化하는 과정에 대해서 동사 '被'가 虛化하는 과정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며, 다른 점이 있다면 '被'의 "遭受(당하다)"의 의미는 그것의 本義에서 자연적으로 파생되어 온 것인데 반해, '喫'의 "遭受(당하다)"의 의미는 "喫杖", "喫棒"같은 比喩義에서 나왔다고 설명

하고 있다. “喫茶”,“喫飯”에서처럼 원래 “喫”은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喫杖”, “喫棒”에서의 ‘杖’이나 ‘棒’은 먹을 수 없는 사물로써, 여기에서 ‘喫’은 신체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받는다는 의미로, “承受(받다)”, “遭受(당하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단어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방망이로 구타당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修辭 상 형상적이고, 유머러스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55]

江藍生은 ‘吃’의 유래에 대해, 동사 ‘喫’의 本義는 “食(먹다)”이며, 唐・五代 때 “蒙受(받다)”, “遭受(당하다)”의 의미로 파생되었으며, ‘吃’이 동사 앞에 쓰이면서, “遭受(당하다)”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졌고, 다시 虛化되면서 피동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56] 이밖에, 蔣紹愚, 張洪超, 橋本萬太郎 등도 “喫”피동식에 대해 그들 나름의 연구를 통해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張洪超, 橋本萬太郎가 ‘喫’피동식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한데 비해, 蔣紹愚는 그 외에도 江藍生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喫’, ‘吃’, ‘乞’이 “給與”의 의미에서가 아닌, “遭受”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왔다는 의견을 더하고 있다.[57]

따라서, 피동 표지로 쓰인 ‘吃’의 유래를 개괄해보면, 피동 관계사 ‘吃’의 本字는 ‘喫’이며, ‘喫’의 本義는 “食(먹다)”이고, 唐代부터 “遭受(당하다)”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吃’의 피동 용법은 이 “遭受(당하다)”의 의미에서 왔고, 이는 ‘被’의 피동 용법이 “遭受(당하다)”의 의미에서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비록 喫피동식은 近代 漢語 중・후기에 발생하였으나, 그 시기는 被피동식이 막 성숙되어 분화를 일으키는 언어 환경의 때였기 때문에, 喫피동식은 발생하고 오래지 않아, 被피동식과 더불어 近代 중국어 중・후기 피동문의 주요 형식이 되고 있다. 다만, 被피동식과 비교해서, 吃피동식이 좀더 口語적이며, 통속적으로 쓰였을 뿐인 것이다.

2.2.8 著피동식

---

55) 劉堅, 江藍生, 白維國, 曹廣順, 『近代漢語虛詞硏究』,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p.210～224.

56) 江藍生, 1989, 〈被動關係詞“吃”的來源初探〉, 《中國語文》, 第5期.

57) 蔣紹愚,『近代漢語硏究槪況』,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94, p.229.
李申 編, 『近代漢語文獻整理與硏究』, 張洪超 〈《二拍》被動句硏究〉, 河北敎育出版社, 石家莊, 2002, pp.159～160.
橋本萬太郎, 「漢語被動式的歷史・區域發展」, 『中國語文』1987年 第1期.

馮春田, 何樂士, 吳福祥, 志村良治, 李珊 등에 따르면, 著피동식은 대략 宋代에 와서야 사용되기 시작하여, 元・明代에 소수의 용례가 있고, 淸代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다고 한다.[58]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2) 兩鬢靑靑, 盡**著**吳霜偸換. (宋袁去華『雨中花』)
(양 구레나루 푸르렀으나, 끝내 서리에 빼앗겼구나.)
(43) 我單爲你**著**那廝打了一頓. (燕靑博魚三折, 『元曲選』)
(나는 오직 그대를 위해 그 자에게 한 대 맞았다.)

'著'자가 피동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吳福祥은 西南方言에서 피동을 표시하는 전치사로 보통 '被'를 쓰지 않고, 成都에서는 "tsau(第2聲)", 昆明에서는 "tʂuo(第2聲)"로 발음하며, '着', '遭', '招'의 글자를 사용하는데, "tsau(第2聲)"와 "tʂuo(第2聲)"는 모두 '著'의 音變 형식이며, '著'자가 피동을 표시하는 전치사로 사용된 것은 '著'자의 "遭受(당하다. 받다. 입다)"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보고 있다.[59] 이 경우, '著'는 <주어+著+목적어> 형식이 되어, "遭受"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遭受" 의미의 동사가 서술어가 되고 있는 주동문과 피동문은 語義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또한, 주어에 온 어떤 대상(이하 '甲'이라 칭한다)이 목적어라는 대상(이하 '乙'이라 칭한다)을 당한다(遭受)는 것은, 甲의 입장에서는 피동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종종 甲에게 불리하거나 甲을 불행한 입장에 처하게 하며, 이러한 語義는 피동문에서 나타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58)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2000, p.609.
程湘淸 編,『宋元明漢語硏究』, 何樂士, 「元雜劇語法特點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92, p.162.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硏究』, 岳麓書社, 北京, 1996, p.189.
志村良治 著, 江藍生, 白維國 譯, 『中國中世語法史硏究』, 中華書局, 北京, 1995, p.264.
李珊, 『現代漢語被字句硏究』,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94, p.2.

59) 吳福祥은 『敦煌變文語法硏究』에서, 唐・宋代 문헌에 "著"자가 "遭受(받다)" 의미의로 쓰인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師代云: "若只禮謝則著和尙棒." (祖堂集, 3.084)
(선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만일 단지 하직 인사를 하려한다면 내 몽둥이를 받아라.")
阻風兼著雪, 費日亦忘年. (陳師道《顔市阻風》)
(바람을 막고 더불어 눈을 맞으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또한 한해 한해를 잊는다.)

는 피동 관계나 불유쾌한 語義 색채와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점이라면, 전자는 어휘 수단으로 피동과 불행을 나타내고, 후자는 어법 수단으로 피동과 불행의 語義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어+著+목적어>형식에 동사가 다시 첨가되면서, "著"가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虛化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여겼다.[60] 이와는 달리, 馮春田과 蔣紹愚는, 著피동식에서 '著'자는 '受', '挨', '遭受'라는 의미의 동사'著'가 虛化되어 피동 전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敎피동식과 마찬가지로 사동문의 轉化라 여기고 있다. 사동문의 어법 의미는 주어가 '著'뒤의 인물로 하여금 동작을 하게 하는 것으로,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 행위는 주어가 '著'뒤의 인물로 하여금 야기시킨 것이라고 언급하였다.[61] 그런데, 만일 동작 행위가 주어가 '著(使,讓)'뒤의 인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 아니라, '著(使,讓)'뒤의 인물 스스로 한 것이고, 주어 또는 관련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 피동이나, 불리한 것일 경우, 이 때 그 어법 의의는 사역에서 피동으로 轉化된 것이라 보고 있다.[62]

반면 何樂士는 著피동식에 대해서, 주어가 동작의 행위를 받고, 동작 행위자가 '著'뒤에 목적어로 오는 경우를 著피동식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6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상의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著피동식은 近代 중국어에 나타난 새로운 피동문으로, '著'자가 '遭受'라는 의미에서 虛化되어 피동표지가 되었다는 의견과, 위에서 언급한 敎피동식처럼 사동문에서 轉化되었다는 의견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2.2.9 給피동식

---

60)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硏究』, 岳麓書社, 北京, 1996, pp.190~192.

61) 馮春田은 『近代漢語語法硏究』에서 그에 대한 예문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別離滋味濃於酒, 著人瘦. (張耒『秋蕊香』詞)
(이별의 맛은 술보다 짙고, 사람을 여위게 하누나.)
是剛才兩個老婆子得去的銀紬, 小人着人問他要回來了. (『醒世姻緣傳』97回)
(이는 방금 두 노파가 얻고 간 은실 비단으로, 소인이 다른 이를 시켜 그들에게 돌아오려 하는지를 묻게 했습니다.)

62)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2000, p.610.
蔣紹愚,『近代漢語硏究槪況』,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94, p.231.

63) 程湘淸 編,『宋元明漢語硏究』, 何樂士,「元雜劇語法特點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92, p.162.

馮春田, 唐鈺明 등은 給피동식의 출현 시기를 淸代 이후라고 여기고 있다.[64] 給피동식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44) 就是天也給運氣使喚着. (『兒女英雄傳』3回)
(바로 하늘도 운에 의해 불려온다.)
(45) 鄒師父是從來不給人贏的, 今日一般也輸了. (『儒林外史』53回)
(추사부는 지금껏 남에게 이겨본 적이 없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졌다.)

馮春田, 橋本萬太郎, 蔣紹愚 등이 설명하고 있는 給피동식을 종합해보면, '給'은 '與'와 마찬가지로 '給與'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쓰이면서 피동문으로 轉化되고 있다. 즉, 給피동식도 與피동식과 마찬가지로 <給+행위자+동사>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행위자가 스스로 한 행위인 경우, '給'은 '給與'의 의미에서 '致使'의 의미로 轉化되고, 행위자의 행위가 주어에게 불리한 경우 '致使'의 의미에서 다시 피동의 의미로 轉化되면서 給피동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65]

따라서, 給피동식, 與피동식은 사동문에서 轉化된 문형으로 그다지 常用되는 피동식은 아니며, 被피동식과 吃피동식과는 다른 성격의 피동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2.10 叫피동식

楊伯峻, 何樂士, 馮春田 등은 叫피동식이 明末淸初에 형성되었는데, 『紅樓夢』에 그 예문이 등장하며, 특히 『醒世姻緣傳』이라는 明末淸初 通俗小說에 많은 예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66] 여기에서 언급된 文獻에 나타난 예문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6) 剛才一個魚上來, …叫你唬跑了. (『紅樓夢』81回)
(방금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 …너에게 놀래 도망갔다.)

---

64)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2000, p.608.
唐鈺明, 「唐至淸的"被"字句」, 『中國語文』1988年 第6期, p.466.
65)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2000, p.609.
橋本萬太郎, 「漢語被動式的歷史・區域發展」, 『中國語文』1987年 第1期, p.47.
蔣紹愚,『近代漢語硏究槪況』,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94, p.236.
66)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688.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2000, p.634.

(47) 京里人家多有叫臭煤薰殺了的. (『醒世姻緣傳』75回)
(수도에 있는 人家에는 역겨운 석탄 냄새에 죽은 이들이 많다.)
(48) 實是叫老韓的老婆打傷了, 動不得. (『醒世姻緣傳』81回)
(사실 한씨의 부인에게 맞아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馮春田은 '叫'자는 '呼喚(부르다)'의 의미에서 사역동사로 轉化되었고, 이후 '叫'가 피동을 나타나게 되는 叫피동식은 敎피동식과 마찬가지의 변천 과정을 거치는데, 즉 '叫' 뒤에 쓰인 행위자가 행한 동작이 주어에게 불리하거나 당하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사동문에서 피동문으로 轉化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67]

近代 중국어 후반기에 출현한 叫피동식은 이후 널리 쓰이면서, 現代 중국어, 특히 口語에서 많이 사용되는 피동식이 되고 있다.

2.2.11 讓피동식

讓피동식은 叫피동식과 더불어 現代 중국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피동식으로, 馮春田은 다음의 예문을 제시하면서 讓피동식이 明末淸初에 출현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9) 可說我讓你罵了好幾句了, 你再罵我不依了. (『醒世姻緣傳』60回)
(내가 너에게 몇 마디 욕먹었는데, 네가 다시 욕한다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讓'은 '讓給(양도하다. 넘겨주다)'라는 의미에서 사동 용법으로 轉化한 것으로, 讓피동식도 叫피동식과 마찬가지로 사동문에서 피동문으로 轉化되어 형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68]

讓피동식과 叫피동식은 現代 중국어에서 피동문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으나, 사동 용법으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橋本萬太郎은 이러한 사동·피동 겸용 형식에 대해 北方 알타이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69]

---

67)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2000, pp.631~632.
68)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2000, pp.639~640.
69) 橋本萬太郎, 「漢語被動式的歷史·區域發展」, 『中國語文』1987年 第1期, p.47.

2.3 『景德傳燈錄』 被動文 類型

上述한 被動 標識 중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被動 標識는 모두 7종류이다. 이러한 被動 標識에 의해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피동문의 유형으로는 古代부터 사용되어온 於피동식, 爲피동식, 被피동식, 與피동식, 近代 漢語에 이르러 새롭게 출현한 敎피동식, 著피동식, 喫피동식이 있다. 특히, 喫피동식은 선종 어록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매우 특징적인 문형으로, 『景德傳燈錄』에 쓰인 '喫'자의 쓰임을 통해, '喫'자가 피동 표지로 쓰이게 된 유래와 변천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러나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景德傳燈錄』 피동 형식은 주로 被피동식이며, 그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체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3.1 於피동식

『景德傳燈錄』에서 於피동식의 쓰임은 그 시기 다른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극히 적다.『景德傳燈錄』에서 於피동식은 총 2회 사용되었고, 예문은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0) 三年十月帝迫**於**其相高懽. (序)
(갑인 3년10월 제왕이 그의 재상 高懽에게 핍박당하다.)
(51) 盡是喫酒糟漢恁麼行脚取笑**於**人. (卷9)
(모두가 술찌꺼기를 먹는 놈들이니, 그렇게 행각을 하다가는 남에게 비웃음 당할 것이다.)

『景德傳燈錄』이라는 방대한 저작에서 於피동식의 용례가 두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景德傳燈錄』에서는 고대 피동문에 나타나고 있는 '於'와 다른 피동표지 '見', '爲', '被'등과의 결합 형식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그 시기에 於피동식은 이미 다른 피동 형식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景德傳燈錄』에서 '於'는, 행위 동작의 발생이나 진행에 관련된 시간, 장소를 이끄는 전치사나,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이끄는 전치사로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70]

2.3.2 爲피동식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총 50개의 爲피동식 중 초기 爲피동식 형식으로 볼 수 있는 <爲+동사>식과 <爲+행위자+동사>식은 각각 3회와 16회 출현한다.

(52) 劉氏殘兵作梗, 師之塔廟鞠爲煨燼. (卷5)
(유씨의 패잔병이 장난을 하여, 대사의 탑과 절이 불태워졌다.)

(53) 朕夢感能禪師請傳法袈裟卻歸曹溪. 今遣鎭國大將軍劉崇景. 頂戴而送. 朕謂之國寶.卿可於本寺如法安置. 專令僧衆親承宗旨者.嚴加守護勿令遺墜. 後或爲人偸竊. 皆不遠而獲.如是者數四. (卷5)
(짐이 혜능 선사께서 법을 전해받은 가사를 다시 조계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꿈을 꾸었기에, 이제 진국대장군 유숭경을 시켜 받들어 모시고 가게 하노라. 짐은 이를 나라의 보배라 이르니, 경들은 본사에다 봉안하여 여러 중들 가운데 종지를 잘 받드는 이로 하여금 엄숙히 수호하여 실수가 없게 하라. 그 후 도둑질 당하여도 모두 멀리 가기 전에 붙들었는데, 이렇게 하기를 네 차례나 거듭하였다.)

(54) 迷者不了卽爲境惑. (卷5)
(헤매는 이는 알지 못하기에 바로 경계에 미혹 당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景德傳燈錄』의 爲피동식 중에서도, 漢代에서 魏晉南北朝 시기까지 각종 형식 표지가 있는 피동문 중에서도 줄곧 수위를 차지했던 <爲+행위자+所+동사>식이 爲피동식 중 27개로 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

70) 예: 度諸天衆說補處行, 亦於十方界中現身說法. (卷1)
(여러 하늘 무리들을 제도하려고 보처의 수행을 연설하셨고, 또 시방세계에 몸을 드러내어 설법하셨다.)
其師於言下感悟曰. (卷9)
(그의 스승이 이 말 끝에 깨달아 감탄하면서 말했다.)
問如何道卽不違於師? (卷20)
(묻기를 어떻게 말해야 스님에 대해 어기지 않겠습니까?)
受心印於廣法大師. (卷26)
(광법 대사에게 법을 얻었다.)

(55) 七年十二月**爲**周武**所**敗. (序)
(7년12월 주무에게 패하다.)
(56) **爲**憎愛**所**縛. (卷3)
(사랑과 미움에 얽매이다.)
(57) 不**爲**戒律**所**制. (卷29)
(계율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景德傳燈錄』에는 앞 절에서 언급했던 爲피동식 변형식 중 <爲+所+동사>식, <爲+행위자+所見+동사>식, <爲+행위자+之所見+동사>식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반면, <爲+행위자+之所+동사>식은 『景德傳燈錄』에서도 그 쓰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景德傳燈錄』에 쓰인 총 4개의 <爲+행위자+之所+동사>식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吳金華가 제시했던, <爲+행위자+之所+동사>식은 대부분 복음절 동사와 결합하고, <爲+행위자+所+동사>식은 대부분 단음절 동사와 결합하며, 또한 전자에서, "爲"의 행위자 대부분이 비교적 복잡한 반면, 후자에서 "爲"의 행위자는 대부분 비교적 간단하다는 의견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그 문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8) 不**爲**世法**之所**滯. (卷6)
(세간법에 막히지 말아야 한다.)
(59) 不**爲**陰界五欲八風**之所**漂溺. (卷6)
(음계, 오욕, 팔풍에 뜨거나 가라앉힘 당하지 않는다.)
(60) 雖圭峰該通禪講**爲**裴**之所**重. (卷12)
(비록 규봉이 선과 교를 통달하여 배공에게 존중받았다고는 하나.)
(61) 此去石室相連有雲巖道人, 若能撥草瞻風. 必**爲**子**之所**重. (卷15)
(여기서 석실 쪽으로 가면 운암 도인이 있는데, 풀을 헤치고 바람 맞으며 찾아가면, 반드시 그대에게 존중받으리라.)

두 번째 예문에 쓰인 동사만이 복음절 동사일 뿐, 그 나머지 3개의 문형에서의 동사는 모두 단음절 동사이다. 또한, 행위자를 보더라도, 두 번째 예문에 쓰인 행위자만 길고 복잡할 뿐, 그 나머지 문장의 행위자는 모두 단순형이다. 여기에서, 吳金華의 또 다른 의견이었던 불경을 암송할 때, 보통 네 글자를 한 句로 삼는 등 당시 사람들이 語音의 리듬을 중시했던 것과 관련지어 추측해본다면, 『景德傳燈錄』에 쓰인 <爲+인+之所+동>식은 피동 의미 강화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했고, 語音 리듬과도 관련이 있는 듯 하다.

『景德傳燈錄』에서 쓰인 爲피동식은 모두 50개로, 『景德傳燈錄』에서 被피동식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형식이며, 전체 피동문의 23%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唐鈺明, 吳福祥 등 近代 중국어 피동문을 연구한 학자들이 주요 피동식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조사한 통계[71]와 비교하더라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景德傳燈錄』이라는 문헌이 황제에게 獻上되어진 이후, 문인들의 수정을 거친 것으로, 당시 口語체 문헌들에 비해 좀더 다듬어지고 文言化되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2.3.3 被피동식

『景德傳燈錄』에서는 '於'뒤에 행위자가 오는 형식의 피동문은 나타나지 않으며, '被'뒤에 행위자 없이 바로 동사술어가 오는 경우가, 모두 22회로, 이는 153개의 전체 被피동식 중에 14%를 차지하고 있다. 『景德傳燈錄』에서 '被'자 뒤에 행위자를 수반하고 있는 被피동식은 모두 131개로, 被피동식 전체의 86%를 차지하면서, 앞 절에서 제시했던 近代 중국어 被피동식의 특징에 부합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62) 元帝旣**被**執. (序, 年表)
(원제가 이미 체포당했다.)
(63) 菴主**被**謾. (卷12)
(암주가 속임을 당했구나.)
(64) 汝**被**我解. (卷1)
(너는 나에게 쪼개졌다.)
(65) 仰山擬再擧. **被**庵主蹋倒. (卷9)
(앙산이 다시 거론하려하니, 암주에게 걷어차여 쓰러졌다.)
(66) 爲甚卻**被**臨濟奪卻? (卷12)
(어찌하여 임제에게 빼앗겼습니까?)

『景德傳燈錄』에서 被피동식은 총 153개이며, 이는 220개의 전체 피동문의 70%라는 비율로 볼 때, 『景德傳燈錄』피동문의 주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2.3.4 與피동식

---

71) 唐鈺明, 「唐至淸的"被"字句」, 『中國語文』1988年 第6期, p.468.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硏究』, 岳麓書社, 北京, 1996, p.452.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與피동식은 모두 10개로, 『景德傳燈錄』에서는 被피동식, 爲피동식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피동문이다.

(67) 遮大愚老漢待見**與**打一頓. (卷12)
(이 대우 늙은이는 보이기를 기다렸다 한 대 맞으리라.)
(68) 麻谷**與**師一摑. (卷13)
(마곡이 대사에게 한 차례 맞았다.)
(69) 破草鞋**與**抛向湖裏著. (卷16)
(헤진 짚신이 호수 안에 던져졌다.)
(70) 不**與**時人知. (卷17)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與'는 피동표지로 虛化하기 이전에 사동문에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景德傳燈錄』에서는 사동문에 쓰이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대부분 "주다"라는 수여동사로 쓰이거나, "~와(과)"의 접속사로 쓰이고 있다.[72]

2.3.5 敎피동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敎피동식은 원래 사동 용법에서 轉化된 것으로, 피동 용법으로 쓰이기 시작한 시대는 唐代로 보고 있으나, 宋代 초기 문헌인『景德傳燈錄』에는 敎피동식으로 보이는 문형이 1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기에는 그다지 상용되는 문형은 아니었던 듯 하다.『景德傳燈錄』에 쓰인 敎피동식은 다음과 같다.

---

72) 예: 一日園樹生大耳如菌, 味甚美, 唯長者與第二子羅睺羅多取而食之. (卷2)
(하루는 후원의 나무에 큰 버섯이 돋았는데, 맛이 매우 좋았으나, 오직 장자와 둘째 아들인 라후라다만이 따서 먹을 수 있었다.)
我道釋迦與我同參. 汝道參阿誰會麽. (卷18)
(나는 석가가 나와 동참했다고 말한다. 그대는 누구의 모임에 참가했다고 이르겠는가?)
如今且要諸人於本參中通箇消息來, 雲山敢與證明. 非但雲山證明, 乃至禪林佛刹亦與證明. (卷22)
(지금 이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식을 드러내 보이려 하는가. 운산이 감히 증명해 주리라. 운산 뿐 아니라, 선림(선종 사원의 선객들)과 불찰(불토, 불국)이 모두 증명해 주리라.)

(71) 莫**敎**老漢見捉來勘不相當搥折脚. (卷19)

(내게 들켜 붙잡혀 점검 당하다 합당치 않아서 다리를 맞지는 말라.)

『景德傳燈錄』에서의 敎피동식은 발생 초기 형태로,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는 있으나,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새로운 형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景德傳燈錄』에서 '敎'자는 대부분 "가르침"이란 의미의 명사나 "가르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고 있으며, 사역동사로 쓰인 경우도 비교적 많다.[73] '敎'가 "가르치다"나 "종교"의 의미로 쓰인 것 이외에, 사동 용법으로 쓰인 예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 '敎'는 사동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동에서 피동으로 의미가 轉化되어 피동문으로 쓰이는 초기 단계인 듯하다.

2.3.6 喫피동식

『景德傳燈錄』에서의 喫피동식은 단 1회 출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景德傳燈錄』에 나타나는 喫피동식의 출현횟수보다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喫'이 피동표지로 虛化되기까지의 과정을 『景德傳燈錄』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景德傳燈錄』에서 '喫'자는 本義인 "먹다"로 쓰이거나, 피동문의 피동표지로 쓰인 이외에, '棒', '拄杖'이 '喫'자의 목적어로 쓰이면서, 여기에서 '喫'은 신체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받는다는 의미로, "承受(받다)", "遭受(당하다)" 의미로 쓰이고 있다. 여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73) 예: 昔如來以無上法眼藏付囑迦葉, 展轉相授而至於我, 我今付汝勿令斷絶. 汝受吾敎, 聽吾偈言. (卷1)

(옛적에 여래께서 위 없는 정법안장을 가석에게 전하신 이래, 차차 전하여 나에게 이르렀는데, 이제 그대에게 전하지 끊이지 않도록하라. 그대는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게송을 들어라.)

師云, 老僧不敎他. (卷8)

(대사가 이르기를, 노승은 그를 가르치지 않았다.)

漿水價且置,草鞋錢敎阿誰還? (卷8)

(장물 값은 그만두고, 짚신 값은 누구더러 갚으란 말인가?)

敎我向誰說? (卷25)

(나더러 누구를 향해서 말하라는 것인가?)

和尙未說敎某甲作麽生尋? (卷28)

(화상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서 저에게 어떻게 찾으라 하십니까?)

에서 주의해야할 것은, 목적어로 쓰인 '拄杖'이나 '棒'이다. '拄杖'이나 '棒'은 모두 불교에서 禪僧이 가지고 다니면서, 상대방을 일깨우거나 스스로를 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불교 용품으로, "喫棒", "喫杖"이라는 용어는 주로 선종어록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喫'자가 "承受, 遭受(당하다)"의미를 갖게 되고 이후 피동표지로 쓰이게 되는 그 시작을 선종어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유추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듯 하다. 『景德傳燈錄』에서 '棒', '拄杖'이 '喫'자의 목적어로 쓰이면서, '喫'자가 "承受(받다)", "遭受(당하다)"의 의미로 쓰인 문장은 '喫'자가 피동 표지로 완전히 虛化되기 직전의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예는 모두 18회가 나온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72) 若禮拜卽喫和尙棒. (卷7)
(절을 했더라면 화상의 몽둥이를 맞았으리라.)
(73) 和尙先喫某甲後甘. (卷8)
(화상께서 먼저 맞으신 뒤에 제가 맞겠습니다.)
(74) 今日合喫山僧手裏棒. (卷8)
(오늘은 내 방망이를 맞아야 하겠구나.)
(75) 趙州自合喫婆手裏棒. (卷8)
(조주야말로 이 능행파의 몽둥이를 맞아야겠다.)
(76) 正賊走卻羅賊人喫棒. (卷12)
(도적놈은 달아났는데 순라군(도둑을 잡는 이)이 매를 맞았습니다.)
(77) 汝喫我棒了也. 雖然如是, 子已喫我棒了也. (卷12)
(그대는 이미 나의 방망이를 맞았다. 비록 이러하나, 그대는 이미 나의 방망이를 맞았다.)
(78) 遮僧莫是和尙親故? 不禮拜又不喫棒. (卷12)
(저 중은 화상의 친구가 아닐까? 절도 하지 않고 방망이도 맞지 않는다.)
(79) 我於黃蘗和尙處. 三度喫棒. 如蒿枝拂相似. 如今更思一頓喫. 誰爲我下得手? (卷12)
(내가 황벽 스승에게 있을 때에, 세 번 방망이를 맞았는데, 마치 쑥대로 치는 것 같았다. 지금도 한 방망이 맞고 싶은데, 누가 나를 위해 손을 써 주겠는가?)
(80) 和尙合喫多少? (卷12)
(和尙은 몇 대나 맞으시겠습니까?)
(81) 靑天亦須喫棒. (卷12)
(푸른 하늘도 방망이를 맞아야 한다.)
(82) 曰義存喫鐵棒有分. (권15)
(이르기를 제가 쇠방망이를 맞을 일이 생겼군요.)
(83) 汝還解喫鐵棒麽? (卷1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너야말로 무쇠방망이를 맞아야 할 놈인 줄 아는가?)

(84) 遮僧過在什麽處便喫棒? (卷16)

(그 중은 허물이 어디에 있기에 방망이를 맞았는가?)

(85) 什麽處是祖師龍頭蛇尾. 便好喫棒? 只如雪峰自道. 我也好喫拄杖. 且道佛法意旨作麽生? (卷16)

(어디가 조사께서 용두사미가 된 곳이기에, 방망이를 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까? 또 설봉이 나도 방망이를 맞아야 한다 했으니, 불법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86) 好喫一頓棒且放過. (卷18)

(한 방망이 호되게 맞는 것이 좋겠지만 놓아준다.)

(87) 汝不會合喫多少拄杖? (卷21)

(그대가 모른다면 주장자를 얼마나 맞아야 되겠는가?)

(88) 闍梨合喫棒. (卷21)

(그대는 방망이를 맞아야겠구나.)

(89) 侍云. 喫取拄杖. (卷30)[74]

(시랑이 말했다. 주장자를 맞아야겠군.)

또한, 오늘날의 "吃苦(고생하다)"의 의미로 쓰인 '喫'자의 쓰임도 볼 수 있는데, 모두 3회 출현하며, 예문은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90) 山頭和尙喫許多辛苦作麽? (卷18)

(설봉 화상이 그렇게 애를 썼으나 무슨 소용인가?)

(91) 山僧如今看見諸上坐. 恁麽行脚喫辛喫苦. (卷22)

(내가 지금 여러분이 행각한 일을 살피건대 허다한 고생을 했다.)

(92) 些子違情喫辛受苦不得卻. (卷30)

(조금이라도 힘들면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劉堅, 江藍生, 白維國, 曹廣順은 唐代에 쓰인 '喫'자는 그것이 수반하는

---

74) 劉堅 등이 저술한 『近代漢語虛詞硏究』(pp.83~94)에 따르면, '取'자는 南北朝 시기를 시작으로 唐·宋 시기에 자주 동사 뒤에서 조사로 쓰였다고 한다. 조사로 쓰이는 '取'자는 現代 중국어에서의 '了'처럼 동작의 실현이나 결과의 획득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現代 중국어의 '着'처럼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예: 春月, 蜂將生育時, 捕取三兩頭着器中, 蜂飛去, 尋將伴來, 經日漸益, 遂持器歸. (張華, 『博物誌』)

(봄 날, 벌이 짝짓기 시기가 될 때, 두 세 마리를 잡아 그릇에 놓아두면, 벌이 날아가서 짝을 찾아 돌아오니,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많아지게 되어, 마침내 그릇을 가지고 돌아온다.)

人生只有家園樂, 及取春濃歸去來. (薛能, 『春題』, 『全唐詩』, P.6511)

(인생에는 단지 가원의 즐거움이 있을 뿐, 봄이 무르익으면 돌아가야지.)

이후 元·明 시기에는 이러한 용례가 점차 감소하여, 現代에 이르러서는 단지 "聽取", "奪取"등과 같은 雙音 동사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 조사로 쓰이는 용법은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목적어가 매우 제한적으로 쓰여, 대부분 '杖'이나 '棒'과 같은 종류만이 쓰였으나, 宋・元代이후에는 그 쓰임이 훨씬 다양해지면서, "喫艱辛(고생하다)", "吃了這兩掌(손바닥으로 두 대 맞았다)", "吃官司(소송 당하다)", "喫了驚(깜짝 놀랐다)" 등으로 쓰이고 있다고 했다.[75] 여기에서의 '喫(吃)'은 모두 "承受(견디다),遭受(당하다)"의 의미로, 『景德傳燈錄』에서 "吃苦"의 의미로 쓰인 '喫'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唐代에 '喫'자의 목적어가 제한적으로 쓰였으나, 宋代에 와서 그 쓰임이 다양화되었다는 위 글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으로, 『景德傳燈錄』에서 "喫棒"이나 "喫拄杖"등의 문장이 "吃苦"의 의미로 쓰인 문장보다 많이 나타나는 이유 또한 『景德傳燈錄』의 간행 시기인 1004년이 막 宋代에 들어선 시기였기 때문임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景德傳燈錄』에서 喫피동식은 그 변천 과정에 있어서 같은 시기 喫피동식의 상황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景德傳燈錄』에서 '喫'자는 피동 표지로 완전히 虛化되기 전인 중간 단계인 "遭受(당하다)"의 의미를 갖는 동사로 많이 쓰였고, 피동문인 喫피동식의 예가 비록 적으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시기는 喫피동식 사용의 초기 단계로, 아직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喫피동식은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주요 형식 중 하나이나, 『景德傳燈錄』이 편찬된 시기는 北宋 初(1004년)로 近代 중국어의 전반기에 해당하므로, 아직까지는 '喫'자가 활발하게 피동 표지로 쓰인 예가 많지 않은 듯 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喫피동식은 口語에 주로 쓰인 피동 형식이기 때문에, 문인들의 수정과 편집을 거친 『景德傳燈錄』에는 그만큼 喫피동식의 쓰임이 적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喫피동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학자들의 論文을 살펴보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喫피동식의 예문들이 거의 대부분 元代이후의 문헌들에서 온 것으로, 宋初 문헌인 『景德傳燈錄』에서는 喫피동식이 보편적으로 쓰이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3.7 著피동식

『景德傳燈錄』에서 著피동식은 단 2회 출현에 그치며, '著'뒤에 행위자

75) 劉堅 外,『近代漢語虛詞硏究』,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p.214~215.

없이 바로 동사가 이어지면서 '著'는 피동을 표시해주는 피동표지로 虛化되어 피동문을 이루고 있다.

(93) 此人具眼不具眼? 因什麽**著**打? (卷10)
(이 사람은 안목을 갖추었는가 갖추지못했는가? 무엇때문에 맞았는가?)
(94) 某甲三日前**著**賊.(卷11)
(제가 3일 전에 도둑질 당했습니다.)

이 밖에 『景德傳燈錄』에서 '著'자의 쓰임을 살펴보면, "집착하다", "저술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거나, 近代에 이르러 새롭게 나타난 용법으로 명령의 어기를 나타내는 조사로 쓰이거나,[76] 동작 행위의 도구나 방식, 처소를 이끄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있다.[77] 이렇듯, 『景德傳燈錄』에서 '著'자는 다양하게 사용되면서도,[78] 피동 표지로 쓰인 경우는 매우 적다. 그러나,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새로운 형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著피동식이 『景德傳燈錄』에도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近代 중국어 피동문에서 그 종류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景德傳燈錄』 피동문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76)「釋景德傳燈錄中在,著二助詞」,『華西聯合大學中國文化研究所集刊』1卷3期,1941, p.65.
77)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研究』, 岳麓書社, 北京, 1996, pp.186~189.
俞光中, 植田均, 『近代漢語語法研究』, 學林出版社, 上海, 1998, pp.2~8.
劉堅 外, 『近代漢語虛詞研究』, 語文出版社, 北京, 1992, pp.95~98.
78) 예: 今相公著言說相,著名字相, 著心緣相, 既著種種相, 云何是佛法. (卷4)
(이제 상공은 언어의 형상에 집착하고, 이름의 형상에 집착하고, 심연의 형상에 집착하고, 갖가지 형상에 집착하였으니, 어찌 불법이라 하리요.)
師著參同契一篇. (卷18)
(대사가 참동계 한 편을 지었다.)
師曰. 維那拽出此僧著. (卷18)
(대사가 말했다. 유나야 이 중을 끌어내라.)
師曰. 且留口喫飯著. (卷19)
(대사가 말했다. 밥 먹을 입은 놔두어라.)
向外求佛著相修行. (卷9)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 형상으로 수행한다.)
汝若能謗於佛者是不著佛求. 毁於法者是不著法求. 不入衆數者是不著僧求. (卷28)
(그대가 부처를 비방한다는 것은 부처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법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승가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중에게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Ⅲ.『景德傳燈錄』 被動文

3.1 被피동식

3.1.1 被피동식의 形式과 그 의미

3.1.1.1 被피동식의 形式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被피동식은, '被'뒤에 바로 동사가 오는 <被+동사>형식, '被'뒤에 행위자가 오고 그 뒤에 동사가 오는 <被+행위자+동사>형식, '被'뒤에 행위자가 오고 동사는 다시 '所'에 의해 이끌리는 <被+행위자+所+동사>형식, '被'뒤에 행위자가 오고 동사가 '之所'에 의해 이끌리는 <被+행위자+之所+동사>형식이 각각 22회, 119회, 11회. 1회 출현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被+동사>

(95) 元帝旣**被**執. (序, 年表)
(원제가 이미 체포당했다.)
(96) 太子不如密多以進諫**被**囚. (卷2)
(태자 불여밀다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갇혔다.)
(97) 時宗勝旣**被**斥逐. (卷3)
(이 때에 종승이 축출당했다.)
(98) 宗勝**被**謫投崖. (卷3)
(종승은 유배당해 벼랑에 떨어졌다.)

2. <被+행위자+동사>

(99) 問師子是獸中之王, 爲什麽**被**六塵呑? (卷15)
(묻기를 사자는 짐승의 왕인데, 어찌하여 육진에 삼켜집니까?)
(100) 幾**被**汝打破. (卷18)
(거의 그대에게 깨질 뻔 했다.)
(101) 三十年學馬伎昨日**被**驢撲. (卷20)
(30년간 말 타는 기술을 배웠으나 어제 당나귀에게 채였다.)

(102) 爲什麽卻**被**傍者責? (卷22)
(어째서 옆 사람에게 질책 당했습니까?)
(103) 今來受此緣生, **被**生死繫縛. (卷30)
(이제 이 인연의 생을 받게 되어, 생사에 구속당하게 되었다.)

3. <被+행위자+所+동사>

(104) 不**被**諸境**所**惑, 自然具足神通妙用. (卷6)
(모든 경계에 미혹당하지 않고, 자연히 신통묘용을 다 갖추리라.)
(105) 卽臨終**被**業**所**牽而受生. (卷13)
(임종할 때 업에 이끌려 생을 받는다.)
(106) 不**被**靜亂**所**攝. (卷30)
(고요함과 어지러움에 포섭당하지 않는다.)

.

4. <被+행위자+之所+동사>

(107) 如是則一切諸法**被**涅槃**之所**禁伏, 尙不得生何樂之有? (卷5)
(이와 같다면 일체의 모든 법은 열반에 구속되어, 생을 얻을 수 없으니 어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1.1.2 被피동식의 의미

被피동식은 대부분 불유쾌한 의미를 띠고 있다. 총 153개의 被피동식 중에서 137개의 被피동식이 불유쾌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호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被피동식은 불과 7개에 불과하다. 또한, 불유쾌하거나 호의적이거나 이러한 감정적인 색채를 띠지 않은 중성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모두 8회 출현한다. 불유쾌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137개의 被피동식 중에서 동사 자체가 불유쾌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경우가 87회에 달했으며, 나머지 50회가 문장 전체적인 의미가 불유쾌한 색채를 띠는 경우였다. 被피동식은 대부분 불유쾌한 상황을 표현하는데 쓰인다.

被피동식이 불유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를 몇 가지 들어 살펴보겠다.

(108) 爲甚卻**被**臨濟奪卻? (卷12)
(어찌하여 임제에게 빼앗겼습니까?)
(109) 若人不見般若亦**被**般若縛. (卷25)

(만일 어떤 이가 반야를 보지 못했다 해도 반야에 속박당한다.)

(110) 大小雲門**被**遮僧勘破. (卷24)

(大小 운문이 그 중에게 점검당했구나.)

(111) 洞山代云, **被**他覓得也. (卷27)

(동산이 대신 대답하기를, 벌써 그에게 들켰다 말했다.)

예문(108), (109)에서는 각각 동사 '奪'과 '縛'이 쓰이면서 불유쾌한 의미를 띠고 있고, 예문(110), (111) 같은 경우는 동사 '勘破', '覓' 자체는 불유쾌한 의미는 띠지 않고 있으나 피동문 전체적인 의미가 불유쾌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반면 호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7개의 被피동식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3개의 被피동식은 동사 자체는 불유쾌한 의미를 띠고 있으나, 부정사에 의해 부정되면서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가 호의적으로 바뀐 경우이고, 나머지 4개의 被피동식은 동사나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가 모두 호의적인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12) 師在石頭時問云. 如何得合道去? 石頭云, 我亦不合道. 師云, 畢竟如何? 石頭云. 汝**被**遮箇得多少時耶? (卷8)

(대사가 석두에게 있을 때에 물었다. 어찌하여야 도에 부합합니까? 석두가 이르기를, 나도 도에 부합했다고는 못한다. 대사가 이르기를, 끝내는 어떠합니까? 석두가 이르기를, 그대는 이것에 의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얻게 되었는가?)

(113) 今日幾**被**汝安頓著. (卷21)

(오늘 거의 그대에 의해 안착하게 되었구나.)

(114) 釋迦老子三七日中思惟. 便欲入涅槃. **被**帝釋梵王慇懃三請. 不得已而許之. (卷30)

(석가모니께서는 37일 동안 사유하여, 열반에 들시려 하다가, 제석범왕에게 정성스럽게 세 차례 청을 받아, 마지못해 허락하셨다.)

(115) 及至都則道原者已進而**被**賞矣. (卷30)

(서울에 이르니 도원이라는 자가 이미 진상하여 상을 받았다.)

예문(112)~(115)의 동사 '得', '安頓', '請', '賞'이 모두 호의적인 의미를 띠고 있으며, 문장 전체적인 의미도 호의적이다.

그 다음으로 被피동식의 전체적인 의미나, 그 속에 쓰인 피동 동사의 의미가 모두 불유쾌하거나 호의적이거나 하는 감정적인 색채가 없는 중성적인 경우인데, 모두 7개의 예문에서 볼 수 있다.

(116) 只如魯祖節文在什麽處**被**南泉恁麽道? (卷7)
(노조의 절문이 어디에 있기에 남천에 의해 그렇게 말해지게 되었는가?)
(117) 今日**被**馬大師一問, 平生功夫冰釋而已. (卷8)
(오늘 마 대사에게 한 차례 질문을 당하자, 평상시의 공부가 얼음같이 녹아버렸다.)
(118) 師曰大小長慶**被**汝一問口似匾擔. (卷18)
(대사가 말하기를 大小 장경이 그대에게 한 차례 질문 당하자 입이 광주리같이 되었구나.)
(119) **被**汝致此一問. 直得當門齒落. (卷18)
(그대에게 이 한 물음을 받으니, 당장에 앞니가 빠졌다.)
(120) 早**被**上座答了也. (卷25)
(진작에 상좌에게 대답 받았다.)
(121) 恰**被**汝問著. (卷25)
(마침 너에게 질문 당하는구나.)
(122) 盡**被**汝道了也. (卷26)
(모두 그대에 의해 말해졌다.)

위에 제시한 7개의 예문을 살펴보면, 어떠한 감정적인 색채도 들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감정적인 색채가 없는 중성적인 의미를 띤 被피동문에 쓰인 피동동사를 살펴보면, '道', '問', '答'으로 모두 "言說"과 관련된 동사들이다. 이 또한 『景德傳燈錄』피동문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被피동문은 일반 피동문이 그러하듯이, 대부분 불유쾌한 경우를 표현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간혹 호의적인 경우에도 쓰이나 그 용례는 매우 적다. 또한 被피동문이 어떠한 감정적인 색채도 띠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때 사용된 피동동사는 모두 "言說"과 관련된 동사들이다.

3.1.2 被피동식 構造分析

3.1.2.1 행위자

1. 의미

일반적으로 피동문에서 행위자는 대부분 사람이다. 그러나,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被피동문에서는 전체 被피동문에서 행위자가 사람인 경우는 78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거의 50%에 달하는 75개의 被피동문에서 행위자는 사람이 아니다. 이는 이 문헌의 성격에 관련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景德傳燈錄』은 선종 어록으로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종교 서적이다. 당연히 대중이나 선승들에게 설법하는 내용의 글이 많이 실려 있다. 따라서, 거기에 쓰인 被피동문의 행위자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불교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이나 불교 용어가 많이 사용되게 된 것이다. 행위자가 사람이 아닌 경우를, 그 의미에 따라 분류해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행위자가 사람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으로, 불교와 관련된 용어들이다. 이 밖에, 행위자가 神鬼인 경우는 7회 나타나는데 이 또한 불교와 관련된 용어들이다. 행위자가 有情의 동물인 경우, 無情의 자연물인 경우, 無情의 사물인 경우가 각각 6회, 7회, 4회 등장한다. 그렇다면 행위자가 사람이 아닌 경우를 종류별로 나누어 각각 몇 가지씩 예문을 들어 살펴보겠다.

1) 추상적인 개념이 행위자인 경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행위자가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는 총 51회 출현하며, 이는 행위자가 사람이 아닌 경우의 68%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는 『景德傳燈錄』피동문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123) **被**三乘功行拘繫不得解脫. (卷9)
(삼승의 수행에 구속당하여 해탈을 얻지 못한다.)

(124) 闍梨若不遇老僧幾**被**玄殺. (卷10)
(그대가 만일 노승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현묘함에 살해당했을 것이다.)

(125) 問師子是獸中之王, 爲什麽**被**六塵呑? (卷15)
(묻기를 사자는 짐승의 왕인데, 어찌하여 육진에 삼켜집니까?)

(126) 只言衆生**被**一切境攝, 著慾之故. (卷30)
(다만 중생이 온갖 경계에 포섭당하는 것은, 욕심에 집착하는 까닭이라 했다.)

(127) 一切攀緣貪瞋愛取垢淨情盡, 對五欲八風. 不**被**見聞覺知**所**縛. (卷6)
(일체의 탐욕, 성냄, 애욕의 더럽고 깨끗한 망정이 다하면, 오욕이나 팔풍을 대하여도, 보고 듣고, 깨닫는 분별에 속박 당하지 않는다.)

예문 (123)의 '三乘功行', (124)의 '玄', (125)의 '六塵', (126)의 '一切境', (127)의 '見聞覺知'는 모두 행위자로 쓰이고 있으나, 有情의 사람이 아닌 불교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 有情의 동물이 행위자인 경우

(128) 今日卻**被**驢撲. (卷10)
(오늘 나귀에게 채였다.)
(129) 問,蛇師爲什麽**被**蛇呑? (卷20)
(묻기를, 뱀잡이가 어째서 뱀에게 먹힙니까?)
(130) 旣是聖僧, 爲什麽**被**大蟲咬? (卷21)
(이미 성승인데, 어째서 큰 벌레에게 물렸습니까?)
(131) 師曰, 忽遇金翅鳥來又作麽生? 曰性命難存. 師曰, 恁麽卽**被**他呑卻也. (卷21)
(대사가 이르기를, 홀연히 금시조를 만나면 또 어찌하겠는가? 이르기를 생명을 보존키 어렵습니다. 대사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그에게 먹히겠구나.)

예문 (128), (129), (130)에서의 행위자는 각각 '驢', '蛇', '大蟲'으로 모두 有情의 동물이다. 예문(131)인 경우 행위자가 '他'이나, 앞 문장과 연결시켜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 '他'는 앞문장의 '金翅鳥'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無情의 자연물이 행위자인 경우

(132) 若是水火卽**被**燒溺. (卷19)
(만일 물과 불이라면 태워지고 빠짐을 당했을 것이다.)
(133) 旣是般若, 爲什麽**被**火燒? (卷20)
(이미 반야인데, 어째서 불에 태워집니까?)
(134) 因開井**被**沙塞卻泉眼. (卷27)
(우물을 열었기 때문에 모래에 샘구멍이 막혔다.)

예문(132)인 경우, '被'뒤에 행위자가 생략되어 있으나, 앞 문장과 연결시켜 의미를 파악해보면, 앞에 나온 '水火'가 행위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문 (132), (133), (134)의 행위자는 각각 '水火', '火', '沙'로, 無情의 자

연물이 행위자로 쓰이고 있다.

4) 無情의 사물이 행위자인 경우

(135) 遮箇老師, 我將謂被故紙埋卻, 元來猶在. (卷11)
(그 노장이, 나는 묵은 종이 속에 파묻히리라 일렀더니, 아직도 여전히 있구나.)
(136) 其僧後到雪峰擧前語, 被拄杖打趁下山. (卷16)
(그 중이 나중에 설봉에게 좀 전의 이야기를 거론하다, 주장자로 맞고 산밑으로 쫓겨났다.)
(137) 好一鑊羹被兩顆鼠糞汚卻. (卷27)
(한 가마솥 가득한 좋은 국이 쥐똥 두 알로 더럽혀졌다.)

피동문의 행위자가 無情의 사물인 경우 또한 『景德傳燈錄』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로, 문장 자체의 의미보다 그 속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선종 어록의 성격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예문(136)의 경우 행위자는 '拄杖'으로 이는 불교의 禪僧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리킨다. 이 문장의 경우, '打'의 직접 행위자는 '拄杖'이 아닌 앞 문장에 나온 설봉 화상으로 '拄杖'은 직접 행위자의 소유물로 행위자의 행위 도구로, 특이한 문장 중 하나이다. 예문(135), (137)에서도 행위자로 각각 '故紙', '兩顆鼠糞'이 쓰여, 無情의 사물이 행위자로 쓰이고 있다.

5) 神鬼가 행위자인 경우

(138) 王老師修行無力, 被鬼神覷見. (卷8)
(왕노사의 수행이 힘이 없어서, 귀신들에게 들켰구나.)
(139) 卻被如來苦訶責. (卷30)
(여래께 호되게 꾸짖음 당하였구나.)

예문 (138), (139)에서는 행위자로 각각 '鬼神', '如來'가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 '如來'는 부처를 일컫는 것으로, 神이 행위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구조

총 153개의 被피동문 중,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은 문장은 2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131개의 被피동문에 행위자가 출현하고 있다. 이는 被피동문 총수의 약 86%에 달하는 수량으로, 『景德傳燈錄』이 출간된 宋代 초기, 즉 近代 중국어 초기 被피동문에서 행위자가 출현하는 피동문의 수량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점차 증가했던 일반적인 상황에 부합한다. 袁賓은 전체 被피동문에서 행위자가 출현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近代 중국어와 古代 중국어를 구별하는 특징 중 하나로 여기면서, 『祖堂集』에서 행위자가 출현하는 경우가 전체 被피동문의 7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시기 다른 문헌에 비해, 被피동문 형식에 있어서, 『祖堂集』이 좀 더 빠른 발전을 보인다고 여겼다.[79] 그러나, 吳福祥은 행위자가 처음으로 출현했던 발생 초기에는 그 형식이 나타난 빈도로 문헌이나, 어느 시기의 被피동문 발전을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被피동문에서 행위자가 출현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던 近代 중국어에서, 행위자의 출현 빈도로 그 시기 문헌이나 그 시기 被피동문 발전을 가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80] 被피동문에서 행위자의 출현 빈도로 그 문헌에서 被피동문 발전 상황을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행위자가 문법적으로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행위자가 출현하지 않거나 행위자가 출현하더라도 단어 하나로 표현했던 古代 중국어 피동문과 비교한다면, 그 의미 전달이나 표현의 다양화 측면에서 보다 큰 변화인 것이다. 『景德傳燈錄』 被피동문에서, 행위자가 출현한 경우는 총 130회이며, 그 중 행위자가 단어인 경우가 81회, 행위자가 구인 경우가 49회 나타난다. 표현의 다양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행위자가 구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구로 이루어진 행위자의 경우, 길고 복잡한 구인 경우는 불교와 관련된 용어가 대부분이다. 행위자를 나타낼 때, 이렇듯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길고 자유로운 표현이 쓰이게 된 점 또한 『景德傳燈錄』과 같은 선종 어록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구조 관계에 따라서 분류하면, 수식구조(31회), 병렬구조(12회)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구조가 함께 쓰인 경우(5회), 수식구조와 同位구조가 함께 쓰인 경우(1회)도 나타난다. 아래에 각각의 예를 몇 가지 들었다.

---

79) 袁賓, 「《祖堂集》被字句研究」, 『中國語文』1989年 第1期, pp.196～197.
80)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研究』, 岳麓書社, 北京, 1996, pp.472～473.

1) 행위자가 수식구조로 이루어진 구인 경우

(140) 旣無生滅卽不**被**前塵**所**縛. (卷4)
(이미 생멸이 없다면 이전 속세에 속박 당하지 않는다.)
(141) 已**被**冷眼人覷破了. (卷16)
(이미 차가운 눈빛의 사람에게 들켰다.)
(142) 問如何得此身安去? 師曰, 不**被**別身謾始得. (卷17)
(묻기를 어찌하여야 이 몸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이르기를, 다른 몸에 속지 않아야 된다.)

예문(140)에서는 '前'이 '塵'을, 예문(141)에서는 '冷'이 '眼'을 이 두 단어가 다시 '人'을, 예문(142)에서는 '別'이 '身'을 각각 수식해주고 있다.

2) 행위자가 병렬구조로 이루어진 구인 경우

(143) 如何得不**被**祖佛謾去? (卷17)
(어찌하여야 조사와 부처에 속지 않겠습니까?)
(144) 不**被**凡聖因果**所**謾. (卷18)
(범부니 성인이니 인과니 하는 것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145) 曰, 恁麽卽**被**生死拘將去也. (卷21)
(이르기를, 그러면 생사에 속박 당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예문(143)에서는 '祖'와 '佛'이, 예문(144)에서는 '凡', '聖', '因果'가, 예문(145)에서는 '生'과 '死'가 각각 병렬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 행위자가 수식구조와 병렬구조가 함께 쓰여 이루어진 구인 경우

(146) 但不**被**一切善惡垢淨有爲世間福智拘繫, 卽名爲佛慧. (卷6)
(다만 온갖 선,악, 더럽고 깨끗한 유위 세간 복과 지혜에 구속당하지 않는 것을, 부처의 지혜라 이름한다.)
(147) 一切處無人識得, 汝知麽? 莫只長戀生死愛網. **被**善惡業拘將去無自由分. (卷18)
(모든 곳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대는 알겠는가? 다만 오랫동안 생사의 애욕에 연연하여, 선악의 업에 얽매여 자유의 구분이 없다 말라.)
(148) 也只是**被**些子聲色惑亂身心不安. (卷28)

(또한 다만 약간의 소리와 색에 홀려 몸과 마음이 편치 않을 뿐이다.)

예문(146)에서 '一切'은 '善惡垢淨有爲世間福智'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며, '善惡垢淨有爲世間福智'는 8개의 병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문(147)에서는 '善惡'이 '業'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며, '善惡'은 병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문(148)에서는 '些子'는 '聲色'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며, 다시 '聲色'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些子'는 '些', '些些', '些小', '些少', '些需', '些須', '些個', '些兒'등과 같이 近代 漢語에 쓰였던 양사로, 보통 명사 앞에 놓여 그 명사의 수량이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81]

4) 행위자가 수식구조와 同位구조가 함께 쓰여 이루어진 구인 경우

(149) 乃晦跡藏用外示癡訥, 自撰頓悟入道要門論一卷. **被**法門師姪玄晏竊出江外呈馬祖. (卷6)
(이에 자취와 활동을 감추고 밖으로는 바보인 체하면서, 스스로 돈오입도요문론 한 권을 지었다. (그것이) 법문선사 조카인 현안에 의해 강외로 훔쳐져 마조에게 갖다 바쳐졌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예문(149)에서 '法門師'는 '姪'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며, '法門師姪'과 '玄晏'은 同位구조이다.

3.1.2.2 피동자

1. 의미

『景德傳燈錄』의 被피동문에서 피동자가 생략된 경우는 모두 83개이다. 피동자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로 쓰이고 있는데 생략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0) 不見般若爲什麽卻**被**縛? (卷25)
(반야를 보지 못하면 어째서 속박 당합니까?)
(151) 今日卻**被**驢撲. (卷10)
(오늘 나귀에게 채였다.)

81) 兪光中, 植田均, 『近代漢語語法硏究』, 學林出版社, 上海, 1998, p.256.

(152) 若透祖佛不得卽被祖佛謾去. (卷17)
(만일 조사와 부처를 뚫을 수 없으면 조사와 부처에게 속으리라.)

이상의 예문을 통하여, 예문(150), (151)에서처럼 대화를 나눌 때 發話者 자신이 피동자가 되었을 경우 생략되거나, 예문(152)에서처럼 大師가 大衆이나 禪僧에게 설법할 때 설법을 듣는 상대방이 피동자인 경우 종종 생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景德傳燈錄』의 被피동문에 나타난 70개의 피동자 중 46개의 피동자가 有情의 사람이다.

(153) 時宗勝旣被斥逐. (卷3)
(이 때 종승은 이미 축출당했다.)
(154) 忠國師聞乃云. 欽師猶被馬師惑. (卷4)
(충 국사가 듣고 이에 말했다. 흠 대사는 아직도 마 대사에게 미혹 당하고 있다.)

有情의 동물이 피동자로 쓰이는 경우가 1회 등장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55) 旣是師子兒, 爲什麼被文殊騎? (卷11)
(이미 사자의 새끼이거늘, 어째서 문수에게 태워지는가?)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無情의 사물이 주어로 쓰일 경우, 대부분 피동 표지 없이 능동문의 형식을 빌어 피동을 표시한다. 그렇다면, 無情의 사물이 주어가 되고 있는 被피동문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일까? 崔承一은 被피동문과 의미상 피동문을 비교하면서, 被피동문을 쓸 경우 '당하다'라는 語義 색채가 보태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鎖撬開了(자물쇠를 비틀어 열었다)."와 "鎖被撬開了.(자물쇠가 비틀어 열렸다.)"의 경우, 앞 문장은, 집주인이 외출하면서 열쇠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자, 집에 돌아와서 다른 방법으로 자물쇠를 비틀어 열었다는 것이며, 뒤 문장은 도둑이 이미 자물쇠를 비틀어 열었고, 이는 집주인에게는 불유쾌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這本日記本他飜了幾頁.(이 일기장을 그가 몇 페이지 펼쳤다.)"과 "這本日記本被他飜了幾頁.(이 일기장이 그에 의해 몇 페이지 펼쳐졌다.)"의 경우, 앞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이며, 뒤 문장은 "他"가 함부로 소식을 알리고 다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82] 『景德傳燈錄』의 被피동문에서 無情의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피동자로 쓰인 경우를 살펴보면, 의미상에 있어서 불행이나 바라지 않는 일을 당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景德傳燈錄』의 被피동문에서 無情의 사물이 피동자로 쓰인 경우로, 총 13회 등장한다.

(156) 如舍**被**燒舍主出去. (卷28)
(마치 집이 불태워지면 주인이 나가는 것과 같다.)
(157) 食到口邊**被**他奪卻. (卷7)
(밥이 입가에서 그에게 빼앗겼다.)
(158) 今日坐位**被**人奪卻. (卷9)
(오늘 자리는 남에게 빼앗기셨습니다.)
(159) 師院有石幢子**被**風吹折. (卷10)
(대사의 절에 있는 돌기둥이 바람에 불려 부러졌다.)
(160) 手中珠**被**賊偸卻也. (卷11)
(손 안의 구슬이 도둑에게 도둑질 당했다.)
(161) 鑊在黃蘗手裏爲什麽**被**臨濟奪卻? (卷12)
(호미가 황벽의 손에서 어찌하여 임제에게 빼앗겼습니까?)
(162) 曰見說廣州城東門外有一團石**被**州主移卻是否? (卷14)
(듣건대 광주성의 동문 밖에 있는 돌이 군수에 의해 옮겨졌다는데 그렇습니까?)
(163) 嘗以. 衡山多**被**山民斬木燒畬. 爲害滋甚. (卷16)
(일찍이, 형산 대부분이 화전민에게 나무가 잘리고 전답이 불태워져, 피해가 자못 심하다.)
(164) 因佛塔**被**雷霹, 有人問. (卷22)
(불탑이 벼락에 맞은 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물었다.)
(165) 祖佛塔廟爲什麽卻**被**雷霹? (卷22)
(불조의 탑묘가 어째서 벼락에 맞습니까?)
(166) 好一鑊羹**被**兩顆鼠糞汚卻. (卷27)
(한 가마솥 가득한 좋은 국이 쥐똥 두 알로 더럽혀졌다.)
(167) 曰下岸稻總**被**螃蟹喫卻也. (卷27)
(이르기를 아래 언덕의 벼가 게에게 다 먹혔습니다.)
(168) 泉眼不通**被**沙塞. (卷27)
(샘구멍이 통하지 않음은 모래에 막혀서이다.)

추상적 개념이 피동자로 쓰이는 예문은 모두 5회 등장한다.

82) 崔承一, 『現代漢語句型』, 延邊大學出版社, 延吉, 1988, p.405.

(169) 什麽處被子勘破? (卷9)
(어디가 그대에게 점검 당했는가?)
(170) 存奬平生於三聖處學得底盡被和尙折倒了也. (卷12)
(존장이 평생동안 삼성이 있는 곳에서 배운 것이 모두 화상에게 꺾였다.)
(171) 法眼亦被後僧勘破也. (卷27)
(법안 또한 나중 선객들에게 점검 당할 것이다.)
(172) 道眼不通被什麽物礙? (卷27)
(도의 안목이 통하지 않음은 무슨 물건 방해받은 것인가?)
(173) 但朝暮之間所作被情塵所牽.(卷13)
(다만 아침저녁에 하는 일이 망정의 티끌에 이끌린다.)

다음은 장소나 불교와 관련된 神이 피동자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174) 恁麽卽國內總被閻梨占卻也. (卷17)
(그렇다면 나라 안이 모두 그대에게 점령당했구나.)
(175) 旣是喝河神,爲什麽卻被水推卻? (卷23)
(이미 할하신인데, 어째서 물에 밀립니까?)
(176) 三世諸佛被我一口呑盡. (卷27)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나에게 한 입 몽땅 삼켜졌다.)
(177) 釋迦老子三七日中思惟. 便欲入涅槃. 被帝釋梵王慇懃三請. 不得已而許之. (卷30)
(석가모니께서는 37일 동안 사유하여, 열반에 들려 하다가, 제석 범왕에게 정성스럽게 세 차례 청을 받아, 마지못해 허락하셨다.)
(178) 曰因何諸佛菩薩不被生死所拘, 而凡夫獨縈此苦? (卷4)
(이르기를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들은 생사에 구속당하지 않는데, 범부만이 유독 이 고통에 얽매입니까?)

2. 구조

『景德傳燈錄』의 被피동문에 나타난 70개의 피동자 중 27개가 구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피동자가 단어인 경우 중 사람이 피동자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예문 (179)에서 '寂子'가 피동자로 쓰이는 것과 같이 대부분 禪師의 이름 즉 고유명사가 많이 나타났다.

(179) 寂子又被吾勘破. (卷9)
(적자가 또 나에게 점검 당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피동자가 구로 이루어진 경우에서는 대부분 수식 구조를 이루고 있고, 병렬구조와 수식구조가 복합된 경우도 나타난다. 각각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180) 今日二禪客被慧寂勘破. (卷9)
(오늘 그 두 선객이 혜적에게 점검 당했습니다.)
(181) 問, 蛇師爲什麽被蛇呑? (卷20)
(묻기를, 뱀잡이가 어째서 뱀에게 먹힙니까?)
(182) 曰, 因何諸佛菩薩不被生死所拘, 而凡夫獨縈此苦? (卷4)
(이르기를,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들은 생사에 구속당하지 않는데, 범부만이 유독 이 고통에 얽매입니까?)

예문(180), (181)에서 각각 '二'가 '禪客'을, '蛇'가 '師'를 수식해주고 있으며, 예문(182)에서는 '佛'과 '菩薩'이 병렬구조를 이루며, 이 둘을 '諸'가 수식해주고 있다.

3.1.2.3 동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의미

의미 방면에서 살펴보면, 총 153개의 被피동문에 쓰인 동사 중 무려 91%에 달하는 140개의 被피동문 동사가 불유쾌한 의미를 띠고 있다.

(183) 元帝旣被執. (序)
(원제가 이미 잡혔다.)
(184) 菴主被謾. (卷12)
(암주가 속임 당했다.)
(185) 如夢被驅役而身本安閑. (卷13)
(마치 꿈에서 끌려가 부역 당했지만 몸은 본래 한가한 것과 같다.)
(186) 那僧若會雪峰意, 爲什麽被打? (卷16)
(그 승이 설봉의 뜻을 알았다면, 어째서 맞았을까?)

예문(183), (184), (185), (186)에 쓰인 동사는 각각 '執', '謾', '驅役', '打'로 모두 불유쾌한 의미를 띠고 있다.

이와 달리, 호의적 의미를 띠는 동사로는 '賞', '得', '安頓', '敎', '請'이 각각 한 예문씩 쓰이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7) 及至都則道原者已進而**被**賞矣. (卷30)
(서울에 이르니 도원이라는 자가 이미 진상하여 상을 받았다.)
(188) 今日幾**被**汝安頓著. (卷21)
(오늘 거의 그대에 의해 안착하게 되었다.)
(189) 釋迦老子三七日中思惟, 便欲入涅槃, **被**帝釋梵王慇懃三請, 不得已而許之. (卷30)
(석가모니께서는 37일 동안 사유하여, 열반에 드시려 하다가, 제석 범왕에게 정성스럽게 세 차례 청을 받아, 마지못해 허락하셨다.)

이밖에, 의미에 있어서 아무런 감정적 색채도 띠지 않는 중성적 의미를 띠는 동사로 '問'이 3회, '喚作'이 2회, '道', '致', '答'이 각각 1회 등장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 今日**被**馬大師一問, 平生功夫冰釋而已. (卷8)
(오늘 마 대사에게 한 차례 질문을 당하자, 평상시의 공부가 얼음같이 녹아버렸다.)
(191) 只如魯祖節文在什麽處, **被**南泉恁麽道? (卷7)
(노조의 절문이 어디에 있기에, 남천에 의해 그렇게 말해지게 되었는가.)
(192) 早**被**上座答了也. (卷25)
(벌써 상좌에게 대답을 들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2. 구조

被피동식에 사용된 동사 중 복음절 동사는 총 50개로, 被피동문의 전체 동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복음절 동사 사용의 증가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언어에 요구되는 의미 전달의 정확도와 다양화라는 측면에 부합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被피동식에 사용된 복음절 동사의 결합 관계를 살펴보면, 병렬구조가 23개, 동보구조 26개, 동목구조 1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복음절 동사가 병렬구조로 이루어진 경우의 예문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

(193) 鏡淸問. 天不能覆地不能載豈不是? 師曰. 若是卽被覆載. (卷17)
(경청이 물었다. 하늘이 덮을 수 없고 땅이 실을 수 없으니 어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말했다. 만일 이것이라면 덮이고 실리게 되리라.)
(194) 如何得不被橫徑取侵去? (卷20)
(어찌하여야 곁길에 취해지고 침해당하지 않겠습니까?)
(195) 被他二境迴換. (卷29)
(다른 두 경계에 휘둘리고 바뀌어졌다.)
(196) 愚人被他禁繫. (卷29)
(어리석은 이는 그에게 속박 당한다.)

다음은 被피동식의 동사 중 동보구조로 이루어진 복음절 동사인 경우이다.

(197) 玄沙云. 大小石頭和尙被讓師推倒. (卷5)
(현사가 말했다. 大小 석두화상이 양 선사에게 밀려 넘어뜨려졌다.)
(198) 王老師修行無力, 被鬼神覷見. (卷8)
(왕노사의 수행이 힘이 없어서, 귀신에게 들켰다.)
(199) 苦哉浮盃, 被老婆摧折. (卷8)
(괴롭도다 부배여, 노파에게 부서져 꺾였구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음은 被피동식 동사 중 동목구조 이루어진 복음절 동사인 경우이다.

(200) 問三十六路阿那箇一路最妙? 師曰. 不出第一手. 曰, 忽被出頭時如何? 師曰. 脊著地也不難. (卷20)
(묻기를 서른 여섯 갈래의 길에서 어느 길이 가장 묘합니까. 대사가 말했다. 제일 가는 솜씨는 나오지 않는다. 이르기를, 홀연히 나옴을 당할 때엔 어떠합니까? 대사가 말했다. 등이 땅에 닿는 것도 어렵지 않다.)

예문(200)은 피동자가 생략된 문장으로, 내용상 앞의 '第一手'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피동자로 보여진다. 이 경우 '出頭'의 '頭'는 추상적인 개념의 일부라고 보는 것 보다는, '나오다'라는 동목 구조의 동사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被피동식 동사로는 복음절 동사 뿐 아니라 단음절 동사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부대성분을 가지지 않고 단음절 동사만 홀로 쓰인 경우가 42회 등장한다. 이는 現代 중국어 피동문에서는 문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近代 중국어에서도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는 문형이다. 袁賓은 近代 중국어 문헌 중 일부를 뽑아 被피동식을 조사하여, <被+행위

자+동사>식에서 술어로 단음절 동사만 홀로 쓰이는 경우의 비율을 『世說新語』,『百喩經』,『文選』이 57%, 『敦煌變文』이 17%, 『祖堂集』이 31%,『五燈會元』이 26%, 四種南戲에서 16%라고 제시하였다.[83] 『景德傳燈錄』의 경우는 19개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袁賓의 조사에서 宋・元代 작품인 四種南戲에서 나타난 비율과 같은 수치로, 『景德傳燈錄』피동문에서도 당시 피동문에서 술어로 단음절 동사만 홀로 쓰이는 경우가 감소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景德傳燈錄』被피동식 중 술어로 단음절 동사만 홀로 쓰이는 경우이다.

(201) 汝**被**我解. (卷1)
(네가 나에게 분해 당한 것이다.)
(202) 老僧**被**汝騎. (卷11)
(노승이 너에게 태워졌다.)
(203) 既是三界大師, 爲什麽**被**弟子鎖? (卷27)
(이미 삼계의 대사인데, 어째서 제자에게 갇히십니까?)

예문(201), (202), (203)에서는 보어, 부사어, 목적어 등과 같은 기타 부대성분 없이, 각각 '解', '騎', '鎖'의 단음절 동사만이 술어로 쓰이고 있다.

3.1.2.4 부대성분

被피동문이 수반하는 부대성분은 목적어, 보어, 부사어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래에서 각각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목적어

被피동문에서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는 총 10회로,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被피동문에 나타난 목적어를 주어 및 동사와의 관계에 따라, 예속성 목적어, 이중 목적어, 병렬성 목적어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예속성 목적어인 경우

이는 목적어가 주어의 일부이거나, 주어의 소유물인 경우를 말한다.

83) 袁賓, 「《祖堂集》被字句研究」, 『中國語文』1989年 第1期, p.209.

(204) 忻州打地和尙. 自江西領旨. 自晦其名. 凡學者致問. 惟以棒打地而示之. 時謂之打地和尙. 一日被僧藏卻棒然後問. 師但張其口. (卷8)
(혼주 타지 화상은 강서에서 법을 깨친 뒤, 스스로 그 이름을 감추고 있었다. 학자들이 물으면, 오직 몽둥이로 땅을 두드려 그것을 보였다. 당시 그를 타지화상이라 불렀다. 하루는 어떤 중에게 몽둥이를 숨겨진 이후 물음을 당하니, 대사는 다만 그 입만 벌렸다.)

(205) 忍仙林下坐禪時. 曾被歌王割截支.(卷9)
(인욕선인은 숲 속에서 좌선 할 때, 가리왕에게 사지를 찢기웠다.)

(206) 因開井被沙塞卻泉眼. (卷27)
(우물을 열었기 때문에 모래에 샘구멍이 막혔다.)

(207) 設見彌勒出世, 還被他燖卻頭尾. (卷28)
(설사 미륵이 세상에 나오신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머리와 꼬리에 지져짐 당했다.)

예문(204)에서 목적어 '棒'은 타지 화상의 소유물이며, 예문(205)에서 목적어 '支'는 인욕선인의 신체를 가리키고, 예문(206)에서 목적어'泉眼'은 주어 '井'안에 있는 것으로 소속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예문(207)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나 전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볼 때, 목적어'頭尾'는 생략된 주어의 신체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이중목적어 중 직접 목적어인 경우

이는 동사가 수반하는 두 개의 목적어 중 직접 목적어가 목적어로 남고 간접 목적어는 주어가 된 경우로, 여기서의 목적어는 이중 목적어의 직접 목적어인 경우이다.

(208) 今問, 上座, 每日持盂掌鉢時, 迎來送去時, 爲當與古人一般. 別有道理? 若道別且作麽生得別來? 若一般恰到他舞, 又被喚作野狐精, 有會處麽? (卷8)
(이제 묻노니, 상좌들이여, 매일 발우를 들고 잡을 때, 사람을 맞이하고 보낼 때, 고인과 같게 해야 한다. 다른 도리가 있는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만일 일반적으로 그가 춤을 추는 것에 맞춘다면, 또 들여우 정령이라 불리우는데, 아는 곳이 있는가?)

(209) 若不識便被我喚作生盲生聾底人還是麽? (卷18)
(만일 알지 못한다면 나에게 청맹과니(보기에 멀쩡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눈)나 배냇벙어리라 불려야지 아니 그러한가?)

(210) 被汝致此一問, 直得當門齒落. (卷18)
(그대에게 이 한 물음을 받으니, 당장에 앞니가 빠졌다.)

(211) 似老僧向前被人教返本還源去, 幾恁麽會禍事. (卷28)
(마치 노승이 전에 남에게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만 알다가 큰 화근을 당할 뻔한 것과 같다.)

(212) 大德莫認心認佛. 設認得是境, 被他喚作所知愚. 故江西大師云, 不是心不是佛不是物. (卷28)
(대덕은 마음을 아는 것이 부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설사 그것이 경계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 불리우리라. 그러므로 강서 대사께서 이르기를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라 하신 것이다.)

3) 병렬성 목적어인 경우

(213) 師在石頭時問云. 如何得合道去? 石頭云, 我亦不合道. 師云, 畢竟如何? 石頭云, 汝被遮箇得多少時耶? (卷8)
(대사가 석두에게 있을 때에 물었다. 어찌해야 도에 부합합니까? 석두가 이르기를, 나도 도에 부합했다고는 못한다. 대사가 이르기를, 끝내는 어떠합니까. 석두가 이르기를, 그대는 이것에 의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얻게 되었는가?)

예문(213)에서 피동자인 주어 '汝'와 목적어'多少時' 사이에는 소유・소속 관계도 없고, 동사와의 사이에서는 이 목적어가 이중 목적어로 쓰이지도 않은 경우로, 여기에서는 唐鈺明의 견해를 받아들여, 이를 병렬성 목적어라 지칭하겠다. 唐鈺明은 병렬성 목적어는 주어와 병렬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 사용 횟수는 많지 않으나, 西周 金文 于피동식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84]

2. 보어

被피동문에서 보어를 수반하는 경우는 총 26회로,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보어를 수반하는 경우가 2회 나타나며, 나머지는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보어이다.

여기에서는 방향보어가 쓰인 예문과 결과보어가 쓰인 예문 중 전치사구가 결과보어로 쓰인 경우, 명사구가 결과보어로 쓰인 경우를 살펴보겠다.

먼저 방향보어가 쓰인 예문으로, '出', '去'가 방향보어로 쓰이고 있다.

84) 唐鈺明, 「唐至淸的"被"字句」, 『中國語文』1988年 第6期, p.462.

(214) 便被喝出. (卷14)
(바로 할을 당했다.)
(215) 某甲也欲造箇無縫塔, 就菴主借取樣子. 曰何不早道? 恰被人借去也. (卷27)
(저도 무봉탑을 만들고자 하여, 암주께 견본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르기를 어찌 진작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침 다른 사람에게 빌려갔습니다.)

다음은 전치사구가 결과보어로 쓰인 경우로, 모두 4개의 예문이 있다.

(216) 和尙當時被節度使抛向水中神色不動. (卷10)
(화상께선 당시에 절도사에게 물 속으로 내던져졌는데도 얼굴빛 하나 변치 않았다.)
(217) 我行脚時被惡風吹到汝州. (卷12)
(내가 행각을 할 때 나쁜 바람에 의해 여주까지 불려갔다.)
(218) 師曰, 依俙似曲才堪聽, 又被風吹將別調中. (卷25)
(대사가 말하기를, 곡조가 비슷하여 들을 만하더니, 또 바람에 의해 딴 가락 속으로 불려갔다.)
(219) 文殊忽起佛見法見, 被佛威神攝向二鐵圍山. (卷27)
(문수가 홀연히 부처니 법이니 하는 소견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두 개의 철위산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명사구가 결과보어로 쓰인 경우는 총 2회 나타난다.

(220) 乃晦跡藏用外示癡訥, 自撰頓悟入道要門論一卷. 被法門師姪玄晏竊出江外呈馬祖. (卷6)
(이에 자취와 활동을 감추고 밖으로는 바보인 체하면서, 스스로 돈오입도요문론 한 권을 지었다. (그것이) 법문선사 조카인 현안에 의해 강외로 훔쳐져 마조에게 갖다 바쳐졌다.)
(221) 師曰, 依俙似曲才堪聽, 又被風吹別調中. (卷26)
(대사가 말하기를, 곡조가 비슷하여 들을 만하더니, 또 바람에 의해 딴 가락 속으로 불려갔다.)

3. 부사어

被피동문에서 부사어를 수반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크게 '被' 앞에 부사어가 오는 경우와 동사 앞에 부사어가 오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被’ 앞에 부사어가 오는 경우

‘被’앞에 부사어가 오는 경우는 각각 부사, 전치사구, 시간명사, 수량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부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여기에서는 특히 부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 66개의 부사가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被’ 앞에 쓰인 부사를 종류별로 나누어보면, 시간부사(15개), 부정부사(17개), 중복부사(8개), 빈도부사(2개), 어기부사(14개), 정태부사(3개), 범위부사(7개)로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시간부사

시간부사로는 ‘卽’이 5회, ‘旣’,‘忽’,‘早’가 각각 2회, ‘便’,‘曾’,‘已’,‘久’가 각각 1회씩 등장한다. 그 중 몇 개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2) 若人見般若卽**被**般若縛. (卷25)
(어떤 사람이 반야를 보았다 하면 반야에 속박 당한다.)

(223) 沙彌領旨去, 語未終早**被**雲居打一棒. (卷15)
(사미가 분부를 받고 가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작에 운거에게 한 방망이 맞았다.)

(224) 丈夫咄哉, 久**被**塵埋. (卷29)
(장부 이 놈, 오래도록 티끌에 묻혔구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② 부정부사

부정부사로는 모두 ‘不’이 쓰이고 있고, 총 17회 등장한다.

(225) 如何不**被**諸境惑? (卷14)
(어찌하여야 모든 경계에 미혹 당하지 않습니까?)

(226) 若不**被**此得失繫縛, 便無生死. (卷28)
(만일 이러한 득실에 속박 당하지 않는다면, 생사가 없어진다.)

③ 중복부사

중복부사로는 ‘又’가 5회, ‘亦’이 3회 등장한다.

(227) 寂子又**被**吾勘破. (卷9)
(혜적은 또 나에게 점검 당했다.)

(228) 法眼亦被後僧勘破也. (卷27)
(법안 또한 나중 선객들에게 점검 당할 것이다.)

④ 빈도부사

빈도부사로는 '多'가 2회 등장한다.

(229) 只向紙背上記持言語, 多被經論惑. (卷28)
(단지 종이 위에 말을 기록한 것은, 대부분 경론에 미혹 당한 것이다.)

⑤ 어기부사

어기부사로는 각각 '卻'이 9회, '幾'가 3회, '恰'이 2회 등장한다.

(230) 卻被解境風漂, 卻歸生死海裏. (卷6)
(도리어 이해의 경계라는 바람에 나부끼다가, 생사의 바다 속으로 돌아 간다.)
(231) 旣見般若, 爲什麽卻被縛? (卷25)
(이미 반야를 보았는데, 어째서 도리어 속박 당합니까?)
(232) 若不是松山幾被箇老翁作亂一上. (卷8)
(만일 송산이 아니었다면 거의 그 늙은이에게 한 바탕 희롱 당할 뻔했다.)
(233) 恰被汝問著. (卷25)
(마침 너에게 질문 당하는구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⑥ 정태부사

정태부사로는 '猶'가 3회 등장한다.

(234) 他說法如雲如雨, 猶被佛呵云. (卷28)
(그의 설법이 구름같고 빗발같아도, 여전히 부처님께 꾸짖음 당한다.)

⑦ 범위부사

범위 부사로는 각각 '總'이 3회, '盡'이 2회, '俱'가 1회, '唯'가 1회 등장한다.

(235) 汝久後總被俗漢算將去在. (卷9)
(그대는 오랜 뒤에 모두 속세 사람에게 계산 당하리라.)
(236) 盡被汝道了也. (卷26)

(모두 그대에 의해 말해졌다.)

(237) 但是一切言敎只明如今覺性自己, 俱不**被**一切有無諸法境轉. (卷6)

(다만 이 온갖 교리는 단지 지금을 밝히고 자신을 깨닫는 것일 뿐으로, 모두 있고 없는 모든 법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238) 非唯**被**趙州勘破, 亦**被**遮僧勘破. (卷10)

(오직 조주에게 점검 당했을 뿐 아니라, 이 중에게도 점검 당했구나.)

(2)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被'앞에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는 모두 6개로, 각각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239) 太子不如密多以進諫**被**囚. (卷2)

(태자 불여밀다가 간언하다 갇혔다.)

(240) 食到口邊**被**他奪卻. (卷7)

(밥이 입가에서 그에게 빼앗겼다.)

(241) 有一童子於外**被**人詰曰. 和尙說何法要? 童子豎起指頭. (卷11)

(한 동자가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 당했다. 화상께서 어떤 법요를 말씀하시던가? 동자가 손가락을 세웠다.)

(242) 恁麽修行盡不出他輪迴際, 依前**被**輪轉去. (卷18)

(그렇게 수행하면 모두 다른 윤회의 끝을 나오지 못하여, 전과 같이 윤회에 이리저리 이끌려지리라.)

(243) 似老僧向前**被**人敎返本還源去, 幾恁麽會禍事. (卷28)

(마치 노승이 전에 남에게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만 알다가 큰 화근을 당할 뻔한 것과 같다.)

(244) 故臨終時於業道**被**業**所**引受當來報. (卷13)

(그러므로 임종할 때에 업보의 길에서 업에 이끌려 세상의 업보를 받는다.)

(3) 시간명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시간명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는 모두 8회 등장한다. 그 중 몇 개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5) 三十年馬騎今日卻**被**驢撲. (卷12)

(30년 말을 탔는데 오늘 당나귀에게 채였다.)

(246) 狂亂隨情念臨終**被**業牽. (卷13)

(미쳐서 情念을 따르면 죽을 때 업에 이끌린다.)

(247) 日夜**被**他人我拗. (卷29)

(밤낮으로 타인과 나에 의해 꺾이리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기에서는 각각 '今日', '臨終', '日夜'이 부사어로 쓰이고 있으며, 이밖에도 '一日', '當時', '昨日'이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4) 수량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수량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는 모두 2예가 있다.

(248) 如是三問三轉**被**打. (卷12)
(이처럼 세 번 물어 세 번 맞았습니다.)
(249) 如是三問三遭**被**打. (卷12)
(이렇게 세 번 물어 세 번 맞았습니다.)

劉世儒는 '轉'은 南北朝 시기에 동량사로 쓰이기 시작한 초보적인 단계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轉'이 동량사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85] 이로 미루어보면, 『景德傳燈錄』이 간행된 宋初에는 그 시기에 비해 더욱 더 상용화되었을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겠다. 또한 兪光中, 植田均에 따르면 '遭' 또한 近代에 양사로 쓰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86] 따라서 위에 제시한 『景德傳燈錄』의 예문에서의 '遭' 또한 양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동사 앞에 부사어가 오는 경우

동사 앞에 부사어가 오는 경우는 모두 8회로, 각각 수사, 명사, 형용사, 대체사가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250) 只如魯祖節文在什麽處, **被**南泉恁麽道? (卷7)
(노조의 절문이 어디에 있기에, 남천에 의해 그렇게 말해지게 되었는가?)
(251) 今日**被**馬大師一問, 平生功夫冰釋而已. (卷8)
(오늘 마 대사에게 한 차례 질문을 당하자, 평상시의 공부가 얼음같이 녹아버렸다.)
(252) 大小潙山**被**那僧一問得百雜碎. (卷9)
(大小 위산이 그 중에게 한 번 물음을 당해 백 조각이 났다.)
(253) 師曰, 大小長慶**被**汝一問口似匾擔. (卷18)

85) 劉世儒, 『魏晋南北朝量詞硏究』, 北京, 1962, p.141.
86) 兪光中, 植田均, 『近代漢語語法硏究』, 學林出版社, 上海, 1998, pp.240~241.

(대사가 말하기를, 大小 장경이 그대에게 한 차례 질문 당하자 입이 광주리같이 되었구나.)

(254) 忽爾是箇漢未通箇消息向他恁麽道被他驀口摑, 還怪得他麽? 雖然如此也不得亂摑. (卷18)

(홀연히 어떤 이가 깨닫지 못하고서 다른 이에게 이렇게 말하여 그에게 입을 쥐어 박히면, 그를 괴이하다 하겠는가? 비록 이러하더라도 함부로 칠 수는 없다.)

(255) 三世諸佛被我一口吞盡. (卷27)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나에게 한 입 몽땅 삼켜졌다.)

(256) 卻被如來苦訶責. (卷30)

(여래에게 호되게 꾸지람 당하였구나.)

(257) 釋迦老子三七日中思惟, 便欲入涅槃, 被帝釋梵王慇懃三請, 不得已而許之. (卷30)

(석가모니께서는 37일 동안 사유하여, 열반에 들려 하다가, 제석 범왕에게 정성스럽게 세 차례 청을 받아, 마지못해 허락하셨다.)

예문(251), (252), (253)에서는 수사 '一'이 동사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 경우이며, 예문(255)의 경우는 명사구 '一口'가, 예문(256)에서는 형용사'苦'가, 예문(257)에서는 형용사 '慇懃', 수사'三'이 각각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예문(250)에서는 대체사가 동사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여기에서 '恁麽'는 馮春田에 따르면 近代 중국어에 쓰인 대체사 중 하나로, 가까운 것을 지칭하거나 먼 것을 지칭하는 두 가지 성질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칭하여 '中性指示代詞'라 하고 있다. '中性指示代詞'는 近代 중국어에서 비교적 많이 쓰이는 것으로, 近代 중국어 초기의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恁麽'는 唐代의 '異沒', '熠沒', 五代의 '伊摩', '與摩', '任摩'의 변화된 형식으로, 宋代에 대량으로 출현하였다. 唐代의 '異沒', '熠沒'는 五代때에는 '伊摩'로도 쓰였고, 音이 '與摩', '任摩' 로 변화되어, 宋代에 이르러 '任摩'의 語音 변화 방향에 따라서, '恁麽'로 쓰게 되었다. '恁麽'는 唐代 문헌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宋代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특히,『祖堂集』,『景德傳燈錄』등과 같은 선종어록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87] 예문(254)에서 동사 앞에서 부사어로 쓰인 '驀口'는 전치사'驀'와 명사'口'로 이루어진 전치사구로, 여기에서는 전치사로 쓰인 '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宋寅聖은 '驀'는 『說文』에서 "上馬(말에 오르다)"라 訓하

87)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2000, pp.133~141.

고, 段玉裁는 “上馬必捷, 故引伸爲猝乍之稱(말에 오르려면 반드시 민첩하게 해야하므로, ‘갑자기’라는 의미로 引伸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猝乍”은 “突然”이며, 이는 ‘驀’의 상용되는 의미이나, “上馬”에는 또한 “前行(앞으로 가다)”의 의미도 있으므로, 또한 “朝前(앞을 향하다)”의 의미로도 引伸되면서, 다시 전치사로 虛化하여, 방향을 이끌면서, 전치사“朝”, “當”의 쓰임과 같이 쓰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驀’는 처음 『祖堂集』에 나타났으며, “驀+목”구조로 모두 술어 앞에 쓰이고 있다고 한다. 『祖堂集』에서는 모두 9예가 있으며,[88] ‘驀’의 목적어에는 “口”(모두 4예), “頭”(모두 2예), “面”(모두 2예), “項”(모두 1예)등 모두 신체 부위로, ‘驀’는 『祖堂集』외에, 宋代의 『景德傳燈錄』, 『五燈會元』등 禪宗 문헌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景德傳燈錄』에서는 전치사 ‘驀’가 모두 11예 출현하며, 그 용례에는 “驀口”(모두 7예), “驀頭”(모두 2예), “驀面”(모두 1예)등이 있고, 지금도 湖南 방언에는 전치사‘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고 있다.[89] 여기에서 살펴본다면, 전치사‘驀’의 쓰임 또한 선종어록에 나타난 近代 중국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1.2.5 기타 구조적 특징

1. 연동 구조와의 연계

여기에서, 被피동구조는 다른 동사구와 연동구조를 이룬 경우와 被피동구조 안에서 연동구조를 이룬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被피동구조가 다른 동사구와 연동구조를 이룬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8) 宗勝**被**<u>謫投崖</u>. (卷3)
(종승은 문책당하여 벼랑으로 떨어졌다.)
(259) 只恐不是佛, **被**有無諸法<u>轉不得自由</u>. (卷6)
(단지 부처가 아니라고 여겨서, 있고 없는 모든 법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 자유를 얻지 못할까 두렵다.)
(260) **被**三乘功行<u>拘繫不得解脫</u>. (卷9)

---

88) 예: 問“如何是沙門行?“. 師云“逢佛驀頭坐.”(3.006.14)
(“사문은 어찌 가려오?”라 묻자, 대사가 “부처를 만나면 머리에 앉으리다.” 라고 말했다.)
89) 宋寅聖, 「《祖堂集》所見唐五代新興處所方向介詞探究」, 『中語中文學』, 第22輯, pp.84~85.

(삼승의 수행에 구속당해 해탈을 얻지 못한다.)

(261) 安云, 好著箇無相佛. 師云, 好片地被兄放不淨.(卷12)

(안 화상이 이르기를, 형상 없는 부처를 모시면 좋겠다. 대사가 이르기를, 좋은 조각 땅이 사형에 의해 더럽혀지는군요.)

(262) 其僧後到雪峰擧前語, 被拄杖打趁下山. (卷16)

(그 중이 나중에 설봉에게 앞의 이야기를 거론하다, 주장자로 맞고 산밑으로 쫓겨났다.)

(263) 故臨終時於業道被業所引受當來報. (卷13)

(그러므로 임종할 때에 업보의 길에서 업에 이끌려 세상의 업보를 받는다.)

위 예문에서 모든 被피동구조는 연동구조에서 제1술어가 되고 있으며, 모두 <被+(행위자)+동사1+동사2+(목적어/보어)>의 구조를 이룬다. 여기에서 동사1 즉, 제1술어의 행위주체는 被뒤의 행위자이며, 동사2, 즉 제2술어의 행위주체는 주어인 피동자이다.

다음은 被피동구조 안에서 연동구조를 이룬 경우이다.

(264) 乃晦跡藏用外示癡訥, 自撰頓悟入道要門論一卷. 被法門師姪玄晏竊出江外呈馬祖. (卷6)

(이에 자취와 활동을 감추고 밖으로는 바보인 체하면서, 스스로 돈오입도요문론 한 권을 지었다. (그것이) 법문선사 조카인 현안에 의해 강외로 훔쳐져 마조에게 갖다 바쳐졌다.)

(265) 忻州打地和尙自江西領旨. 自晦其名. 凡學者致問, 惟以棒打地而示之. 時謂之打地和尙. 一日被僧藏卻棒然後問, 師但張其口. (卷8)

(흔주 타지 화상은 강서에서 법을 깨친 뒤, 스스로 그 이름을 감추고 있었다. 학자들이 물으면, 오직 몽둥이로 땅을 두드려 그것을 보였다. 당시 그를 타지화상이라 불렀다. 하루는 어떤 중에게 몽둥이를 숨겨진 이후 물음을 당하니, 대사는 다만 그 입만 벌렸다.)

(266) 谷山卻過東邊, 師乃下禪床方行兩步, 被谷山捉住云.(卷8)

(곡산이 동쪽으로 가니, 대사가 이에 선상에서 내려와 바야흐로 두어 걸음 걷는데, 곡산에게 잡혀 말했다.)

(267) 大小潙山被那僧一問得百雜碎. (卷9)

(大小 위산이 그 중에게 한 번 물음을 당해 백 조각이 났다.)

(268) 嘗以, 衡山多被山民斬木燒畬. 爲害滋甚. (卷16)

(일찍이, 형산 대부분이 화전민에게 나무가 잘리고 전답이 불태워져, 피해가 자못 심하다.)

(269) 仁者莫只是記言記語恰似念陀羅尼相似. 蹋步向前來口裏哆哆[口*和][口*和]地, 被人把住詰問著, 沒去處便瞋道和尙不爲我答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卷18)
(인자는 단지 말만을 기억하여 다라니(진언)를 외우는 것 같이 해서는 안된다. 멈칫멈칫 앞으로 와서 입 속에서 중얼중얼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 힐문당하면, 갈 곳이 없어져 곧 화를 내며 화상이 내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위 예문들은 모두 피동구조 안에서 연동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로, 두 개의 술어의 행위 주체가 모두 '被'뒤의 행위자인 경우이다.

2. 겸어구조와의 연계

(270) 令汝眞見不被邪魔所惑. (卷25)
(너로 하여금 참으로 보게 하여 삿된 마의 홀림을 받지 않게 하리라.)

예문(270)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문장으로, 먼저 '眞見'과 被피동구조가 연동구조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동사'令'에 의해 사동 구조를 이룬 경우이다.

被피동식이 연동구조나 겸어구조와 연계되는 경우는 모두 13회로, 전체 被피동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로 미미하지만, 古代 중국어 피동문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에 비한다면, 의미 표현 측면에서의 발전된 모습이라 여길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피동구조가 담당하는 문장성분

被피동구조가 담당하는 문장성분으로는 그것이 주어, 목적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먼저, 주어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1) 是非好醜是理非理諸知見總盡, 不被繫縛處心自在名初發心菩薩. 便登佛地. (卷6)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 옳은 이치와 그른 이치의 온갖 소견이 모두 다하여, 속박 당하지 않고 마음 가짐을 자유로이 하는 것을 처음 마음을 발한 보살이라 이름하니, 즉시에 부처 지위에 오르게 된다.)
(272) 但不被一切善惡垢淨有爲世間福智拘繫, 卽名爲佛慧. (卷6)
(다만 온갖 선,악, 더럽고 깨끗한 유위 세간 복과 지혜에 구속당하지 않는 것을, 부처의 지혜라 이름한다.)
(273) 只言衆生被一切境攝.著慾之故. (卷30)
(단지 중생이 온갖 경계에 포섭당하는 것은 욕심에 집착한 까닭이라 하

였다.)

다음으로 被피동구조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4) 聞四衆被責, 憤悱而來. (卷2)
(네 무리가 질책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분개해하며 왔다.)
(275) 莫教被他籠罩著. 始是學處. (卷10)
(그 올가미에 덮이라고 가르치지 말아야, 비로소 배울 자리이니라.)
(276) 師院有石幢子被風吹折. (卷10)
(대사의 절에 있는 돌기둥이 바람에 불려 부러졌다.)
(277) 遮箇老師, 我將謂被故紙埋卻, 元來猶在. (卷11)
(그 노장이, 나는 묵은 종이 속에 파묻히리라 일렀더니, 아직도 여전히 있구나.)
(278) 不如一念修無漏道, 免被人天因果繫絆. (卷12)
(한 생각에 무루의 도를 닦아서, 인간과 하늘의 인과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만 못하다.)
(279) 曰見說廣州城東門外有一團石被州主移卻是否? (卷14)
(듣건대 광주성의 동문 밖에 있는 돌이 군수에 의해 옮겨졌다는데 그렇습니까?)
(280) 因僧擧聖僧塑像被虎咬乃問師. (卷21)
(한 중이 성승의 소상이 범에게 물렸다는 것을 거론하며 이에 대사에게 물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被피동구조가 각각 예문(274)에서는 '聞', 예문(275)에서는 '教', 예문(276), (279)에서는 '有', 예문(277)에서는 '謂', 예문(278)에서는 '免', 예(280)에서는 '擧'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被피동구조가 관형어로 쓰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81) 問, 三十六路阿那箇一路最妙? 師曰. 不出第一手. 曰, 忽被出頭時如何? 師曰. 脊著地也不難. (卷20)
(묻기를, 서른 여섯 갈래의 길에서 어느 길이 가장 묘합니까? 대사가 말했다. 제일 가는 솜씨는 나오지 않는다. 이르기를, 홀연히 나옴을 당할 때엔 어떠합니까? 대사가 말했다. 등이 땅에 닿는 것도 어렵지 않다.)
(282) 忽被他捉著時如何? (卷9)
(홀연히 그에게 잡히면 어찌합니까?)
(283) 什麽處是趙州被驢撲處? (卷10)
(어느 곳이 조주가 나귀에게 채인 곳인가?)

被피동구조가 예문(281), (282)에서는 '時'를, 예문(283)에서는 '處'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3.2 기타 피동식

3.2.1 於피동식

『景德傳燈錄』에 나타나고 있는 於피동식은 총 2회로, 모두 <동사+於+행위자> 구조이다.

<동사+於+행위자>

(284) 三年十月帝迫**於**其相高懽. (序)
(3년10월 제왕이 그의 재상 高懽에게 핍박당하다.)

(285) 盡是喫酒糟漢, 恁麽行脚取笑**於**人. (卷9)
(모두가 술찌꺼기를 먹는 놈들이니, 그렇게 행각을 하다가는 남에게 비웃음 당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상의 於피동식에서는 모두 불유쾌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체 문장에서, 동사 자체가 '迫', '取笑'로 모두 불유쾌함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두 개의 예로 전체적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제2장에서 설명했듯이 당시는 近代 중국어의 전반기로, 於피동식이 점차 소멸되는 상황이므로, 그 수가 적은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굳이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적인 측면에서의 피동식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 두 개의 於피동식은 모두 불유쾌한 사건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於'가 이끄는 행위자는 예문(284), (285)에서는 '其相高懽', '人'으로 有情인 사람이며, 피동자 또한 모두 사람이다.

동사를 살펴보면, 예문(284)의 '迫', 예문(285)에서는 '取笑'로 복음절 동사가 쓰였다.

부대성분으로는 예문(284)에서 수량구 '三年十月'이 부사어로 충당되고 있다.

기타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예문(285)는 비교적 특수한 경우로, 앞의 "盡是喫酒糟漢"라는 명사 술어문이 주어가 되고 있으며, 뒤의 "恁麽行脚取

笑於人”이 전체 술어이나, 이 문장은 단문 형식을 사용하여 복문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종의 긴축문으로, 앞의 “恁麽行脚”과 뒤에 나오는 “取笑於人”이 조건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2.2 爲피동식

3.2.2.1 爲피동식 形式과 그 의미

1. 爲피동식 形式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爲피동식은, ‘爲’뒤에 바로 동사가 오는 <爲+동사>형식, ‘爲’뒤에 행위자가 오고 그 뒤에 동사가 오는 <爲+행위자+동사>형식, ‘爲’뒤에 행위자가 오고 동사는 다시 ‘所’에 의해 이끌리는 <爲+행위자+所+동사>형식, ‘爲’뒤에 행위자가 오고 동사가 ‘之所’에 의해 이끌리는 <爲+행위자+之所+동사>형식으로, 모두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爲+동사>

(286) 師曰, 太守欲得保任此事, 直須向高高山頂坐深深海底行. 閨閤中物捨不得便**爲**滲漏. (卷14)

(대사가 이르기를, 태수께서 이 일을 맡고자 한다면, 바로 높은 산꼭대기에 가서 앉거나 깊은 바다 밑으로 다니셔야 합니다. 내전 안의 물건이 아까워 버릴 수 없으면 새어나감을 당하게 됩니다.)

2) <爲+행위자+동사>

(287) 偈畢儼然告寂, 瘞于正堂垂二十載. **爲**山泉淹沒. 門人發塔, 見全身水中而浮. (卷8)

(게송을 마치고 태연히 입적하니, 정당에다 빈소를 차려놓고 20년이 지났다. 산골 물에 의해 잠기게 되었다. 문인들은 탑을 발견하고, 온몸이 물 속에 떠있는 것을 보았다.)

(288) 而眞身**爲**守塔僧保護一無所損. (卷5)

(대사의 유해는 탑 지키는 중에게 보호받아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

3) <爲+행위자+所+동사>

(289) 尋**爲**周**所**虜. (序)

(심이 주에게 포로가 되었다.)

(290) 河中府中條山智封禪師, 姓吳氏. 初習唯識論滯於名相, **爲**知識**所**詰乃發憤罷講. (卷4)

(하중부 중조산 지봉 선사, 성은 오씨이다. 처음에 유식론을 익히다가 이름과 형상에서 막혀, 선지식에 의해 힐문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강의를 그쳤다.)

(291) 而忌能大師傳衣**爲**天下**所**聞. (卷5)

(능대사가 法衣를 전했다는 것이 천하에 의해 들려지는 것을 꺼렸다.)

(292) 不**爲**生死**所**絆. (卷29)

(생사에 얽매임 당하지 않는다.)

4) <爲+행위자+之所+동사>

(293) 不**爲**世法**之所**滯. (卷6)

(세간 법에 막히지 않는다.)

2. 爲피동식 의미

爲피동문에서 불유쾌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모두 28회로, 동사 자체가 '불유쾌한' 의미를 띠는 경우가 24회 나왔으며, 문장 전체적인 의미가 '불유쾌한' 의미를 띠는 경우가 4회 출현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94) 迷者不了卽**爲**境惑. (卷5)

(미혹한 이는 알지 못하여 바로 경계에 미혹당한다.)

(295) 一**爲**境惑流轉不窮. (卷8)

(한 번 경계에 미혹당하면 끝없이 헤매인다.)

(296) **爲**憎愛**所**縛. (卷3)

(사랑과 미움에 속박당한다.)

'호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모두 22회로, 爲피동문은 다른 피동문에 비해 '호의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7) 尊者曰, 此子於第五劫中生妙喜國婆羅門家, 曾以旃檀施於佛宇作槌撞鐘. 受報聰敏**爲**衆欽仰. (卷2)

(존자가 이르기를, 이 아이는 다섯째 겁에 묘희국 바라문의 집에 태어났었는데, 일찍이 전단향을 절에 보시하여 망치로 만들어 종을 쳤다. 그 과보를 받아 총명해서 대중에게 추앙 받는다.)

(298) 爲之首者名婆修盤頭, 常一食不臥六時禮佛淸淨無欲爲衆所歸. (卷2)

(그들의 우두머리인 바수반두라는 이는, 항상 한 끼니만을 먹고 눕지 않았고 여섯 차례 예불하였으며 청정하고 욕심이 없어서 대중에게 추앙 받았다.)

(299) 雖圭峰該通禪講爲裴之所重, 未若歸心於黃檗而傾竭服膺者也. (卷12)

(비록 규봉이 선과 교에 통달하여 배공에게 중시 받았으나, 황벽에게 마음을 기울여 복종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었다.)

'호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爲피동문 중, 동사 자체는 '불유쾌한' 의미를 띠고 있으나, 부정사'不'로 부정되면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호의적'인 의미를 띠는 경우가 6회 등장한다.

(300) 不爲六塵所梁. (卷29)

(여섯 가지 티끌에 가로놓여지지 않는다.)

(301) 不爲八風所牽. (卷29)

(팔풍에 이끌리지 않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爲피동식 전체에서 호의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44%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爲피동식이 호의적 의미를 표현하는데 쓰이고 있다. 이는 다른 기타 피동식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로써, 이를 통해 『景德傳燈錄』피동문에서 爲피동식은 다른 기타 피동식과 달리 호의적 의미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3.2.2.2 爲피동식 構造分析

1. 행위자

1) 의미

爲피동문에서는 3개의 <爲+동>형식을 제외한 나머지 47개의 爲피동식에 행위자가 등장한다. 그 중 有情의 사람인 경우가 모두 28개로, 전체 행위자 중 59%를 차지하고 있다.

(302) 爲周所滅. (序)

(주에게 멸망 당하다.)

(303) 時有外道號無我尊. 先爲王禮重. (卷2)
(그 때 무아존이라는 외도가 있었는데, 먼저 왕에게 존중받았다.)
(304) 金剛經爲人輕賤章. (卷29)
(금강경이 남에게 괄시 당하는 구절)

예문(302) 같은 경우에는, 國名이 행위자로 쓰인 경우이나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전체를 아우르는 우회적인 표현이라 여겨지므로, 有情의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나머지 22개 중 추상적 개념이 19개로 사람이 행위자로 나오는 경우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305) 迷者不了卽爲境惑. (卷5)
(미혹한 이는 알지 못하여 바로 경계에 미혹 당한다.)
(306) 世人不悟只認見聞覺知爲心, 爲見聞覺知所覆. (卷9)
(세상 사람들은 단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만이 마음이 된다고 여겨, 보고 듣고 느끼고 앎에 덮여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307) 不爲八風所牽. (卷29)
(팔풍에 이끌리지 않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 밖에, 행위자가 有情의 동물, 無情의 자연물, 神鬼인 경우가 각각 1회씩 출현한다.

(308) 每日僧廚下食爲烏所有. (卷27)
(매일 승이 부엌 아래 둔 밥은 까마귀에게 소유 당한다.)
(309) 偈畢儼然告寂, 瘞于正堂. 垂二十載, 爲山泉淹沒. 門人發塔, 見全身水中而浮. (卷8)
(게송을 마치고 태연히 입적하니, 정당에다 빈소를 차려놓았다. 20년이 지나서, 산골 물에 의해 잠기게 되었다. 문인들은 탑을 발견하여, 온몸이 물에 떠있는 것을 보았다.)
(310) 如上所解盡爲魔魅所攝. (卷25)
(그렇게 안다면 모두가 마에 포섭된 것이다.)

다른 문헌의 피동문에 비해, 이러한 禪宗 語錄의 피동문에서는 행위자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추상적인 개념 즉, 불교와 관련된 불교용어가 행위자로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또한 선종어록만이 가지는 피동문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 구조

爲피동문에서 행위자가 단어인 경우가 31개였고, 나머지 16개의 예문에서 행위자는 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행위자가 구로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 爲피동식에 나타난 행위자 구조의 34%를 차지하면서, 이전 古代 피동문에서의 행위자가 대부분 단어였던 상황에 비해 구조적으로 좀더 복잡해지고 의미 표현에 있어서도 좀더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위자가 구로 이루어진 경우를, 구조 관계에 따라 분류해보면, 수식구조(8회), 병렬구조(5회)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구조가 함께 쓰인 경우(2회), 수식구조와 동목구조가 함께 쓰인 경우(1회)도 나타난다.

(311) 三年十一月帝爲魏軍所執, 尋弑之. (序)
(3년 12월 제왕이 위나라 군에게 잡혀, 尋이 그를 시해했다.)
(312) 不爲六塵所梁. (卷29)
(여섯 가지 티끌에 가로놓여지지 않는다.)
(313) 爲憎愛所縛. (卷3)
(사랑과 미움에 속박 당하다.)
(314) 但爲客塵妄想所覆, 不能顯了. (卷30)
(다만 번뇌망상에 덮혀서, 드러낼 수 없을 뿐이다.)
(315) 不爲一切有爲因果所縛. (卷6)
(온갖 유위 인과에 속박 당하지 않는다.)
(316) 不爲陰界五欲八風之所漂溺. (卷6)
(음계 오욕 팔풍에 떠다니거나 가라앉힘 당하지 않는다.)
(317) 而眞身爲守塔僧保護一無所損. (卷5)
(대사의 유해는 탑 지키는 중에게 보호받아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행위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예문(311), (312)에서 각각 '魏'가 '軍'을, '六'이 '塵'을 수식하는 수식구조를 이루고 있고, 예문(313), (314)에서 각각 '憎'과 '愛'가, '客塵妄想'에서 '客塵'과 '妄想'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다. 예문(315)에서는 '有爲'와 '因果'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를 다시 '一切'이 수식해주고 있다. 예문(316)에서도 '五欲'과 '八風'이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를 다시 '陰界'가 수식해주고 있다. 예문(317)에서는 '守塔'이 동목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다시 뒤에 오는 '僧'을 수식해주고 있다.

2. 피동자

1) 의미

爲피동문에서 피동자는 생략된 경우가 총 34회로, 그 중 앞뒤 문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모두 22회이고, 나머지 12회는 피동문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고 앞의 문장에서 언급되어 다시 쓰이지 않은 경우이다. 각각의 예를 몇 가지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8) 不爲一切有爲因果所縛. (卷6)
(온갖 유위법의 인과에 속박되지 않는다.)
(319) 不爲戒律所制. (卷29)
(계율에 구애받지 않는다.)
(320) 不爲生死所絆. (卷29)
(생사에 얽히지 않는다.)
(321) 學道人皆知此, 但不能免作一精明六和合解, 遂爲法縛不契本心. (卷9)
(도를 배우는 사람은 모두 이를 알지만, 다만 하나의 정명이 여섯 가지 화합이 되었다는 생각을 면할 수 없어, 마침내 법에 속박당하여, 근본 마음에 계합하지 못한다.)
(322) 河中府中條山智封禪師, 姓吳氏. 初習唯識論滯於名相. 爲知識所詰乃發憤罷講. (卷4)
(하중부 중조산 지봉 선사, 성은 오씨이다. 처음에 유식론을 익히다가 이름과 형상에 막혀, 선지식에 힐문 당하자 격분하여 강의를 그쳤다.)
(323) 世人不悟只認見聞覺知爲心, 爲見聞覺知所覆. (卷9)
(세상 사람들은 단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만이 마음이 된다고 여겨, 보고 듣고 느끼고 앎에 덮여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예문(318), (319), (320)에서처럼, 피동자가 생략된 경우는 『景德傳燈錄』피동문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내용이 대부분 서로 주고받는 대화나, 중생이나 禪僧에게 설법하는 연설문이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방, 설법을 듣는 중생, 선승이 피동자가 되는 경우 거의 생략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爲피동문에서 피동자가 有情의 사람이 아닌, 無情의 사물인 경우가 4회 나타난다.

(324) 劉氏殘兵作梗, 師之塔廟鞠爲煨燼. (卷5)
(유씨의 패잔병이 장난을 하여, 대사의 탑과 절이 불태워졌다.)
(325) 師曰, 太守欲得保任此事, 直須向高高山頂坐深深海底行. 閨閤中物捨不得便爲滲漏. (卷14)
(대사가 이르기를, 태수께서 이 일을 맡으시려 하신다면, 바로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앉거나 깊은 바다 밑으로 다니셔야 합니다. 내전 안의 물건이 아까워 버릴 수 없으면 새나가게 됩니다.)

(326) 金剛經爲人輕賤章. (卷29)

(금강경이 남에게 괄시 당하는 구절)

(327) 每日僧廚下食爲烏所有. (卷27)

(매일 승이 부엌 아래 둔 밥은 까마귀에게 소유 당한다.)

추상적인 개념이 피동자인 경우도 3회 출현한다.

(328) 吾爲汝說大義. 則知其爲涅槃和尙明矣. (卷9)

(내가 그대를 위해 대의를 말하면, 그것이 열반 화상에 의해 밝혀진 것임을 알 것이다.)

(329) 若毛端許言之本末者皆爲自欺. (卷15)

(성내고 칭찬하는 말의 본말은 모두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

(330) 聲聞觸途爲滯. (卷29)

(성문이 길마다 막힌다네.)

(331) 惟眞常在爲妄所蒙. (卷29)

(오직 참됨만이 항상 존재하나 망령됨에 덮혔구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예문(328)에서는 '其'가 피동자가 되고 있으나, 문맥을 살펴보면 '其'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大義'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앞 문장 전체 내용이 피동자가 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332) 而忌能大師傳衣爲天下所聞. (卷5)

(능 대사가 法衣를 전했다는 것이 천하에 의해 들려지는 것을 꺼렸다.)

(333) 近日湖南暢和尙出世, 亦爲人東語西話. (卷9)

(요사이 호남에 창 화상이 세상에 나셨는데, 또한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에서 떠벌려지고 있습니다.)

2) 구조

爲피동식에서 피동자가 드러나는 예문은 모두 16개로, 그 중 피동자가 단어인 경우가 10회, 구로 이루어진 경우가 4회, 문장인 경우가 2회 나타난다. 피동자가 구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334) 門人普寂義福等並爲朝野所重. (卷4)

(제자인 보적과 의복 등은 함께 조정과 민간에게 중시 받았다.)

예문(334)에서 피동자인 '門人普寂義福等'은 '門人'과 '普寂義福等'이 同位구조를 이루고, '普寂義福'은 병렬구조를 이루어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진 구이다. 나머지 3개의 예문에서는 피동자가 모두 수식구조를 이루고 있다.

3. 동사

1) 의미

爲피동문에 쓰인 동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불유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모두 32회 출현하며, 호의적 의미를 띠는 경우가 14회, 나머지 4개의 동사는 아무런 감정적 색채도 띠지 않는다.

먼저, 불유쾌한 의미를 띠는 동사가 쓰인 예문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5) **爲**周**所**滅. (序)
(주에게 멸망당하다.)

(336) **爲**憎愛**所**縛. (卷3)
(사랑과 미움에 속박 당하다.)

(337) 偈畢儼然告寂,瘞于正堂. 垂二十載, **爲**山泉淹沒. 門人發塔, 見全身水中而浮. (卷8)
(게송을 마치고 태연히 입적하니, 정당에다 빈소를 차려놓았다. 20년이 지나서, 산골 물에 의해 잠기게 되었다. 문인들은 탑을 발견하여, 온몸이 물에 떠있는 것을 보았다.)

호의적 의미를 띠는 동사가 쓰인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338) 尊者曰, 此子於第五劫中生妙喜國婆羅門家, 曾以旃檀施於佛宇作槌撞鐘. 受報聰敏**爲**衆欽仰. (卷2)
(존자가 이르기를 이 아이가 다섯째 겁에 묘희국 바라문의 집에 태어나, 일찍이 전단향을 절에 보시하여 망치로 만들어 종을 쳤다. 그 과보를 받아 총명하여 대중에게 추앙받는다.)

(339) 子向後有五百毳徒, 而**爲**王侯**所**重在. (卷25)
(그대는 나중에 오백 대중이 있을 것이고, 왕후에게 존중받게 된다.)

동사에 불유쾌하다거나 호의적이다거나 하는 감정적 색채가 드러나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않는 경우는 모두 4회로,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340) 近日湖南暢和尙出世, 亦爲人東語西話. (卷9)
(요사이 호남에 창 화상이 세상에 나셨는데, 또한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에서 떠벌려지고 있습니다.)

(341) 向遮裏爲爾等亂道還得麽? (卷26)
(여기에서 그대들에게 어지러이 지껄여져서 되겠는가?)

(342) 而忌能大師傳衣爲天下所聞. (卷5)
(능 대사가 法衣를 전했다는 것이 천하에 의해 들려지는 것을 꺼렸다.)

(343) 日居月諸爲四衆所知. (卷9)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방의 무리에게 차츰 알려졌다.)

爲피동문은 발생 초기부터 호의적인 의미를 띠는 동사가 많이 쓰였는데, 『景德傳燈錄』의 爲피동문에서는 불유쾌한 의미를 띤 동사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다른 피동표지 피동문에 비해, 爲피동문에서 호의적인 의미의 동사가 쓰이는 경우가 적지는 않으나, 대부분 불행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쓰인 이 시기 피동문의 추세를, 爲피동문 또한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구조

任炳權은 爲피동문의 복음절 동사는 春秋戰國 시기부터 나타나서,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六朝 시기에는 전체 동사 수의 29%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90] 『景德傳燈錄』의 爲피동식에 사용된 동사 중 12개가 복음절 동사이다. 구조면에서 살펴보면, 2개의 동사가 동보구조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9개는 모두 연합구조이다. 동보구조인 경우는 부대성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루었으니, 연합구조로 이루어진 예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44) 朕夢感能禪師請傳法袈裟卻歸曹溪. 今遣鎭國大將軍劉崇景頂戴而送. 朕謂之國寶, 卿可於本寺如法安置, 專令僧衆親承宗旨者嚴加守護勿令 遺墜. 後或爲人偸竊,皆不遠而獲, 如是者數四. (卷5)
(짐이 혜능 선사께서 법을 전해받은 가사를 조계로 돌려보내 줄 것을 청하는 꿈을 꾸었다. 이제 진국대장군 유숭경을 시켜 받들어 모시고 가

90) 任炳權, 「古代 中國語의 被動文 硏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1992, p.166.

게 하노라. 짐은 이를 나라의 보배라 이르니, 경들은 본사에다 법처럼 봉안하여, 오로지 여러 중들 가운데 종지를 잘 받드는 이로 하여금 엄숙히 수호하여 잃지 않도록 하라. 그 후 누군가에게 도둑질 당해도, 모두 멀리 가기 전에 붙잡았는데, 이렇게 하기를 네 차례나 되었다.)

(345) 不爲陰界五欲八風之所漂溺. (卷6)
(음계 오욕 팔풍에 떠다니거나 가라앉힘 당하지 않는다.)

(346) 但能如此直下頓了, 不爲三世所拘繫便出世人也. (卷9)
(다만 능히 이처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삼세에 구속당하지 않고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된다.)

이 밖에, 관용구인 '東語西話'가 동사로 쓰인 특이한 경우도 있다.

(347) 近日湖南暢和尙出世. 亦爲人東語西話. (卷9)
(요사이 호남에 창 화상이 세상에 나셨는데, 또한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에서 떠벌려지고 있습니다.)

4. 부대성분

爲피동식에서는 목적어, 보어, 부사어가 부대성분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목적어

爲피동문에서 피동술어의 목적어는 1회 출현한다.

(348) 爲聲貫破汝耳. 色穿破汝眼. (卷21)
(소리에 그대의 귀를 관통될 것이며, 빛에 그대의 눈을 꿰뚫여질 것이다.)

예문(348)에서는 피동자가 생략되어 있으나, 이 예문은 설법의 한 문장으로, 설법의 대상이 되는 자가 피동자임은 알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로 온 '汝耳', '汝眼'은 피동자의 신체일부로 이 목적어를 주어 및 동사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살펴본다면, 이는 주어의 신체 일부로 예속성 목적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보어

爲피동문에서 보어는 총 2회 사용되었는데, 모두 동사 뒤에 놓여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보어로 쓰이고 있다. 각각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349) 劉氏殘兵作梗. 師之塔廟鞠爲煨燼. (卷5)

(유씨의 패잔병이 장난을 하여, 대사의 탑과 절이 불태워졌다.)

(350) 爲聲貫破汝耳. 色穿破汝眼. (卷21)

(소리에 의해 그대의 귀는 꿰뚫어질 것이며, 색에 의해 그대의 눈이 꿰뚫어질 것이다.)

3) 부사어

爲피동식에서도 被피동식에서처럼 부사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부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부사어로 쓰인 경우이다.

(351) 時有外道號無我尊, 先爲王禮重. (卷2)

(그 때 무아존이라는 외도가 있었는데, 먼저부터 왕에게 존중받았다.)

(352) 迷者不了卽爲境惑. (卷5)

(미혹한 이는 알지 못하여 바로 경계에 미혹당한다.)

(353) 俄爲郡守請住寶林院, 未幾復請居支硎山, 又住千頃慈雲院振黃蘗玄風.(卷12)

(이 때에 갑자기 군수의 청을 받아 보림원에 살다가, 오래지 않아 다시 지형산에 살라는 청을 받았고, 다시 천경산 자운원에 거주하며 황벽의 현풍을 드날렸다.)

(354) 師曰, 太守欲得保任此事, 直須向高高山頂坐深深海底行. 閨閤中物捨不得便爲滲漏. (卷14)

(대사가 이르기를, 태수께서 이 일을 맡으시려 하신다면, 바로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앉거나 깊은 바다 밑으로 다니셔야 합니다. 내전 안의 물건이 아까워 버릴 수 없으면 새나가게 됩니다.)

부정부사'不'이 부사어로 쓰인 경우는 모두 8개가 나타났고, 그 중 몇 개의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55) 不爲一切有爲因果所縛. (卷6)

(온갖 유위 인과에 속박당하지 않는다.)

(356) 但能如此直下頓了, 不爲三世所拘繫, 便出世人也. (卷9)

(다만 이와 같이 바로 즉시 깨달으면, 삼세에 구속당하지 않고,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된다.)

또한, 범위부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가 5회 나타난다.

(357) 與後主並爲周所虜. (序)

(후주와 함께 주에게 포로가 되다.)

(358) 若毛端許言之本末者皆爲自欺. (卷15)

(성내고 칭찬하는 말의 본말은 모두 스스로에게 속여지는 것과 같다.)

(359) 此若未會也, 只爲迷情所覆. 便去不得. (卷25)

(이를 만일 알지 못한다면, 오직 미혹한 망정에 덮혀서, 갈 수 없다.)

(360) 如上所解盡爲魔魅所攝. (卷25)

(위에서 아는 것과 같다면 모두 마귀에 포섭당한 것이다.)

(361) 但爲客塵妄想所覆, 不能顯了. (卷30)

(다만 번뇌망상에 덮혀서, 드러낼 수 없을 뿐이다.)

예문(357)은 범위부사 '並'뿐 아니라, '與後主'라는 전치사구도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이 밖에 어기부사 2회, 긍정부사 1회, 중복부사 3회, 정태부사 2회가 각각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이를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62) 學道人皆知此, 但不能免作一精明六和合解, 遂爲法縛, 不契本心. (卷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도를 배우는 사람은 모두 이를 알지만, 다만 하나의 정명이 여섯 가지 화합이 되었다는 생각을 면할 수 없어, 마침내 법에 속박 당하여, 근본 마음에 계합하지 못한다.)

(363) 汝向後當爲國王所師, 致祖道光大吾不如也. (卷25)

(그대는 향후 반드시 국왕에게 모셔질 터이니, 조사의 도리의 광대함은 나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364) 此去石室相連有雲巖道人, 若能撥草瞻風. 必爲子之所重. (卷15)

(여기서 석실 쪽으로 가면 운암 도인이 있는데, 만일 능히 풀을 헤치고 바람에 맞설 수 있다면, 반드시 그대에게 중시 받으리라.)

(365) 近日湖南暢和尙出世, 亦爲人東語西話. (卷9)

(요사이 호남에 창 화상이 세상에 나셨는데, 또한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에서 떠벌려지고 있습니다.)

(366) 若以心曳心,還爲覺所覺, 從之隨隨去, 不離生滅際. (卷4)

(만일 마음으로 마음을 이끌면, 또한 깨달음에 의해 깨달아졌다 하겠지만, 그것을 쫓아 따라가면, 생멸의 끝을 떠나지 못한다.)

(367) 門人普寂義福等並爲朝野所重. (卷4)

(제자인 보적과 의복 등은 함께 조정과 민간에게 중시 받았다.)

(368) 初悟和尙爲靈鑒潛請居天皇寺人莫之測. (卷14)

(처음에 도오 화상은 영감에게 은밀히 청을 받아 천황사에 거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헤아리지 못했다.)

(369) 向遮裏爲爾等亂道還得麽. (卷26)
(여기에서 그대들에게 어지러이 지껄여져서 되겠는가.)

예문(368)와 (369)는 근대 중국어 피동문에 나타나는 특이한 경우로, 부사어가 동사 앞에 바로 쓰여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다. 또한 예문(369)에서는 '向遮裏'라는 전치사구도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부사가 부사어로 쓰인 경우 이외에, 수사,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부사어가 쓰인 경우가 각각 1회 출현한다.

(370) 一爲境惑,流轉不窮. (卷8)
(한 번 경계에 홀리면, 헤매임이 끝이 없다.)
(371) 七年十二月爲周武所敗. (序)
(7년12월 주무에게 패하다.)

이처럼 부사어가 많이 사용되면서, 爲피동문의 구조가 좀 더 다양화되어지고, 의미 표현 또한 보다 풍부화 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기타 구조적 특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연동 구조와의 연계

여기에서는 爲피동구조가 다른 동사구와 연동구조를 이룬 경우와 爲피동구조 안에서 연동구조를 이룬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372) 而眞身爲守塔僧保護一無所損. (卷5)
(대사의 유해는 탑 지키는 중에게 보호되어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
(373) 俄爲郡守請住寶林院. 未幾復請居支硎山. 又住千頃慈雲院振黃蘗玄風.(卷12)
(이 때에 갑자기 군수의 청을 받아 보림원에 살다가, 오래지 않아 다시 지형산에 살라는 청을 받았고, 다시 천경산 자운원에서 황벽의 현풍을 트게 드날렸다.)
(374) 初悟和尙爲靈鑒潛請居天皇寺, 人莫之測. (卷14)
(처음에 도오 화상이 영감의 은밀한 청을 받아 천황사에 가서 사는데,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예문(372), (373), (374)에서는 爲피동구조가 다른 동사구와 연동 구조를 이루어 제1술어가 되고 있다.

(375) 爲聲貫破汝耳. 色穿破汝眼. (卷21)
(소리에 그대의 귀를 관통 당할 것이며, 빛에 그대의 눈을 꿰뚫려질 것이다.)

예문(375)는 위의 연동구조와는 다른 형태로, 任炳權은 이러한 구조를 일컬어 「연동구조 위에 얹힌 피동구조」라 칭하고 있다.[91] 즉, <爲[행위자+동사+목적어][행위자+동사+목적어]>구조로, '爲'뒤에 술목구가 두 개 오면서, 이 두 개의 행위동작을 피동화시키고 있다.

2) 피동구조가 담당하는 문장성분

爲피동구조가 담당하는 문장성분으로는, 그것이 목적어인 경우, 관형어인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376) 吾爲汝說大義. 則知其爲涅槃和尙明矣. (卷9)
(내가 그대를 위해 대의를 말하면, 그것이 열반 화상에 의해 밝혀진 것임을 알 것이다.)
(377) 而忌能大師傳衣爲天下所聞. (卷5)
(능 대사가 法衣를 전했다는 것이 천하에 의해 들려지는 것을 꺼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爲피동구조가 예문(376)에서는 '知'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고, 예문(377)에서는 '忌'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378) 金剛經爲人輕賤章. (卷29)
(금강경이 남에게 괄시 당하는 구절)
(379) 至於國內, 耆舊爲前王所奉者悉從廢黜. (卷3)
(나라 안에 이르러, 선왕에게 존경을 받던 노인들이 모두 쫓겨났다.)

爲피동구조가 예문(378)에서는 뒤의 '章'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고, 예문(379)에서는 뒤의 '者'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3.2.3. 與피동식

91) 任炳權, 「古代 中國語의 被動文 硏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請求論文, 1992, p.132.

『景德傳燈錄』에서 與피동식은 모두 10회 출현하는데, <與+동사>형식, <與+행위자+동사>형식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與+동사>

(380) 遮大愚老漢待見**與**打一頓. (卷12)
(이 대우 늙은이가 보이기를 기다렸다 한 대 때려주겠다.)
(381) 破草鞋**與**抛向湖裏著. (卷16)
(헤진 짚신이 호수 안에 던져졌다.)

2. <與+행위자+동사>

(382) 麻谷**與**師一摑. (卷13)
(마곡이 대사에게 한 차례 맞았다.)
(383) 不**與**時人知. (卷17)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384) 不**與**時人知. (卷17)[92]
(세상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385) 諸方玄學有所未決必從之請益, 至若**與**雪峰和尙徵詰亦當仁不讓. (卷18)
(제방에서 공부하던 이가 해결치 못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대사께 와서 물었으며, 설봉 화상에게 힐문을 당해도 양보하지 않았다.)
(386) 待**與**和尙勘破. (卷19)
(화상에게 점검당하기를 기다리십시오.)
(387) 若有人酬得去也, 遮裏**與**諸人爲怪笑, 若酬不得去也, 諸人**與**遮裏爲怪笑.(卷21)
(만일 누군가가 응대할 수 있다면, 여기는 여러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요. 응대하지 못한다면, 여러 사람이 여기에 의해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388) 何不覓箇歇處, 因什麽卻**與**別人點檢? (卷24)
(어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딴 사람에게 점검 당하려 하는가?)
(389) 將無佛處來**與**某甲唾. (卷27)
(부처님 안 계신 곳에 데려가면 (그 곳은) 나에게 침뱉음을 당할 것이오.)

與피동문이 나타내는 의미는, 불유쾌한 경우가 8회이며, 불유쾌하지도

92) 『景德傳燈錄』卷17에 이 문장이 두 차례 출현하기 때문에 둘 다 예문으로 제시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않고, 그렇다고 호의적인 의미를 띄지도 않는 중성적인 의미가 나머지 2회이다. 불유쾌한 의미를 나타내는 8회 중, 동사 자체가 '打', '抛', '摑', '徵詰', '怪笑', '唾'등 불쾌한 의미인 경우가 6회, 예문(383), (384)에서처럼 동사 '知'는 그 자체가 중성적인 의미이나 부정부사'不'에 의해 전체적인 의미가 불유쾌한 경우가 2회이다. 그 나머지 3회는 중성적인 의미라고 분류했으나, 동사 '勘破', '點檢'인 경우, 그 자체가 불유쾌한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으나, 만일 이러한 의미의 동사 동작을 당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역시 불유쾌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景德傳燈錄』에 쓰인 與피동식은 모두 불유쾌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與피동식의 행위자도 대부분 사람이다. <與+행위자+동사>구조에서, 예문(387)에서는 '遮裏'가 행위자가 되고 있는데, 이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보다는, '遮裏'라는 곳에 있는 비특정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피동자 또한 대부분 '사람'인데, <與+동사>구조에서 예문(381)에서는 '破草鞋'라는 無情의 '사물'이 피동자가 되고 있다. 또, <與+행위자+동사>구조에서, 예문(383), (384)에서 피동자는 그 문장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킨다. 예문(387)에서는 피동자가 '遮裏'로, 이미 언급했듯이 이 또한 '遮裏'라는 곳에 있는 비특정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예문(389)에서는 '無佛處'라는 無情의 '장소'가 피동자가 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與피동식에서 동사는 각각 '打', '抛', '摑', '知', '爲', '唾', '勘'으로 단음절 동사가 많다. 이 중 예문(387)에 쓰인 동사 '爲'는 원래 '되다'라는 자동사이나, 여기에서 사동 용법인 '~으로 되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면서 타동사화하고 있다. 예문(385)에서 동사 '徵詰'는 '徵'과 '詰'이 병렬 관계를 이루어 만들어진 동사구이며, 복음절 동사로 이루어진 예는 단 한 예만이 나타나는데, 바로 예문(388)에 쓰인 동사 '點檢'이다.

부대성분을 살펴보면, 與피동식에서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는 모두 2예가 출현하며, 보어를 가지는 경우도 모두 3예가 출현한다. 부사어로 쓰이는 예는 모두 4회 나오고 있다. 먼저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 총 2회로 예문(387)에 쓰인 '怪笑'가 그것이다. 두 번째, 보어가 오는 경우는 총 3회 나온다. 그 종류는 각각 예문(380)에 쓰인 '一頓'으로 동사 뒤에서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수량 보어가 온 경우, 예문(381)에 쓰인 '向湖裏'로 전치사구가 보어가 되는 경우, 예문(386)에 쓰인 '破'로 동사 뒤에서 결과 보어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문 (381)에서 전치사구 '向湖裏'는 동작이 행해진 장소를 가리키며, 그 뒤의 '著'는 近代 중국어에서 많이 쓰

이는 조사 중 하나로, 말하는 이의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어 명령의 어기를 돕는 역할을 한다.[93] 세 번째, 부사어가 쓰이는 경우로, 예문(383), (384)에서는 부정사 '不'이 부사어로 쓰이고 있고, 예문(388)에서는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예문(382)는 특이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피동 표지 앞에 쓰여 전체적으로 수식하는 상황이 보통인데, 여기에서는 수사 '一'이 피동동사'摑'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이는 現代 중국어 피동문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형태로, 近代 중국어 피동문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예문(388)에 쓰인 부사어 '因什麽'는 '因'이라는 전치사와 '什麽'라는 대사가 결합한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충당된 경우이다. 그 뒤의 '却'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서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물러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 경우와 다른 한 가지는 가벼운 전환의 어기를 지닌, 오늘날의 '還'이란 부사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부사로 쓰인 경우이다. 만일 '却'을 동사로 본다면 전체 문장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물러나서 다른 이에게 점검 당하려 하는가"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却'는 부사로 앞의 전치사구와 더불어 부사어가 되면서 뒤의 與피동구조를 수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기타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예문(386)에서 '待'자 뒤에 "與和尙勘破"가 쓰이면서, 與피동식이 '待'의 목적어가 되고 있다.

3.2.4. 教피동식

教피동식은 唐代에 이르러 새로 출현한 피동문으로, 『景德傳燈錄』에서는 1회 밖에 출현하고 있지 않으나, 近代 중국어의 새로운 피동 형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여기에 등장한 教피동식은 <教+행위자+동사> 형식이다.

<教+행위자+동사>

(390) 莫教老漢見捉來勘不相當搥折脚. (卷19)
(내게 들켜 붙잡혀 점검 당하다 합당치 않아서 다리를 맞지는 말라.)

93) 《漢語語法論文集》, 〈釋景德傳燈錄中在,著二助詞〉, pp.65~66.

예문(390)의 敎피동식은 동사 자체는 불유쾌한 것이나, 부정부사'莫'에 의해 부정되어지면서, 호의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행위자는 '老漢'으로 사람이며, 피동자는 문장 내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문언 선사(즉, 문장에 나타난 '老漢')가 大衆에게 설법하는 내용이므로, 따라서 피동자는 곧 '大衆'으로 이 또한 사람이다.

위 문장에서 행위자가 행하는 동작은 '見', '捉', '勘', '搥'로 모두 네 개의 동사가 모여, 동작 행위 발생의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連動式을 이루고 있다.

부대성분을 살펴보면, 네 개의 동사 중, 동사'捉' 뒤에 추향보어'來'가 오면서 동보 구조를 이루고 있고, 동사'搥' 뒤에도 결과보어'折'이 오면서 동보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莫'이 '敎'앞에서 부사어로 쓰여 전체 문장을 부정해주고 있다.

3.2.5. 喫피동식

喫피동식에서는, '喫'뒤에 행위자가 오고 다시 그 뒤에 동사가 오는 <喫+행위자+동사> 형식이 한 예 나타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喫+행위자+동사>

(391) 自從一**喫**馬師蹋, 直至如今笑不休. (卷8)
(한 번 마조에게 밟힌 이래로, 지금까지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예문 (391)의 喫피동식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불유쾌한 것이다. 동사'蹋'이 쓰이면서 동사 자체가 불유쾌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喫피동식 또한 그 수량이 적어 그것이 갖는 의미의 성격을 단정하기에는 적합지 않으나, '喫'이라는 동사 자체에 '맞다', '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喫피동식은 주로 '불유쾌한 상황'에 쓰인다고 할 수 있다.

喫피동식에서의 행위자는 사람이며, 피동자 또한 사람이다. 예문(391)은 대화 형식이기 때문에 피동자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나, 앞뒤 문맥을 살펴본다면, 피동자는 '표증'임을 알 수 있다.

喫피동식에 쓰인 동사 '蹋'은 형태 방면에서 볼 때 단음절 동사이며, 의미 방면에서 '불유쾌한' 의미를 가진 동사이다.

부대성분을 살펴보면, 예문(391)에서 '喫'앞에 수사'一'이 놓여 부사어가 되고 있다.

기타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예문(391)에서 피동식의 주어이자 전체 문장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自從一喫馬師蹋直至如今"은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로 충당되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喫피동문은 앞에 오는 전치사"自從"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3.2.6 著피동식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著피동식은 총 2회로, 모두 <著+동사> 형식이다.

(392) 此人具眼不具眼? 因什麽**著**打? (卷10)
(이 사람이 안목을 갖추었는가 갖추지 못했는가? 무엇때문에 매를 맞았는가?)

(393) 某甲三日前**著**賊.(卷11)
(제가 3일 전에 도둑질 당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예문(392), (393)의 著피동문에서는 동사가 '打', '賊'으로 그 자체가 모두 불유쾌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도 불유쾌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두 예문을 살펴보면, '著'자 뒤에 행위자 없이 바로 동사가 온 형식으로, 행위자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문(392)의 앞에 "師乃打之"라는 문장이 출현하고 있으므로, 중복을 피해 행위자 '師'를 생략한 것이며, 예문(393)은 '著'자 뒤에 피동동사'賊'의 의미로 미루어 보아 제3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맥상으로 보면 행위자는 모두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피동자 또한 '此人', '某甲'으로 '사람'이다.

동사는 '打', '賊'으로 모두 형태 방면에서는 단음절 동사이며, 의미 방면에서는 모두 불유쾌한 상황을 당하는 의미이다. 품사 방면에서 보면, 예문(393)의 '著'뒤에 '賊'은 '도적, 강도'의 의미를 가진 명사로 많이 사용되나, 여기에서는 '해치다, 도둑질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쓰였다. '賊'이 '해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쓰인 문장은 간혹 나타난다.[94]

著피동식에서는 목적어나 보어를 지니는 예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부사

어는 둘 다 나타나고 있다. 예문(392)에서는 “因什麽”라는 원인을 묻는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충당되고 있고, 예문(393)에서는 “三日前”이라는 명사구가 부사어로 충당되고 있다. 著피동식이 다른 어법구조에 포함되어 사용되거나 술어가 아닌 다른 문장성분으로 충당된 경우는 없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94) 예: 如賊賢, 則被所賊者何負? 如逆道, 則被所逆之道何非? (『論衡・ 補虛』)
(어진 이를 해쳤다면, 해침을 당한 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도를 거슬렀다면, 거스름을 당한 자는 무엇이 틀린 것인가?)

Ⅳ. 結 論

本稿에서는 北宋 初 1004년에 간행된『景德傳燈錄』에 사용된 피동문을 조사하여, 近代 중국어 초기 대표적인 禪宗 語錄에서 사용된 피동문의 유형을 살펴보고, 각각의 피동문에서 피동자, 행위자, 동사, 부대성분, 피동식이 문장성분으로 충당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景德傳燈錄』에 사용된 피동문의 유형은 모두 7가지로, 於피동식, 爲피동식, 被피동식, 與피동식, 敎피동식, 著피동식, 喫피동식이 있다. 於피동식은 西周 金文에서 발견된 오래된 피동 형식으로,『景德傳燈錄』에서는 2회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景德傳燈錄』에서 '於'는 장소를 이끄는 전치사나,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이끄는 전치사로 쓰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시기에는 於피동식은 이미 도태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爲피동식은 先秦 시대에 나온 비교적 이른 시기의 피동문으로, 『景德傳燈錄』에서도 被피동식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총 50회가 사용되었다. 이는 같은 시기 다른 문헌들에 비해, 사용빈도가 높은 편으로, 이로써 『景德傳燈錄』이 문인들의 손을 거쳐 수정되고 다듬어진 흔적을 엿볼 수 있다. 被피동식 또한, 先秦 시대에 나온 비교적 이른 시기의 피동문으로, 漢代에 이르러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唐代에는 唐代 口語에서 이미 爲피동식을 대신하게 되었다.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被피동식은 총 153개로, 전체 피동문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이는 唐鈺明이 「唐至淸的"被"字句」라는 論文에서 기술하고 있는 피동문의 통계와 비교하면, 그다지 높은 수치가 아니나, 近代 중국어 피동문에서 被피동식이 주요 형식이 되고 있다는 전반적인 상황과는 부합하고 있다. 與피동식에서 '與'는 본래 '給與(주다)'의 의미에서, 사역의 의미로, 다시 피동으로 轉化되어 발생된 문형이다.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與피동식은 모두 10개이며, '與'가 피동 표지로 虛化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遭受(받다)'나 '蒙受(당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쓰인 경우가 모두 4회 출현한다. 이는 "與"가 피동 표지로 虛化하는 변천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여기에서 與피동문이 발생경로를 살펴볼 수 있다. 敎피동식은 唐代에 쓰이기 시작했으며, 원래 사역의 문장에 쓰이다가 피동의 문장으로 轉化되면서 敎피동식이 생겨났다.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敎피동식은 단 1개로, 그 시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는 그다지 상용되는 문형은 아니었던 듯 하나,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새로운 형태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喫피동식은 宋代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近代 白話文에서 종종 쓰였다. '喫'의 本義는 "食(먹다)"이며, 唐・五代 때 "蒙受", "遭受"의 의미로 파생되었고, 다시 虛化하여 동사 앞에 쓰이면서 피동 관계를 표시하게 되었다.『景德傳燈錄』에서의 喫피동식은 단 한 예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喫'이 唐・五代 때 "蒙受", "遭受"의 의미의 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喫'이 피동 표지로 虛化하기 이전의 과도기적 형식으로 볼 수 있다. '喫'자가 "蒙受", "遭受"의 의미로 쓰일 때, 唐代에는 그것이 수반하는 목적어가 매우 제한적으로 쓰여, 대부분 '杖'이나 '棒'과 같은 종류만이 쓰였는데, 『景德傳燈錄』에서는 모두 18회 출현한다. 宋・元이후에는 그 쓰임이 훨씬 다양해지면서, 오늘날의 "吃苦(고생하다)"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景德傳燈錄』에서는 "吃苦"의 의미로 쓰인 '喫'자는 총 3회 출현한다. 喫피동식은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주요 형식 중 하나이나, 『景德傳燈錄』에는 한 예만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문헌이 편찬된 近代 중국어 전반기에는, '喫'자가 활발하게 피동 표지로 쓰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景德傳燈錄』에 나타난 '喫'자의 쓰임을 통해, '喫'자가 "먹다"라는 의미에서 피동표지로 쓰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특징이 아닐 수 없다. 著피동식은 淸代에서 많이 사용된 피동식으로,『景德傳燈錄』에서는 '著'뒤에 동사가 오면서 피동 전치사로 虛化되어 쓰인 著피동식이 2회 나타난다. 著피동식 또한 敎피동식과 마찬가지로 『景德傳燈錄』에서 사용된 횟수는 적으나,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새로운 형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 다음으로, 『景德傳燈錄』에 쓰인 각종 피동문의 형식과 제 양상을 분석하여 『景德傳燈錄』 피동문의 상황을 가늠해보았다. 중국어 語法史를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被피동식이 피동문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동문 구조의 복잡 정도 등을 표지로 하여, 한 문헌이나 어느 한 시기의 피동문의 성숙도를 가늠한다고 한다. 『景德傳燈錄』에 쓰인 각종 피동문의 형식과 제 양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그 용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被피동식 분석이 주가 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기타로 엮어 분석하였다. 被피동식을 대표로 해서, 피동문 형식 분석에 대해 종합해보면, 먼저 행위자는 有情의 사람인 경우가 많았지만, 禪宗 語錄이라는 특성상 대중이나 선승들에게 설법하는 내용의 글이 많이 실려 있다. 따라서, 거기에 쓰인 被피

동문의 행위자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불교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이나 불교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피동자 또한 有情의 사람인 경우가 많았지만, 설법하는 글이 많은 관계로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사는 여전히 단음절 동사가 많이 쓰이고 있으나, 古代 중국어 피동문에 쓰인 동사와 비교했을 때, 전체 동사 중 복음절 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피동문의 부대성분으로 각각 부사어, 보어, 목적어가 수반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부사어는 대부분 피동표지 앞에 놓여 있으나, 간혹 동사 앞에 놓여 피동동사를 수식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부사어에 쓰인 부사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며, 전치사구 등이 부사어로 쓰인 경우도 있다. 보어로는 대부분 결과나 방향을 나타내는 결과류 보어가 많고, 전치사구, 수량구 등이 보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피동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는, 古代 중국어 피동문과 다른 近代 중국어 피동문의 특징으로, 피동문에 나타난 목적어를 피동자와 동사와의 관계에 따라 예속성 목적어, 이중 목적어, 병렬성 목적어로 나눌 수 있다. 문법구조 관계를 조사한 결과, 피동구조가 주어, 목적어, 관형어 등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동구조가 다른 구와 연동구조를 이루기도 하고, 피동구조 안에서 연동구조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피동구조가 사동구조에 포함되어 쓰이는 경우도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렇듯『景德傳燈錄』에 쓰인 각종 피동문의 형식과 다양한 양상들을 통해, 『景德傳燈錄』피동문은 이미 풍부한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고, 정밀한 표현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被피동식이 전체 피동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北宋 전후의 여러 문헌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唐鈺明, 袁賓, 吳福祥 등의 近代 중국어 피동문 연구 통계에 따르면, 『唐代禪宗語錄』, 『敦煌變文集』, 『祖堂集』에서 被피동식이 전체 피동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98%, 97.6%, 93.8%로,[95] 『景德傳燈錄』의 70%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이다. 『景德傳燈錄』이 이처럼 낮은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爲피동식의 쓰임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景德傳燈錄』을 통해 당시 口語의 보급률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울러 같은 시기 다른 문헌에 비해, 문인들의 수정과 편집으로 인해 많이 다듬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

95) 唐鈺明, 「唐至淸的“被”字句」, 『中國語文』1988年 第6期, p.465.
袁賓, 「《祖堂集》被字句硏究」, 『中國語文』1989年 第1期, p.195.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硏究』, 岳麓書社, 北京, 1996, p.452.

[參考文獻]

〈단행본〉

盧烈紅, 『《古尊宿語要》代詞助詞硏究』, 武漢大學出版社, 武漢, 1998.

馬　眞, 『簡明實用漢語語法』,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88.

孫良明, 『古代漢語語法變化硏究』, 語文出版社, 北京, 1994.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北京, 1992.

呂叔湘　編,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北京, 1996.

吳福祥, 『敦煌變文語法硏究』, 岳麓書社, 北京, 1996.

王　力, 『王力文集』第1卷　『中國語法理論』,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84.

王　力, 『王力文集』第2卷　『中國現代語法』,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84.

王　力, 『王力文集』第11卷　『漢語語法史』,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84.

王了一, 『漢語語法綱要』, 上海敎育出版社, 上海, 1982.

饒長溶, 『把字句・被字句』, 人民敎育出版社, 北京, 1990.

劉　堅, 江藍生, 白維國, 曹廣順, 『近代漢語虛詞硏究』, 語文出版社, 北京, 1992.

兪光中, 植田均, 『近代漢語語法硏究』, 學林出版社, 上海, 1998.

劉月華 外 著, 尹和重 外 譯, 『現代中國語文法』, 大韓敎科書株式會社, 서울, 1993.

李　珊, 『現代漢語被字句硏究』,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94.

李　申　編, 『近代漢語文獻整理與硏究』, 河北敎育出版社, 石家莊, 2002.

蔣紹愚, 『近代漢語硏究槪況』,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94.

田小琳, 『語法和左隣右舍』, 人民敎育出版社, 北京, 1990.

程湘淸　編, 『魏晋南北朝漢語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88.

程湘淸　編, 『隋唐五代漢語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90.

程湘淸　編, 『宋元明漢語硏究』, 山東敎育出版社, 濟南, 1992.

趙元任, 『國語語法』, 學海出版社, 臺北, 198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周法高, 『中國古代語法』稱代編(上), 台聯國風出版社, 臺北, 1972.
周法高, 『中國古代語法』造句編(上), 台聯國風出版社, 臺北, 1972.
志村良治 著, 江藍生, 白維國 譯, 『中國中世語法史研究』, 中華書局, 北京, 1995.
崔承一, 『現代漢語句型』, 延邊大學出版社, 延吉, 1988.
湯廷池, 『國語變形語法研究 第一集 移位變形』, 臺灣學生書局, 臺北, 1982.
太田辰夫 著, 江藍生, 白維國 譯, 『漢語史通考』, 重慶出版社, 重慶, 1991.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研究』, 山東教育出版社, 濟南, 2000.
許 璧, 『中國古代語法』, 신아사, 서울, 1997.
胡裕樹 外 編, 허성도 譯,『現代中國語學概論』, 敎保文庫, 서울, 1991.
洪成玉 編, 『古代漢語敎程』下卷, 中華書局, 北京.

〈論文〉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橋本萬太郎, 「漢語被動式的歷史·區域發展」, 『中國語文』 1987年 第1期.
唐鈺明, 周錫韓, 「論先秦漢語被動式的發展」, 『中國語文』 1985年 第4期.
唐鈺明, 「漢魏六朝被動式略論」, 『中國語文』1987年 第3期.
唐鈺明, 「唐至淸的“被”字句」, 『中國語文』1988年 第6期.
董志翹, 「中世漢語中的三類特殊句式」, 『中國語文』1986年 第6期.
董志翹, 「中世漢語“被”字句的發展和衍變」, 『語言文字學』, 1989.
朴英綠, 「《祖堂集》意味虛化動詞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宋寅聖, 「《祖堂集》所見唐五代新興處所方向介詞探究」, 『中語中文學』, 第22輯.
宋寅聖, 「唐宋 禪宗 文獻에 나타난 몇 가지 입말(口語)」, 『中語中文學』, 第23輯.
沈錫倫, 「晩唐宋元被字句考察」, 『語言文字學』, 1988.
楊學軍, 「漢語裏的特殊被動句式」, 『語言文字學』, 1985.
梁曉虹, 「佛敎典籍與近代漢語口語」, 『中國語文』1992年 第3期.
吳金華, 「所見=見」, 『中國語文』1981年 第5期.

吳金華, 「試論“R爲A所見V”式」, 『中國語文』 1983年 第3期.
袁　賓, 「論近代漢語」, 『語言文字學』, 1987.
袁　賓, 「《祖堂集》被字句研究」, 『中國語文』 1989年 第1期.
柳英綠, 「韓漢語被動句對比」, 『漢語學習』 2000年 第6期.
柳士鎭, 「《百喩經》中的被動句式」, 『語言文字學』, 1985.
李崇興, 「《祖堂集》中的助詞“去”」, 『中國語文』 1990年 第1期.
李臨定, 「“被”字句」, 『中國語文』 1980年 第6期.
林明花, 「《說苑》의 語法構造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8.
任炳權, 「古代 中國語의 被動文 研究」,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論文, 1992.
刁晏斌, 「試論近代漢語語法的特點」, 『遼寧師範大學學報』 1991年 第1期.
許仰民, 「論《金瓶梅詞話》的“乞”字句」, 『語言文字學』, 1989.
「釋景德傳燈錄中在,著二助詞」,『華西聯合大學中國文化研究所集刊』 1卷 3期, 194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中文提要〕

『景德傳燈錄』被動句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 語 中 文 學 科
金 愛 羅

晚唐五代至南宋是禪宗的興盛時期. 禪宗是佛教中的一派, 注重“頓悟”, 常以師徒間的問答作爲使人開悟的手段, 因此有語錄傳世. 現存禪宗總集數量不多, 但對唐宋時期比較重要而可靠的禪宗語錄總集有『祖堂集』和『景德傳燈錄』. 宋代的禪宗語錄, 最常用的是道原編的『景德傳燈錄』. 此書三十卷, 成書於北宋景德元年(1004年). 此書大抵取材於『寶林傳』,『祖堂集』, 而於宋代禪僧的材料亦予收錄.『景德傳燈錄』撰成後, 上於朝廷. 翰林學士楊億等人受命修訂成書三十卷, 爲有史以來第一部官修禪書. 這就使得此書的語言面貌與『祖堂集』等有明顯的不同, 可以說, 此書在一定程度上反映了宋代的語言狀況. 歷來研究近代漢語的人都以宋初的『景德傳燈錄』爲重要的語言資料.

被動句是漢語裏的重要句式之一, 它在上古漢語裏就已經形成. 但是在漢語發展的漫長歷史過程中, 發生了不少的變化. 尤其是到近代漢語裏, 被動句的發展演變更爲多樣化.

本文以『景德傳燈錄』被動句爲研究對象, 進行考察『景德傳燈錄』出現的多種被動句式, 衡量『景德傳燈錄』接近口語程度.

『景德傳燈錄』除古代漢語以來及近代漢語的“於”被動句式, “爲”被動句式, “被”被動句式, “與”被動句式以外, 還有近代漢語裏才有的 “教”被動句式, “喫”被動句式, “著”被動句式.『景德傳燈錄』“於”被動句式2例, “爲”被動句式50例, “被”被動句式153例, “與”被動句式10例, “教”被動句式1例, “喫”被動句式1例, “著”被動句式2例, 共有被動句219例. 一般說來, “被”被動句式在被動式中所占比例和“被”被動句式結構形式的成熟程度可以作爲衡量一種文獻接近口語程度的標準之一.『景德傳燈錄』“被”被動句式在整個被動句式中所占比例約70%, 這說明『景德傳燈錄』口語進展比同一時期其他文獻口語慢一点.

『景德傳燈錄』共有“被”被動句式153例. 其中130例“被”字引入施事者, 其餘23例“被”字後不出現施事者. 與其他文獻不同, 施事者一半是用表示自然物, 工具, 抽象性概念的無情名詞來擔當, 其中有關佛教的抽象性概念的詞頗多. 施事者81例是單音或雙音名詞. 另有49例施事者不是單純名詞, 其中有偏正結構, 并列結構, 同位結構, 兩種結構混合使用者. 如此,『景德傳燈錄』被動句裏, 常出現長而複雜的施事名詞(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語).『景德傳燈錄』“被”被動句式帶賓語者共11例, 可以分成三種類型, 卽賓語屬於受事者, 授與動詞的移轉物, 賓語和受事者沒有所屬或部分的關係.『景德傳燈錄』“被”被動句式裏動詞帶補語者共26例,有處所補語, 結果補語和趨向補語三種. 在『景德傳燈錄』“被”被動句式裏出現的狀語數量特別多. 狀語絶大多數置於“被”字之前. 此外, “被”和被動動詞之間也出現狀語. 被動結構可嵌進連動結構, 使動結構, 或把那些結構嵌在其內, 就句子成分而言, 則可當主語, 賓語, 定語, 定語的中心語.

通過以上說的『景德傳燈錄』“被”被動句式結構形式的情形, 我們可以看到『景德傳燈錄』被動句發展情況和口語化程度.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